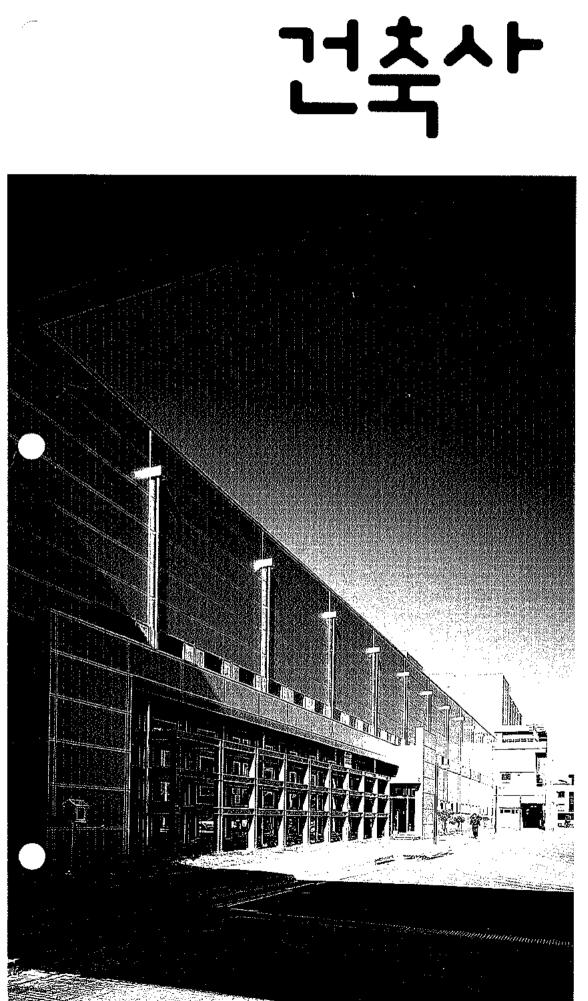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E-mail: korea@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01단위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http://www.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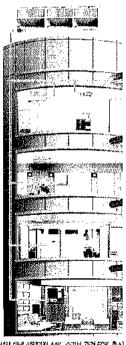






# 





(기존 실외기 설치 대비 설치면적 44%, 슬리브 관경 50% 축소)

# MULTI V<sub>IM</sub> PLUS

최대 46마력의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으로 중대형 빌딩 공조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 ·실외기 용량: 최소 5Hp에서 최대 46Hp까지
- ·120m 최장배관, 50m 수직배관
- ·고급 중앙제어, PC/인터넷 중앙제어, 적산전력 분배 동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Network Solution 시스템
- ·국내 최초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
- : LRP-N4600BH, LRP-N5800B, LRP-N5800BH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중서

## ★ 소비자와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 MULTI V -

제7회 2004 올해의 에너지 대상 수상 선업지원부 장관상 수상

사**스템에어인 제공 구입 문의** 구간회사 영합법 02/2005-3052 구함는 02/2005-3596 구함복 02/727-4183 구경제 03/1267-0873 구원전 03/1327-962 구호된 062/510-5842 구충점 042/388-0633 구부전 05/1807-3242 구경금 055/264 7494(제주포함) 구경로 053/267-0808 - ※인터넷 중계 OSH **WWW.systemaircon.com** 



# 제계에서 인정받은 버무난방 초절전 온수 방열관!

일반용전력으로 심야 전력기기 보다 저렴한 난방! 기존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이 가능! 기름보일러 대비 70% GAS 대비 50% 절감 가능!

- 1.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 밀폐한 XL관 내에서 저온의 복수발열선를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를 방열로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 2. 소음, 공해, 화재, 폭발, 전자파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청정에너지 바닥 복사 난방
- 3. 보일러가 불필요하고 기계적 장치가 없어 건물수명과 같은 영구적 난방
- 4. 관리비용이 불필요한 난방: 대형건물은 물론 기숙사, 연수원, 호텔 등 숙박업소, 군·경내무반, 병원, 콘도 등 어떤 건물이라도 각방 온도제어를 안내인 혼자 관리하는 난방 System
-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던 온돌하터를 XL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뜩!
- ※ 기존배관에 복수의 전열선를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 참조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전기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특허청
  - 『신기술 개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인증업체
  - "ISO 9001:2000 인증』업체
  - 「품질보증인증(Q마크)」 업체
  - 『전자파 환경인증서』 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업체

※ 당사 초절전 온수 방열관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928-1090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원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23-4 청진빌딩 305년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1010cy@korea.com









전 문 건 설 업 등 록 업 체

인정번호 대구 : 제 1~1.6호

실용신인등록 제20-01903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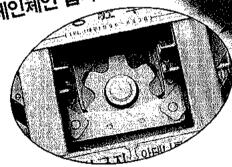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全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웹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슬 림 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를



렇 게 0 다릅니다

점정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자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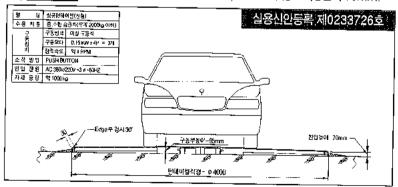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 사 양 ( 뉴 그 랜 저 급

				<u>:                                    </u>
모 델 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주차기 길이	소요높이
		(最小)	(最小)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वा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ଘା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w.juchagi.com 한글도메인: 주

##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자 않고 자상높이 70m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E-mail: cgp210@kornet,net

F A X : 054)973-0067

● 서 울 지 사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 부산사무소: 051)784-6721

FAX: 02)333-4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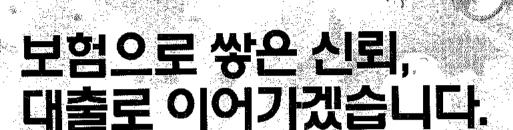
1544-3335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전국대표전화

(상담 · A/S)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 삼성생명 대출특선!!



##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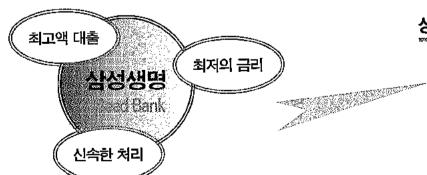
대출자격\_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연 6.4%~7.2%

기 간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교등 분할상환 기능) 대출기관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5.7%~6.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발당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02)545-8853~4 Fax\_(02)545-4939

HP\_011-9738-0087



상압에서 발포해서 제조하므로 타공법에 비해 같은 체적내에서 독립기포의 수가 적고 치밀하여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내습, 내수성과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최고급 품질의 난연성 방수단열재입니다

상입발포 공법으로 생산되는 스타폼은 미세한 독립기모내에서 기체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화탄소를 충진하였기 때문에 단얼재중 가장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기포의 미세한 기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로 인한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212662773

독립기포구조를 가진 스타쯤은 압출보드 중 최고인 최대하중 60Ton/m2까지 견디는 다양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를 지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빌딩, 주택, 주차장, 활주로, 옥상총, 고속도로, 냉동창고 바닥, 아이스링크바닥 등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 3 / 1984 (1987)

다른 단열째와는 달리 미세한 연속독립기모로 형성된 스타퐁은 흡수량이 거의 없어 기존의 단열제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 4 **Mar**

난연제를 투입하여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는 아니지만 불연재로 마감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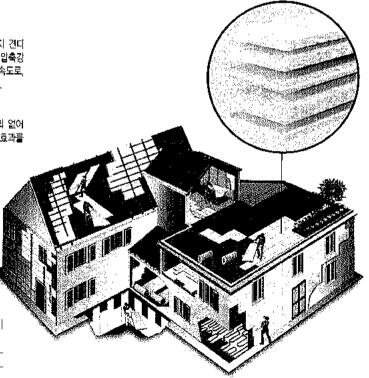
## 5) which was

시공시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칼, 톱, 열선 등으로 쉽게 규격대로 절단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작업이 편리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6 (四种) (100)

두께 20-120mm 까지 생산 가능하며, 다양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하여 시공이 훨씬 편리합니다.

스타폼(STAR FOAM)



本社· 王場:韓國 大邱廣域市 達西區 月岩洞 927-3(城西王團 2次 2地區)
Tel:(82-53)586-3911(直通) 582-3911~4(代表) Fax:(82-53)582-3915
E-mail: myungil@ chol.com Web-site: www.starfoam.co.kr



Korean

한국(한국(史)大衛(왕) 유택건목의 분절하여 시대의 정치 고마고 기능성이 규칙된 역측을 발표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권국의 미리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정인니다. 기성건축인의 청작의은 교취와 산민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생과 맥을 이어기고 있는 20/04 원국민축문화大賞이 이러분의 많은 성원과 

- 1000 新疆 海通 水质的最大性質 的复数医外型原染型的海绵性体医炎 聚基氯甲酚基

- LANGER STATEMENT STATEMENT OF THE PROPERTY OF

- 表記 DEF TO THE PROPERTY SEEDED TO THE PROPERTY OF THE PROPER

- 등의 (산년교육등 대한민국사원회 등) 사용견치 등의 (1925년 사원회) 하고 (1935년 등에 대한민국인의 대한국학(설립회) 인국 (1941년 학교 기본 (대) 문의 (1) 2017년 의 (1941년 (대) 1841년 (대)

## 한국건독문화대상 시행유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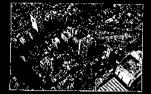


















Architecture · Interior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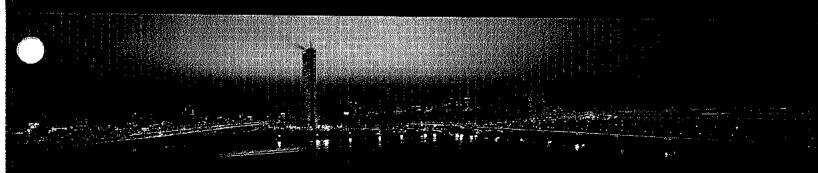






Tel: 02)576-5146; Fax: 02)576-7377 CHAI Communication Photo Studio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6-11 차이스 2층 www.chais.co.kr



##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 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 주제설명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욕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더욱 더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면 서,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하므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둘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보적 관계로 얽혀있다. 서양적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판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 매감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 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 퇴보 (Retrogression)

단순성

획일성

불안전성

종의수 : 소수

높은 엔트로피

독립성

## 진화 (Evolution)

복잡성

다양성

안전성(안정상태)

종의수 : 다수

낮은 엔트로피

상호의존성(공생)

자연예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L.맥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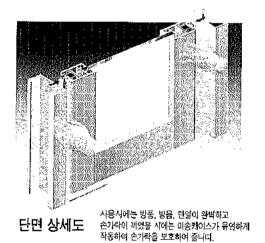
자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 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전성, 상호의존성 (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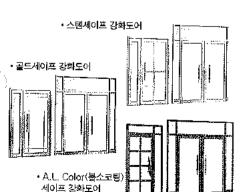
단서들 : 땅, 불, 바람, 빛, 수목, 경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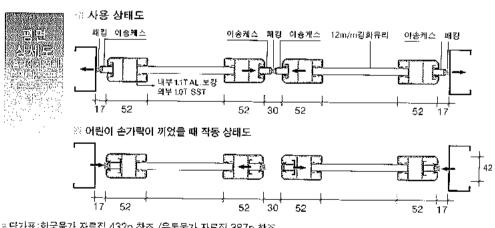
# 別回国君弘臣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 ◎ 단가표: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 □ 공장출고가격: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설치 장소** /·오피스벨 ·공공건물 ·은행·아파트 ·학교 ·스포츠시설 건물·백회점(마트)·병원 ·호텔

##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4)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전화: (053)325-9800/325-9801~2

FAX: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 Contents









korean architect

쓰레기 만두소와 규제완화 그리고 건축법	정양순	14
	유원재	17
이젠기본을생각할때(變能生不變能死)	문홍길	18
삼아 알미늄(주) 포승공장	현도경	20
한조건축사목	해만준	32
감리교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	윤주현	40
마리아의 딸수도회 수녀원	박 훈·배기철	48
남서울대학교성암문화 <del>제육관</del>	김인수 · 최재인	56
청주 독립형 Hospkoe	이창훈	66
청담동 STUDIO EGG	신창섭	72
공간 클럽 - 13(마지막)	이재훈	78
국내 건설CALS/EG의 최근동향	이주남	85
기공사유감	조지연	88
'협회소식		90
건축계소식		93
현상설계		98
해외집지동량		- 116
토론회		122
	이젠기본을생각할때(변화보 不불화死) 심아 알미늄㈜ 포승공장 한조건축사육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습리 채플 마리아의 말수도화수녀원 남서울대학교성암문화제육관 청주 독립형 Hospice 청담종 STUDIO EOG  공간 클럽 - 13마지막) 국내건설CALSEC의 최근동향 기공식 유감 현화소식 건축계소식 해외집지동향	지전기본을 생각할 때 (평朝보 지 <b>택</b> 朝死) 변화고 경험되었다. 한국 경험 기공식 유리 기공식 기공식 유리 기공식 기공식 기공식 유리 기공식

발 행 인 : 이세훈 면 집 기 회 : 김선명, 정명는, 김종복, 박영순, 손기전, 오설훈 문사덕, 이란적, 이제로, 이중호, 추수명

면서 이 이는 등 이 에는 등 이 등 기 등 한 위치 전집 홈보편전례 조한국 팀장) 받 형 치 대한건축사험에 수 소 서울특별시 시조구 시조2동 1821-6 등이터워빌딩 2층 우 판 번 호 187-857

대표 (D2)581-5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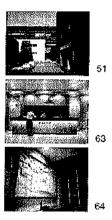
돼지말라 (02)586-8823

인 더 넷 http://www.kira.or.kr

koreaakira or kr 인 쇄 인 김중식/제이어트(02)2269-7619

광고문의 올코편찬팀

발견, 연속사건, 항국간행윤리점원칙의 불량성형 및 증정보상당 준수없다다. ★본지대가지원기사가 사전의 유민진에 및 복사를 접합니다.



## korean architect

Vol. 422 June 2004

Column		
Cumplings Made of Refuse, Relat of Regulations, and Building Co	xies Chang Yang-Soon	14
Cartoon	Yoo Won-Jai	17
Focus		
Now, We have to Arrange the Start Line	Moon Hong-Gil	18
Works		
Sam-A Aluminlum	Hyun Do-Kyung	20
Hawoo Bulliding	Ha Man-Joon	32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Wesley Chapel	Yoon Joo-Hun	40
Files de Marie, immaculee	Park Hoon, Bae Ki-Cheol	48
Seongam Culture and Sports Complex	Kim In-Soo, Choi Jae-In	56
Process works		
Independent Hospics, Churgju	Lee Chang-Hoon	66
Design note		3.5%
Cheongdam dong Studio Egg	Shin Chang-Seop	72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78
Feature		
Recent Trends in CALS/EC of Domestic Construction	Lee Ju-Nam	85
Regrets on Ground-Breaking Ceremonies	Cho Ja-Yeon	- 88
Architects Plaza		
Kira news		9D
Archi-Net		93
Competition		98
Overseas Journal		116
Forum		122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ck, Lee Kwan-Jick, Lee Jae-Rim

Publishing Office Address

Lee Jong-Ho, Jugh Soo-Ill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321-6 Seocho-Zdong, Seocho-gu, Sooul, Korea

Zip Code Tei 137-857 (02)581-5711~4 (02)536-8823 Klm Jung-Sik(J-art) Fax Printer

## 쓰레기 만두소와 규제완화 그리고 건축법

Dumplings Made of Refuse, Relief of Regulations, and Building Codes

단무지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무우.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것들을 섞어 제조한 만두소를 가지고 넣어 만든 것. 일컬어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매스컴들은 만두를 반품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있는 수퍼마켓의 계산대와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만두를 직접 만듭니다' 라는 광고를 붙여도 한산하기만 한 만두가게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재료만 쓰는 만두 제조회사조차 공장 가동률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영세회사들은 부도를 맞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잘 나가던 만두제조회사 사장의 한강 투신자살로 이어졌다. '나도 모르고 만들었다. 내 아이들에게도 먹였다'며 떳떳한 아빠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한 그를 보며 국민들은 또 다른 울분을 토해내야만 했다. 비위생적 만두를 전 국민이 먹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건강을 조금씩 잃었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한 생명을 버린 것이다.

만두 파동은 국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파문을 야기하였다. 1,000여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만두의 일본 수입 중단 사태가 그렇고 이제 막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 만두가 꽃도 피기 전에 시들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미국에는 이태리의 파스타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와 터키 심지어 베트남의 만두까지 1년에 8,000여만 달러가 소비되는데, 집채, 두부, 부추 등 야채가들어 있는 한국 만두는 일본 것보다 영양가와 맛이 좋아 김치보다도 시장성이 더 밝다는 것이다. 3년 동안 갈고 닦아 5%의 시장을 확보한 마당에서 이번 파동은 치명타라는 것이다. 15년 전 쇠기름 라면 파동 때 일본이 이를 이용해 자국의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 지구촌이 되어버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일이 되어 버렸다.

바닷물에 소금과 염료를 섞어 만든 간장으로 유명한 황금장유 사건부터 쇠기륨 라면 파동, 톱밥과 공업용 착색료를 넣은 고춧가루, 납들어간 조기, 농약 범벅의 아채 등 불량 식품은 언제나 곁에 있어 왔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외쳐 댔지만 항상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번일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단지 지구가 온라인 화 된 탓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마친다는 것이 조금 더 클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원인(原因)을 배금사상, 도덕적 해이 등에서 찾아 왔다. 물론 이러한 것은 맞는 말이며,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것이기에 내 탓 전에 내 탓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근인(近因)은 감대중 정부 때 시작한 규제완화정책 탓이라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평가 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보면 98년부터 03년까지 식품관계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 3건만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보사연은 식품의 경우 규제강화가 세계적인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평으로써 식품안전의 기반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된 규제가 '식품위생관리인의 위생 관리 의무, 식품의 자기 품질검사 대상업종, 식품첨기물 사전제품검사, 식품 운반-판매업자의 위생교육, 식품제품 검사표시' 등으로 이 제서야 재 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의식주(衣食住)이다. 먹거리에서 불량식품의 남발 원인이 규제완화에 있었다면 식주(食 住)라는 두바퀴 수레의 한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 관련법 속에서 이뤄진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여 식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고객이며, 소비자인 국민과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다.

건설교통부의 건축 관계 규제완화는 98년 이후 130건을 폐지하고 58건을 개선한 것으로 자체 자료에 나타나 있다. 필자는 국민의 편에서 이를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재고해야할 사항도 꽤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동주택분야의 경우 3,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우체국, 파출소 등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1,000세대 이상 단지의 유치원 부지의 삭제는 경기부양과 원가절감으로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되리라 본다. 작은 것이지만 주민운동시설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파트라는 세대별 폐쇄공간에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신고가 50㎡에서 300㎡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주택의 경우, 추후 보완하여 100㎡ 이상의 경우 건축시가 설계하고 감리하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100㎡까지 신고라는 것도 안전 상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증축의 경우는 심각하다. 또한 공장의 경우, 일부는 2층 이하 500㎡까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 등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신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전적 측면에서 100개동 중 단 1개동만 부실이 나타나 붕괴된다하여도 그 피해는 막대하며,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사회적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수선이다. 기둥을 자르고 벽을 허물어 구조체를 수정하는 문제가 신고만 하면 되고 리노베이션 또한 건축사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얼마 전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난 것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매스컴에서도 간단히 취급됐으나 항상 그러리란 법은 없다. 유사한 사고는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구조부문에 취약한 이들이 멋대로 보나 기둥을 없애는 경우가 삼심치 않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부문의 더 큰 문제는 가연재료 등을 마구 쓰고 비상계단 등을 막는 등 대형화재 참시를 불러 올 수 있는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가 단 하나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인테리어 도면에 대한 건축사의 검토와 날인을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한다.

그 밖에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한 것에 면적규제 등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소형은 무관할 수 있으나 대형면적의 경우, 전기, 소방, 기계설비,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도 설계 감리가 전무함으로 이로 인한 위험이 매우크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인 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관계 및 국기게양대 설치 등은 우리들의 일을 더 많게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리 그리고 애국심의 고취를 위하여 재고할 문제라 사료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같은 건축사라해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업장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1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며, 대수선 및 리노베이션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또는 승인도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는 건축사들의 작은 이익 때문이 아니요, 전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 그리고 국부(國富)의 손실을 막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다.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서 인명이 손상되고 국부가 새나가며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는 쓰레기 만두 파동 같은 것을 재연하고 싶지 않은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차제에 협회는 소관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을 건축사가 아닌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만물 중에 최귀(最貴)한 국민의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과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圖

문횽길 / (주)하우드엔지니어량종합건축사시무소 by Moon Hong-Gil

시루 [ Focus

## 이젠 기본을 생각할 때 (變卽生 不變卽死)

Now, We have to Arrange the Start Line

### 이성적 접근

이 글은 이성적으로 접근,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간의 건축관련 담론들이 감성 쪽에 치우쳐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사들이 매우 감성적이기 때문이라라.

건축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예술(감성)과 기술(이성)의 결합체라는 건축을 직접 수행해 나가는 건축사(가)들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건축가하면 예술 지향적 전문가, 건축사하면 국가가 인증한 경제 지향적 기술자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대외적으로도 건축가협회는 예총에 속해있는 예술적·선험적 창의집단, 건축사협회는 기술적·제도적 기술집단 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 건축사(가)들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집단은 제도 : 기술 : 시장과 관련된 분화된 분야의 전문화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

## 외부의 호름들

먼저, 밖으로 눈을 돌려 건축계 모든 부분 주체들의 움직임 중 필자의 눈에 잡힌 일부를 적어본다.

관련 정책 주체들은 부동산 투기-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를 잡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기적 수단을 차근치근 연구·실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GDP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는 논리로 건설산업의 급랭을 막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틀에 맡겨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초기 공약에 비해 규제책이 약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제, 4+2년제로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인증원 체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취업난과 설계사무소의 고질적인 저임금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한편, 감리협회는 CM영역, 건기법 감리 등 업역 확대를 위해 차근차근 제도화하고 있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력한 재건축 억제책을 시행하면서 사업추진이 까다로워지고 수익성도 불투명해지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장이 급중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추어 CM을 새로운 업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협회는 감리관련 실무활동의 핵심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협회음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필자는 현재 협회-혹은 우리 건축사 개개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내부를 돌아보려 한다.

### 대가없는 품질 없다

세상에는,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짜란 없다. 대가없는 품질은 없다. 다만, 대가없이 품질이 높은 것도 존재하는데, 이는 문화행위, 혹은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적 여억을 추구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그러하다면, 이는 경제적·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F-낙제점으로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바보이거나 사회사업가이리라,

계획설계, 혹은 사업성 검토는 보통 대가없이 공짜로 해 주는데, 이 공짜로 해 주는 주체가 바로 우리 건축사이다. 고로 건축사도 제정 신이 아니거나 사회사업가 계열이다. (사실이다. 많은 강자들-우리에게 order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거절하고 해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웃으면서, 이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스스로 자위한다. 이는 필자가 무수한 경우를 당해본 후의 결론이다. (만약 어쩔 수 없다면 품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계획과 검토를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이는 정보에 어둡기 때문이며, 게다가 건축사 집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기술력과 품질이 높기 때문에 사기치기 딱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복합분야이다. 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특성상 건축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도 건축인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개인주의가 집단주의보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인해 받는 개개인의 불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협, 의협은 무엇이 우리 협회와 다른 것일까? 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긴 채 동료들을 경쟁상대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 변즉생 불변즉사 (變能性 不變能死) - 지금은, 향후는 합리성이 기본이다

이제는 건축계도 변화해야 한다. 우선은, 제대로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 꿈을 갖고 사회에 발을 들인 신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다. 당연한 서비스라 생각하는 우리의 땀과 정성이 어린 결과물을 이젠 제대로 대접 받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리를 내어야 하는 소형·중형·대형 사무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그간 모르고, 잊고 지냈던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때, 건축인의 특성인 개인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혹하지 않고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협회의 몫이다. 그러나 협회신문 등을 보면 일부 서로를 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협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통관 심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서로는 경쟁상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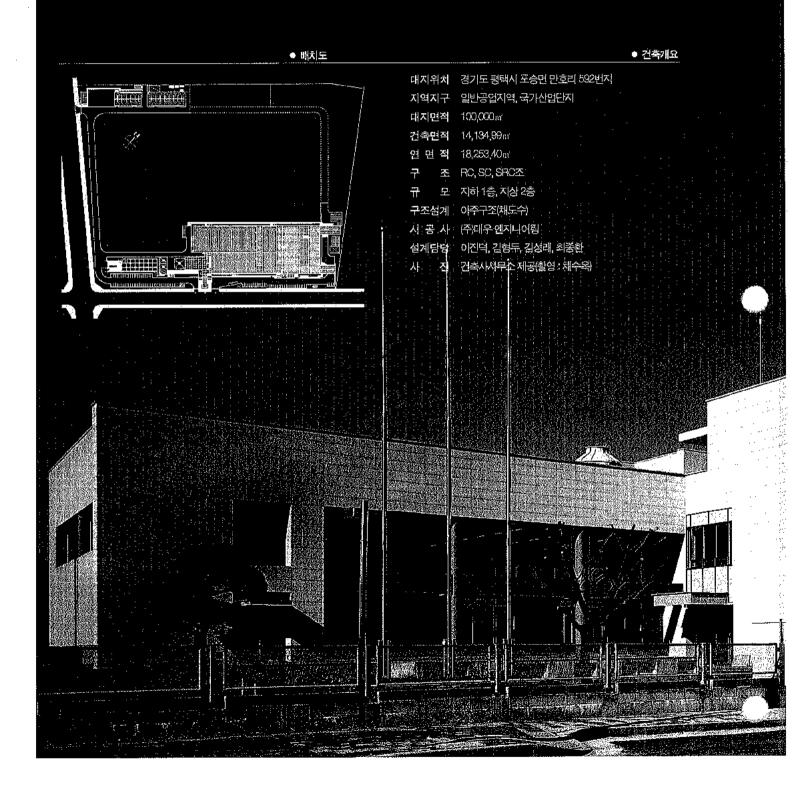
갈수록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은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고, 협회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은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사회가 갖는 필연적인 속성이다. 건축계 내에서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직, 협회, 학회, 단체 등과 건축인 개개인이 해야 하는 전문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야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학벌·연고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스템으로는 이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하되 전문적 뿌리 없이는 단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합리성을 놓친다면, 협회는 일반적 이익집단으로, 개인적 떼쓰기 집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건축사들간 충분한 대회를 통해 진정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합리성을 비탕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키워 나가는 것이 현재의 어지러운 현실에서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앞으로 건축계에는 토지규제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다. 좀 더 큰 판에서 건축계의 정돈된 목소리를 전달되어야 한다.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사들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필자는 위에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變卽生 不變卽死). 그러나 이것은 어찌보면 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성의 바탕 위에 선다는 것은 여태 우리가 잊고 지낸 가장 원초적인—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원리인 것이다. 두렵다. 협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만 이용다용하면서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집단의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죽는다. 이는 생태계의 진실이다. 남 탓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해서 나 자신부터 어떻게 변하고, 나를 제외한 외부에 어떤 기여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평소 생각만으로 맴돌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아닐까. 圖

# 삼아 알미늄(주) 포승공장 Sam-A Aluminium



### 서로

대개의 경우 신업용 건축물은 별반 보여 줄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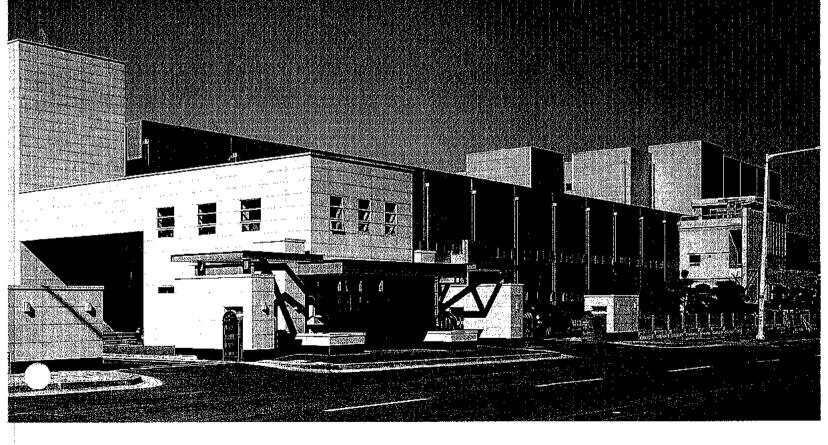
공장은 플랜트(Plant)관련 프로세스 (Process)기능만 충복되면 건축물은 쉘터 (Shelter) 역한로 충분하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책정된 건축비용은 건물 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작은 설계비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면을 요구하는 디지인과 디테일을 피하게 한다. 이번 작업도 여건은 별반 다르지 않으나 건축주축이 기능한 범위내에서 설계자 의견 을 최대한 수용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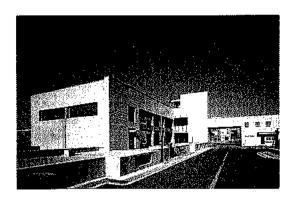
포정용 은박지, 점단 산업용 소재 등 순도 99% 이상이 알마늄 박을 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은 많은 공정과 복잡한 구조가 요구된 반면 플랜트 판련 프로세스가 구채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납품에 2년이 소요되었고, 변경시 마다 400메에 달한 도면 수정에 애를 먹었다.

그동안 건축주, 시공사 등 관련된 모든 분 들이 고생한 만큼 부족하나마 지면을 통한 소개로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 계획 정리

2차례에 걸친 추가 증축이 예정된 부지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필요하나 향후 플랜트 계획의 마정으로 인해 부자를 최대한 비워무되 최종 건폐율이 50% 이상 예정된 바 사전에 옥내 : 외에 휴게 및 보이드(Void)





공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관리통의 경우 금회 공사의 적정규모 산정과 모든면에서 증축을 고려한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연결동선, 공간비우기, 경제적 상세 등 가능한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을 원칙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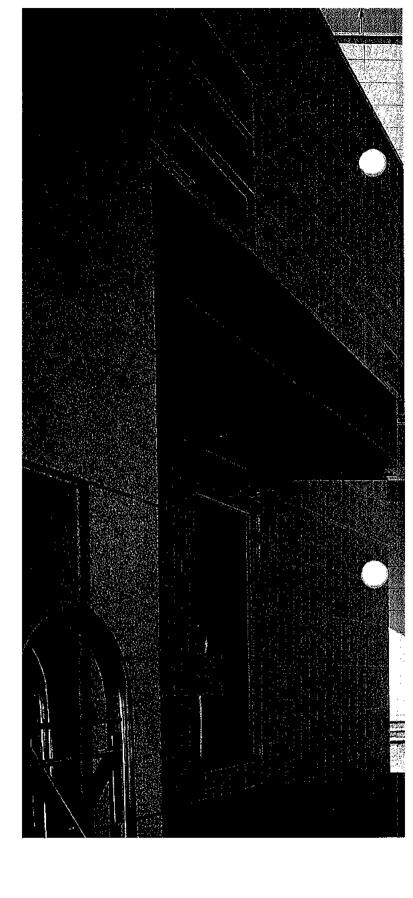
부지의 효율성과 통선 최소화를 위해 경비동 + 관리동 + 공장동을 일체시키되 각 동별 사이에 오픈(Open) 공간을 두어 평면은 분리하고 매스(Mass)는 통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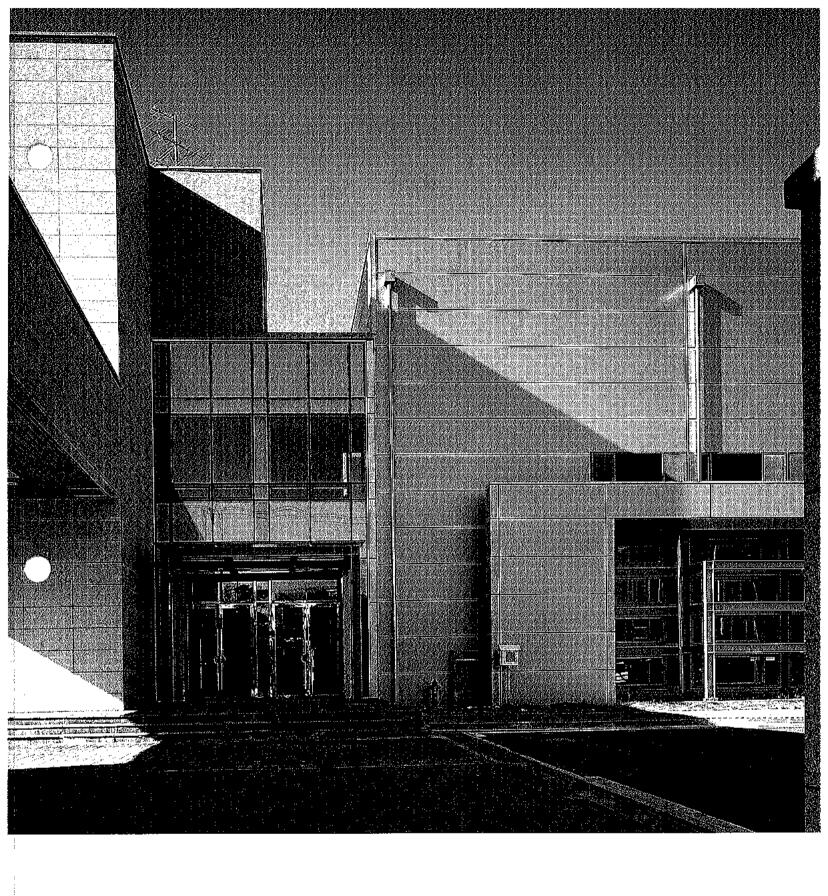
입면의 경우 길고 가벼운 동일 외장재의 연속에 따른 지루 함을 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보완하고, 일부 구조물을 노출시켜 시각적 변화를 주었다.

관리동 2층과 공장동 중층부를 동일 레벨(Level)로 연결하여 상호 유사 공간간 접근이 용이토록 단면을 계획하였다.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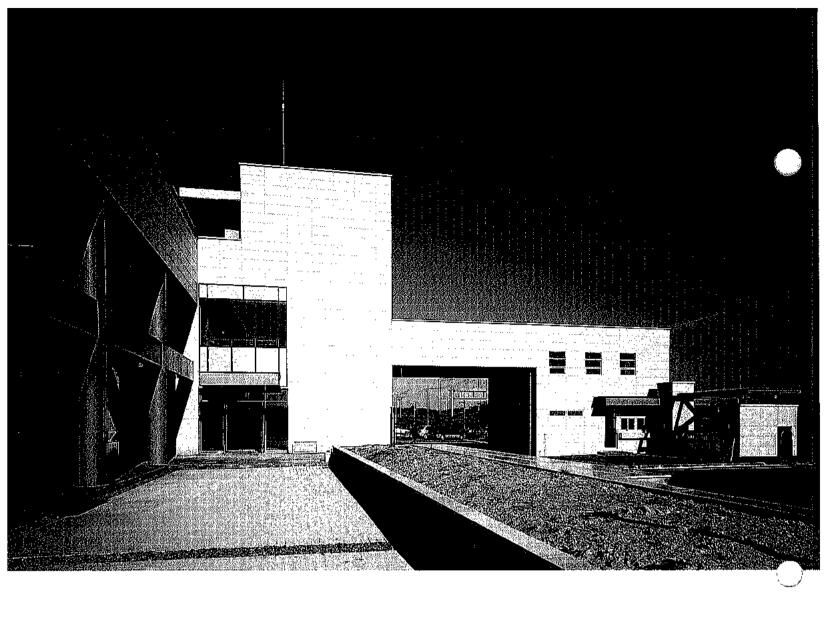
경제적 사유로 전·후면간 재료와 디자인에 차별을 둘수 밖에 없었고, 예상의 빨라진 중축일정에 따라 선근, 옥외 잔디공장 및 휴게광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지내에서 균형을 상실한 점과 준공후에도 계속되는 공사로인하여 미진한 마감부가 정리되지 못하였고, 공장내부는 현재도 플랜트관련 공사중이라 소개할 수 없는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글/현도경)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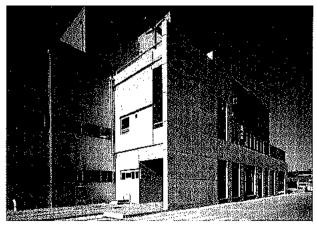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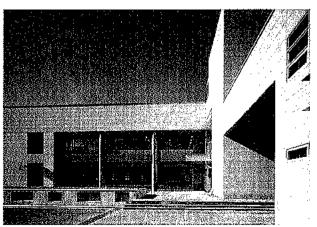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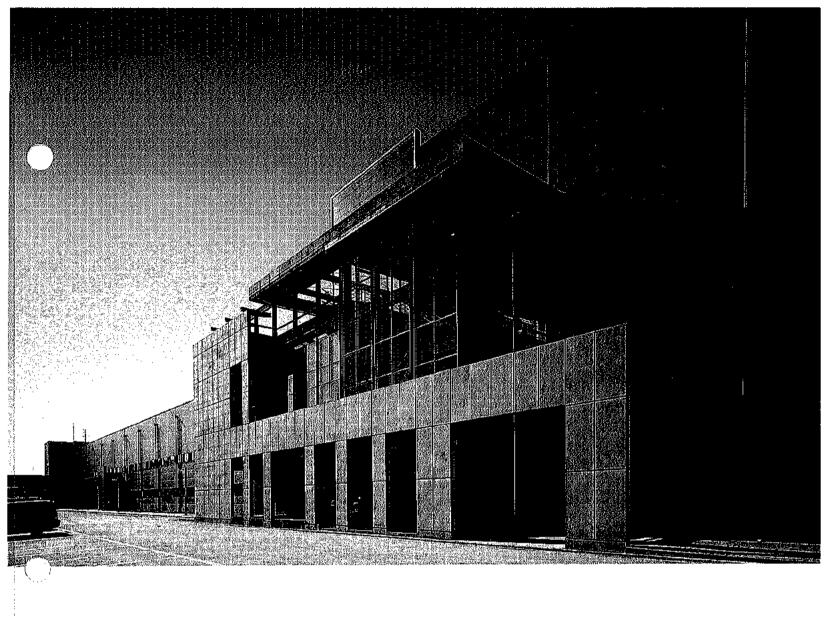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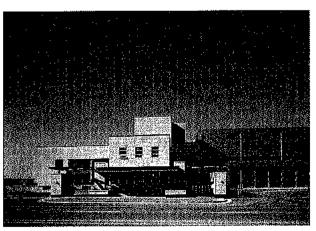
남동축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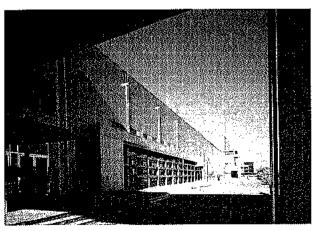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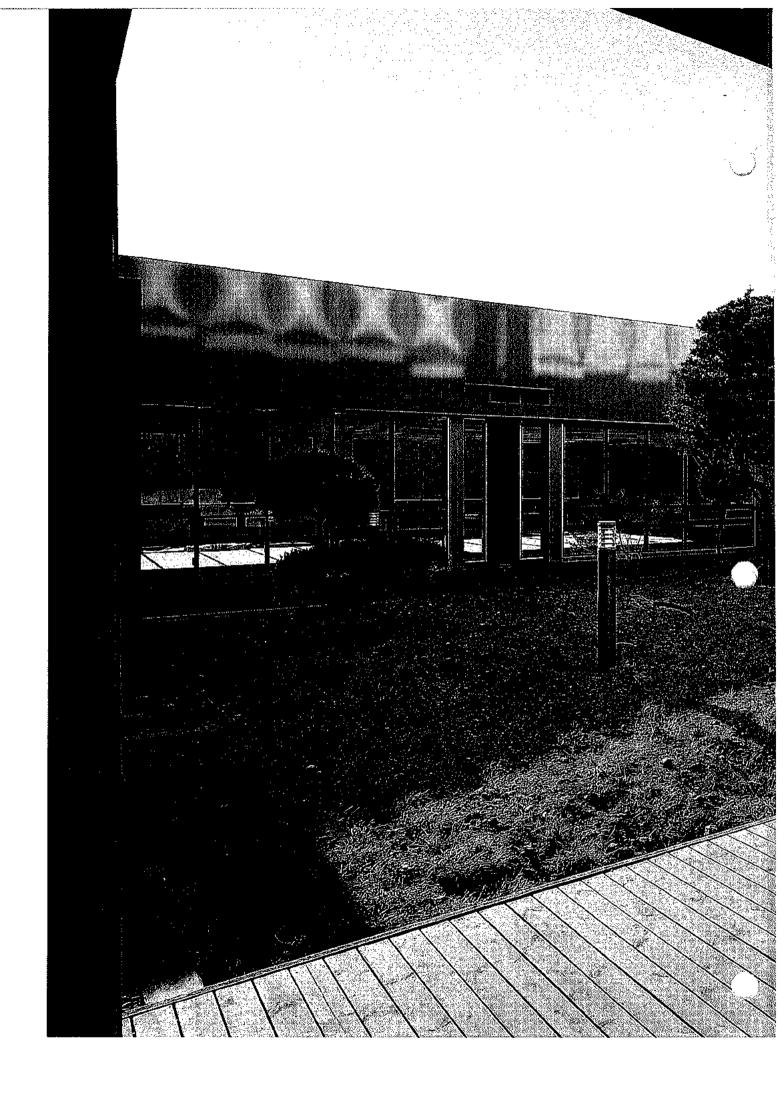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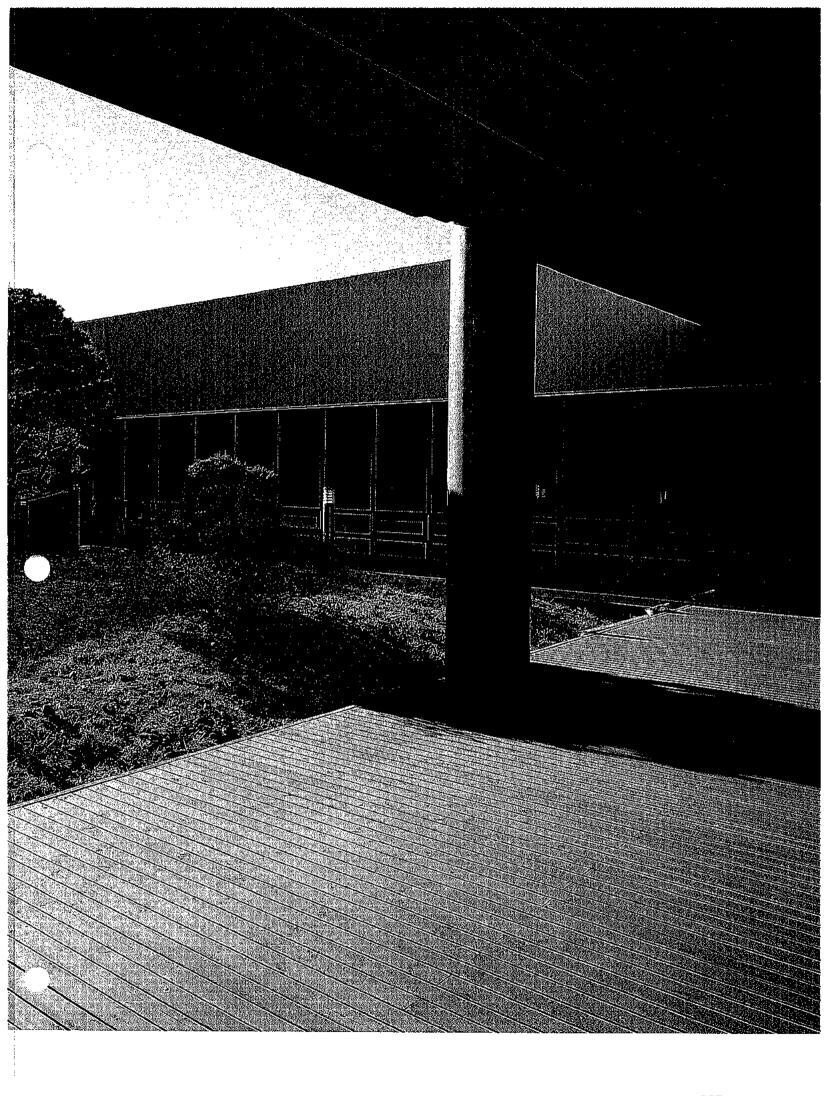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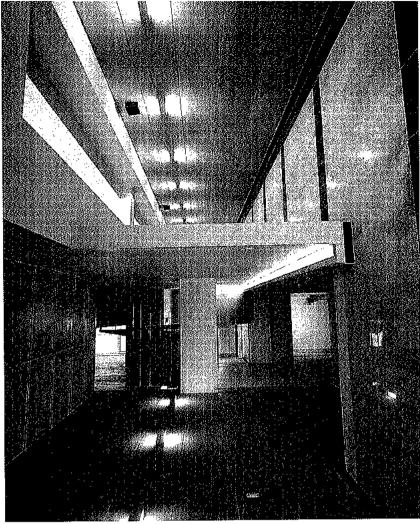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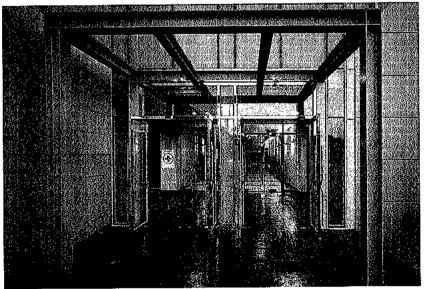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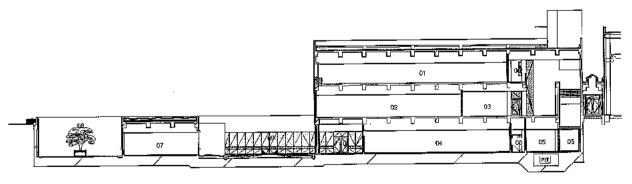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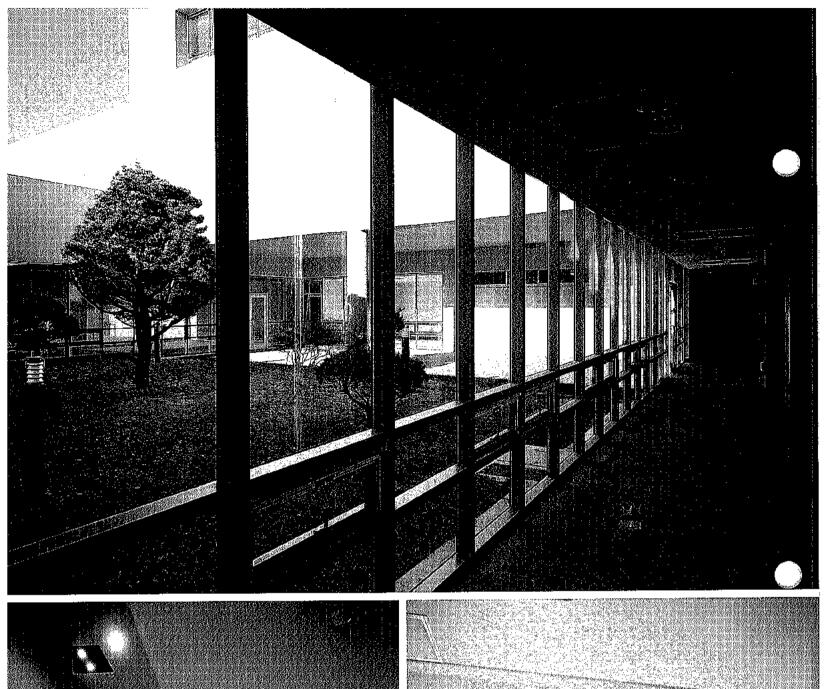


01\_ 사무설 02\_ 임사장당 03\_ 홍보전시설 04\_ 홍슈당(남) 06\_ 목도 07\_ 식당 08\_ SUNKEN 09\_ 중장 10\_ 대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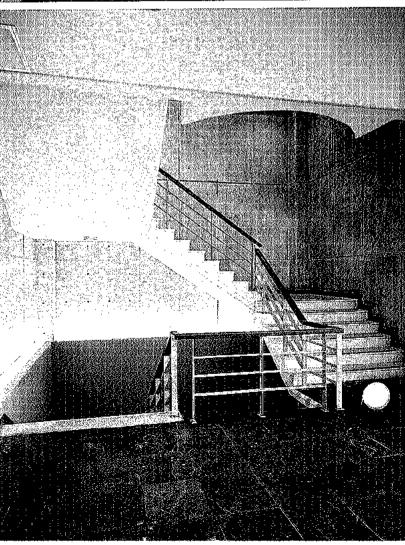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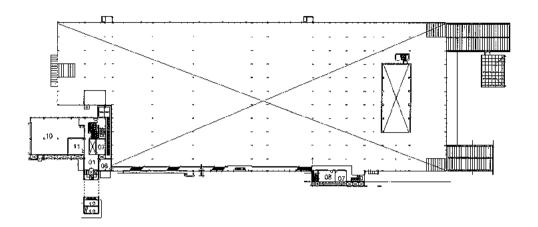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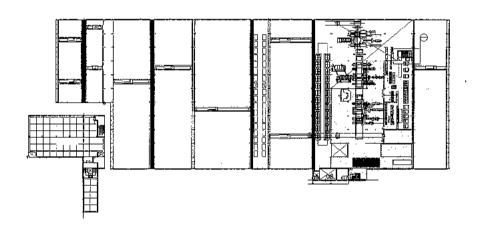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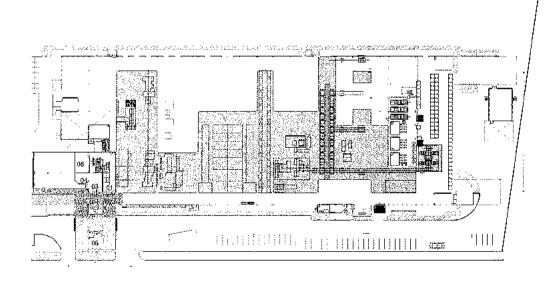


중촌 평면도(공장)



01\_ 요 02\_ 방통성 03\_ 로브 전서실 04\_ 훈브 전서실 05\_ 성함성 06\_ 강비용 07\_ 회원성 08\_ 유개성 10\_ 사장실 11\_ 사장실 12\_ 대기실 13\_ 숙작실

1층 크레인 2층 평면도(공장)



1층 평면도(공장)

•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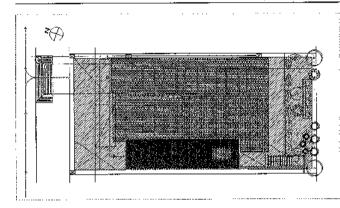
**하만준 /** (주)한조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 Man-Joon

## 한조건축사옥

Hawoo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자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7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지면적 413,30m

건축면적 241,09m

연면적 1,927,32mi

건폐율 58,33%

용적률 299,98%

규 모 지하2층,지상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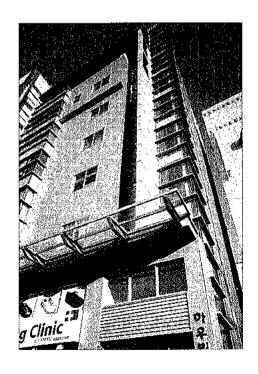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컬러<del>복충유</del>리

설계담당 성주회, 김정현, 임영택, 이권한, 김광주, 송봉기, 이현미

시 공 (주)한조에이앤씨

사 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채<del>수옥</del>)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두 옷을 갈아입는다.

도곡로변 건물들도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순 없었는지 새 옷으로 단장하느 라 여념이 없다.

70~80년대 지어진 타일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 고 있고, 그 가운데에 한조건축 사옥 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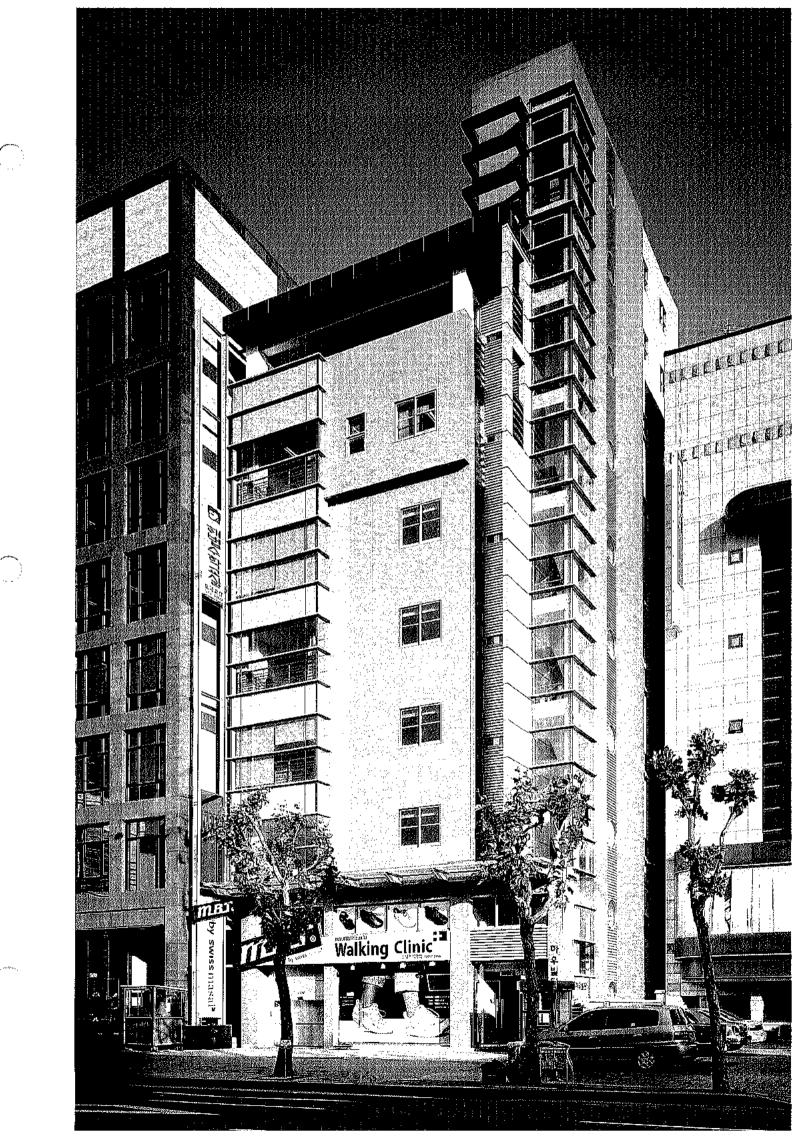
언제나 하는 건축적 고민에 더해 한정된 예산으로 건축사사무소 사옥 을 어떤 건축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라 는 명제가 계획단계부터 시공하는 내 내 나를 괴롭혔다.

비록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무사히 준공이 되었고, 구석구석 고민했던 공간들과 후레임지어 보여 지는 도시의 풍경들에 만족해하는 우리건물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조그만 보람을 느껴본다.

## 배치 및 평면계획

대로변에 접한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긴 정방형 대지라는 조건은 공간배치 및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준다. 이부분의 극복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다.

적절한 SPAN계획으로 업무공간내





무주공간화를 고려함과 동사에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 공 간분할을 통해 업무공간과 공용공간간에 자 유로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공용공간의 합리적 배치로 공간이용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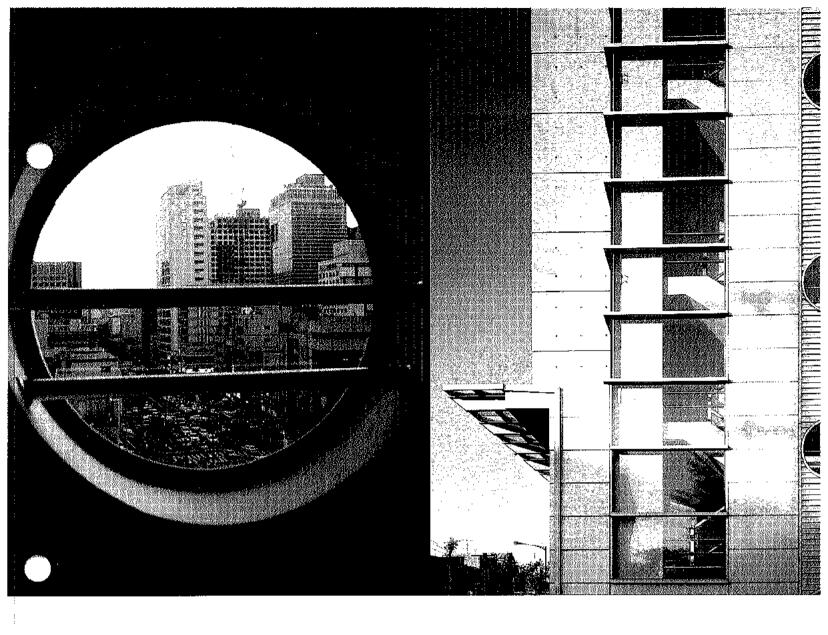
또한 보행자와 처량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면서 각각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고, 사무효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연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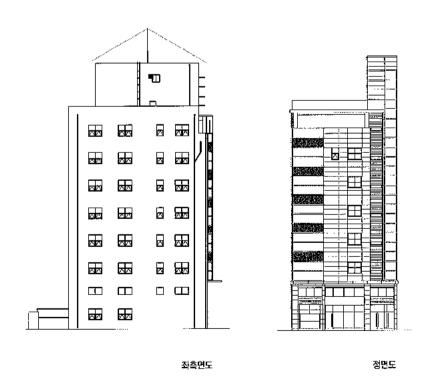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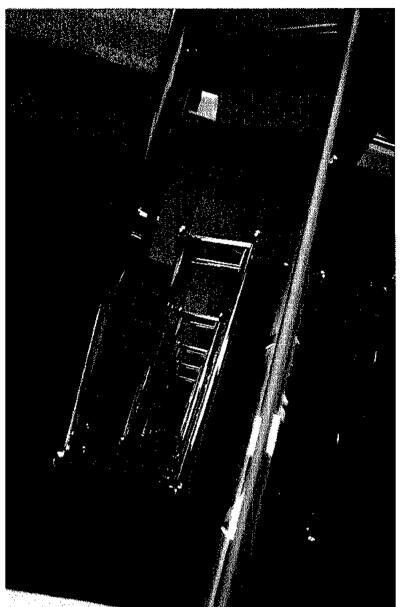
건축의 기본인 수직과 수평을 강조함으로서 대로변에서의 정면성을 유지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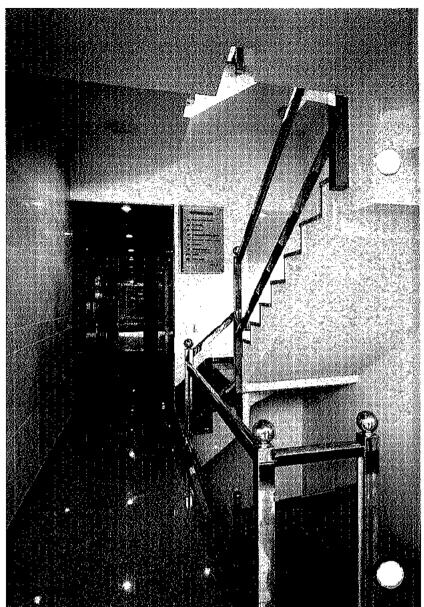
하였으며, 알루미늄패널과 골강판을 유리로 된 커튼월과 노출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분 할하고 각각의 공간 레이어가 풍부한 볼륨 감을 형성하도록 고려하였으며, 명쾌하고 단순한 매스를 SOLID와 VOID로 분절하고 이에 수직으로 곧게 뻗은 노출콘크리트판 을 끼워 넣어 시각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건물전체가 동질적인 색조를 이루나 다양한 재료로 인한 질감의 차이가 안정되면서 단조롭지 않은 입면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며, 작은 디테일의 강렬한 색조가 건물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우측면 계단실 부분의 기하학적 장식요소들은 건물의 인지성을 높임과 동시에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려하였다. 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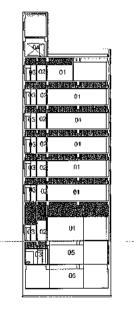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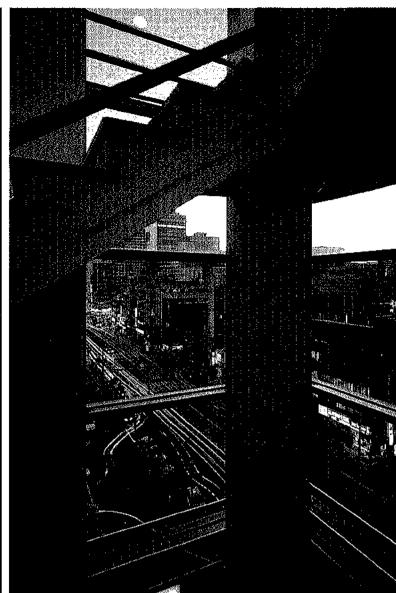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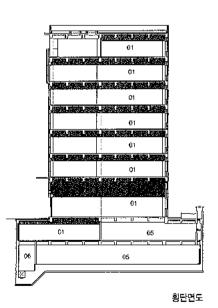
01\_ - 군립생화시설 02\_ - 부도 03\_ - 화장실 04\_ - 달랭크 05\_ - 추지정 06\_ - 펌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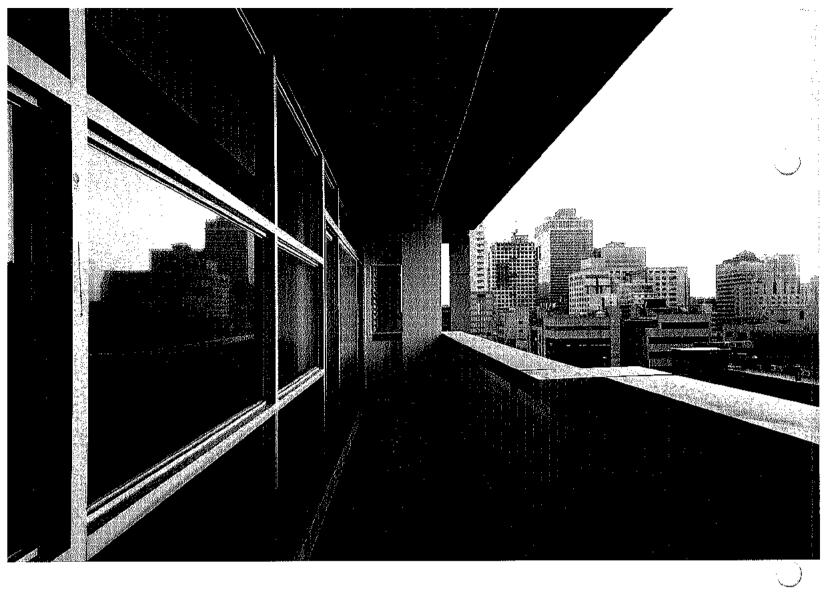
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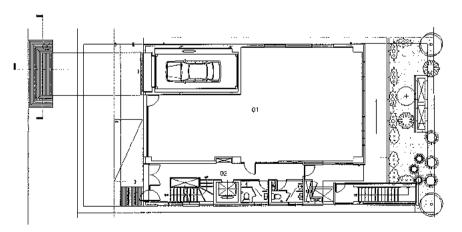
•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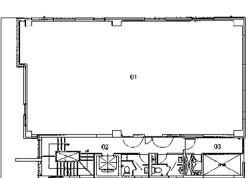


01 근건생활시설

2\_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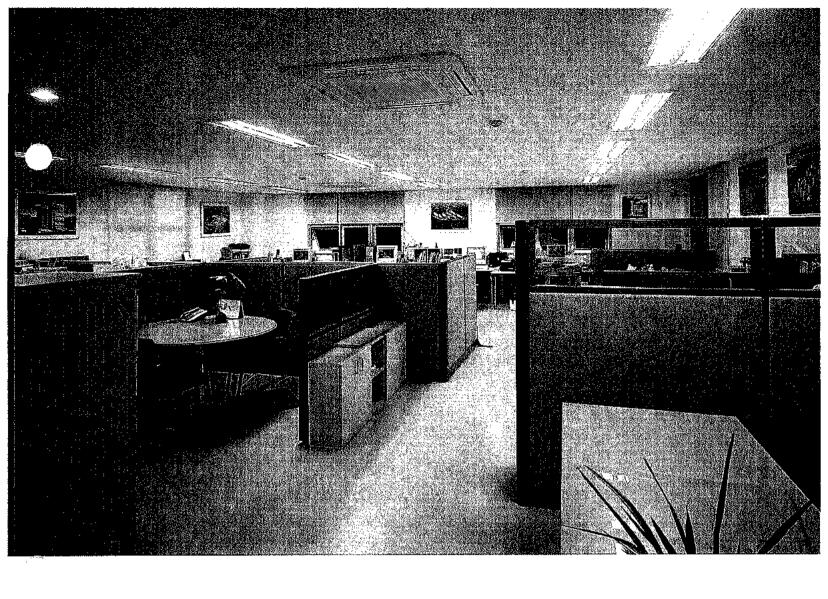
03\_ 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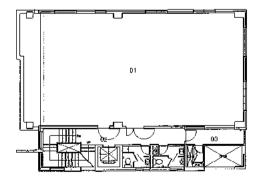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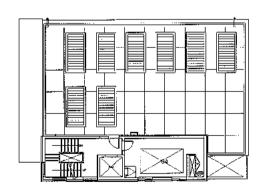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7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Wesley Chapel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4,555,60m

연면적 2,916,30m

건축면적 1,562,33m<sup>2</sup>

건 폐 율 22,79%

용적률 73,93%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조 및 <mark>철골철근콘</mark>크리트 리멘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노출콘크리트(문양거푸집)

내부마감 벽 -테리코트, 무늬목쉬트, 바닥-네오비아, 화강석 물

갈기, 천정**-**텍텀

설계담당 어윤하, 정지성, 윤민희

감 리 박종환, 어윤하

구 조 (주)트윈엔지니어링

설 비 (주)청우이엔지

전 기 (주)청우이엔지

토 목 (주)아남컨설턴트

시 공 (주)태야건설산업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박영채)

도심에 위치한 대학캠퍼스 한편에 섬처 럼 남이있던 한줌의 운행나무 숲, 그리고 그 낮은 동산 위의 작은 예배당 - 사십여 년이 된 Welch Chapel의 낡은 풍경은 퇴색한 한 폭의 명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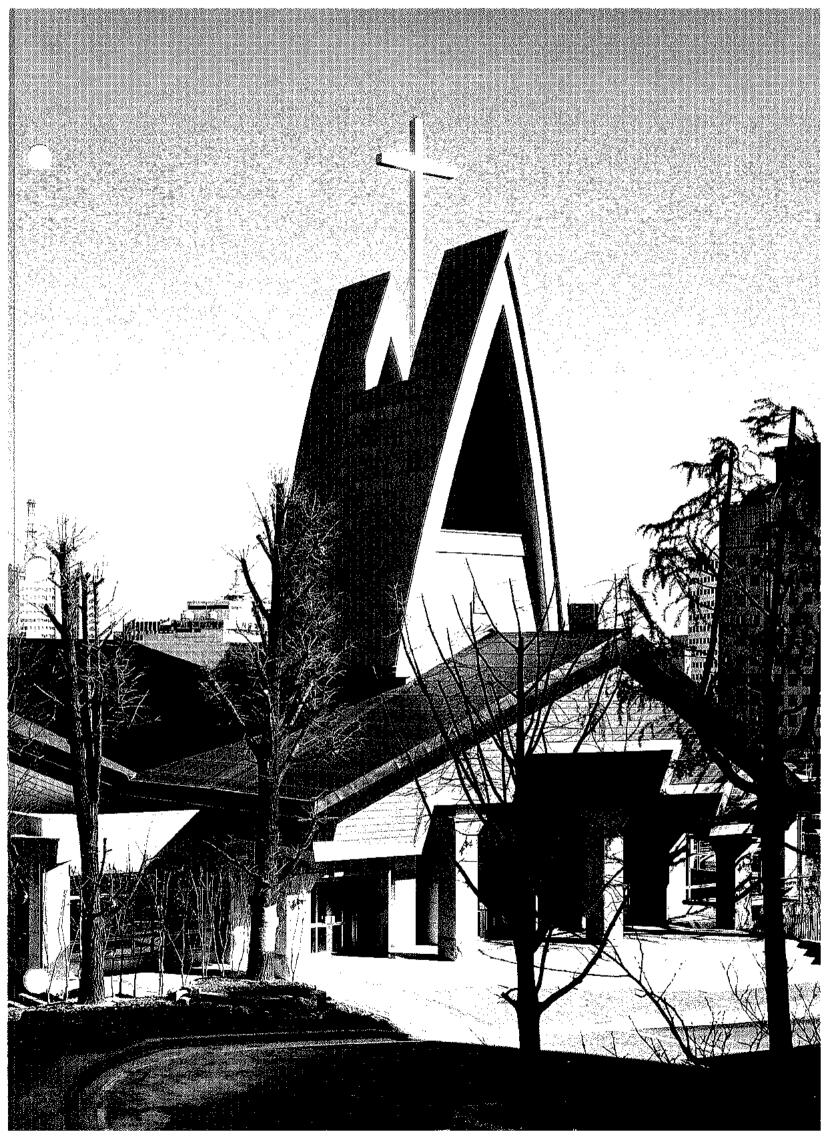
#### • 개발과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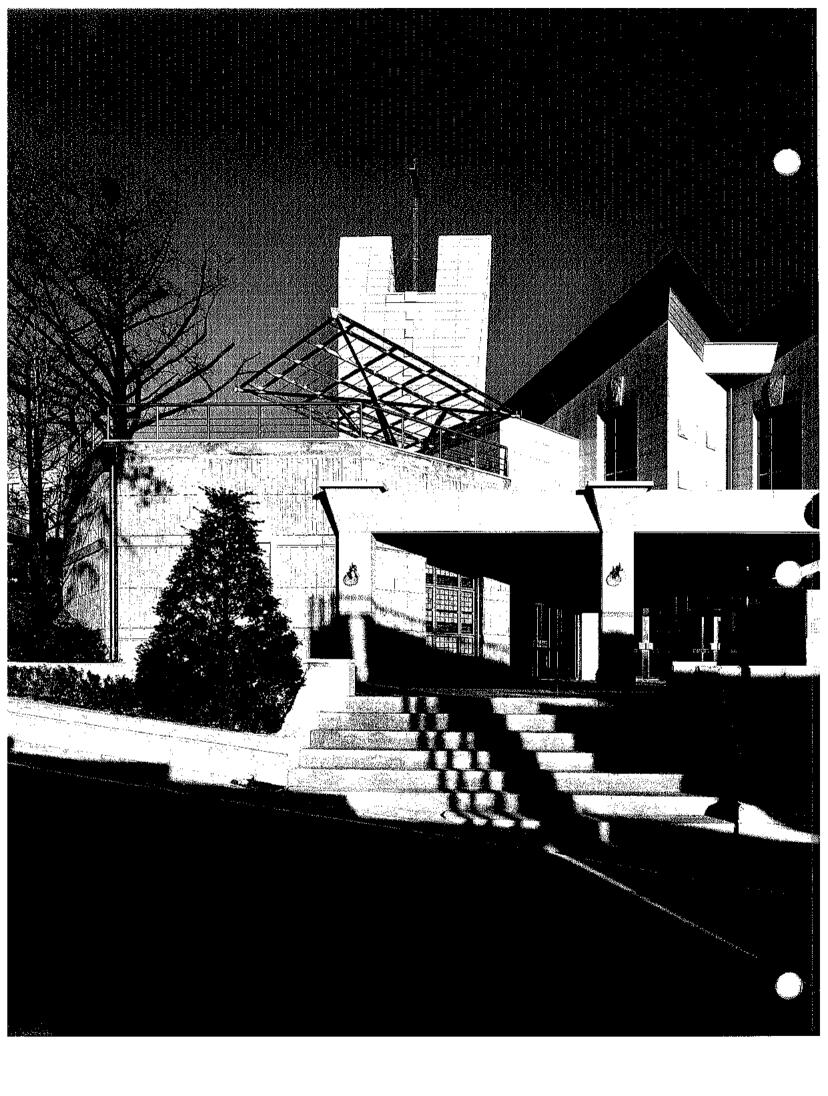
협소한 캠퍼스 여건에 날로 중가하는 건 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규모가 너 무 작고 퇴락하여 사용이 어렵던 기존의 웰 지채플 자리에 1300명 수용 규모의 신 채 풀을 계획함에 있어, 보존가치가 충분한 문 화유산을 새 건물로 대치하는 작업은, 개발 과 보존이라는 상충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해법을 구하는 막중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 며,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들어선 건물 들이 질서를 이루지 못한 채 각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캠퍼스에 체계를 부여하고 전체 master plan의 틀을 갖추는 것도 매 우 중요한 일이었다.

#### • 공간의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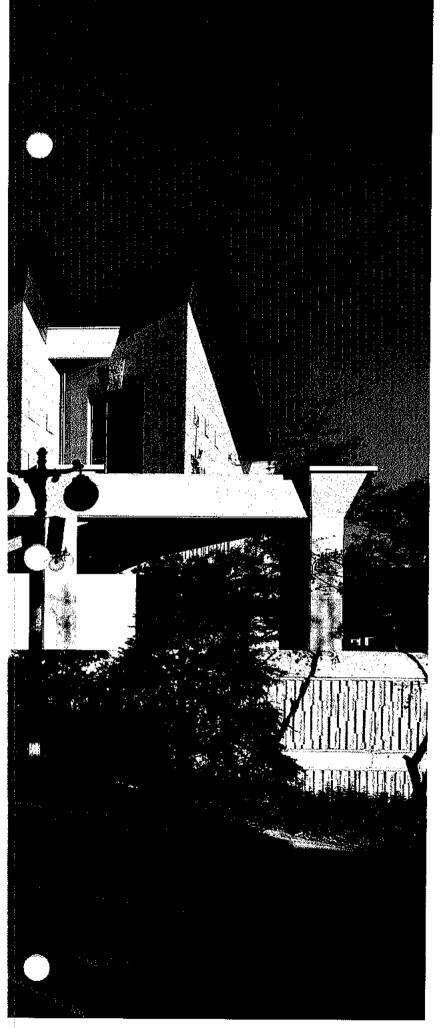
낮은 언덕에 아름답던 채플과 옛 선교사 사택, 그 사이사이 은행나무 숲 이래 벤치가 놓여있던 작은 공간들, 오랜 역사가 묻어 기 억 속의 고향처럼 아련하고 고즈넉하던 공 간성과 장소성을 재구성하여 그 이미지를 다시 구현하고저 하였다.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백주년기념관의 축에 맞추어 새 채플을 구성하고, 뒤쪽에 곧 들어설 예정인 기숙사 역시 전체적인 맥락





• D42 Korean architect june 2004



에 따라 체계 있는 배치가 가능하여 향후 대학시설 발전방향 의 기본률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전반적으로 경사진 지형의 낙차를 활용하여 각층 출입 level 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매층 이담한 앞마당을 확보하였으며, 건물의 많은 부분을 지하화 하여 사실 상의 대지 점유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건물 옥상의 deck terrace등 변화 있는 외부공간들을 획득하여, 비좁은 캠 퍼스에 휴게공간을 보충하고, 원래의 동산이 가지고 있던 이미 지와 기능을 복원하는 효과를 의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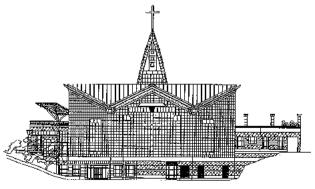
#### • 건축계획

정문을 지나 동산 위 대학본부까지의 완만한 오르막길은, 길자는 않지만 낡은 붉은 벽돌의 학보사 건물을 지나 운동 장을 끼고 우회하며 전개되는 시공간적 전환이 매우 매력적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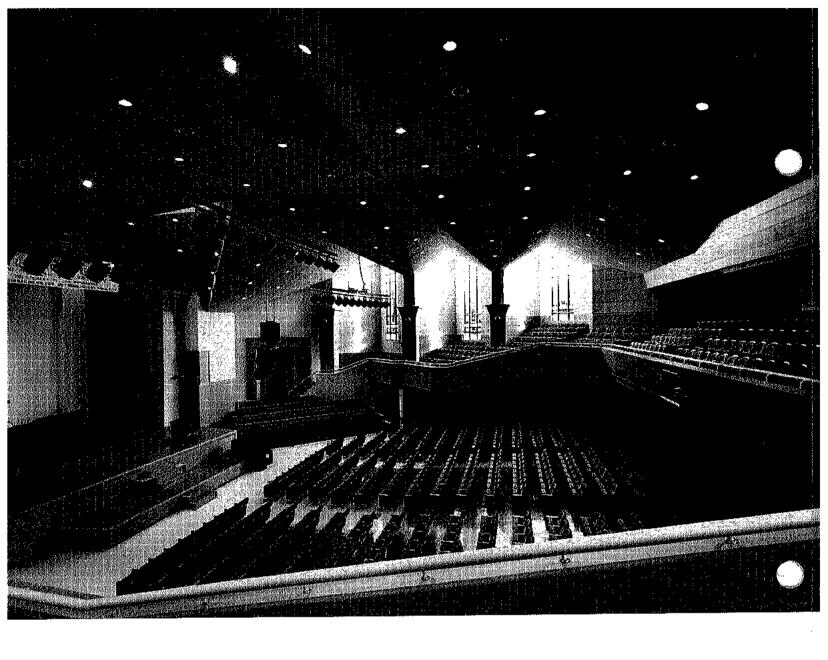
이 언덕길에 다양한 공간체계를 구축하여, 길을 따라 전개되는 복합적인 동선을 흡수시키는 동시에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며, 이울러 조형물, 기념장식품 또는 기념식수 등의 설치 장소로써 대학의 발전과 함께 역사의 흔적이 쌓여갈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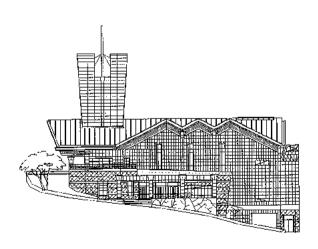
각각의 접근 level을 따라 매총 직접 출입동선을 허용하고, 부채꼴 대칭형 평면으로 접회시설로써 대량동선의 원활한 호 름을 기하였으며, 양측 외벽에 요철을 주고 그 틈새에 높은 대 형창을 설치하여 내부 채광을 의도함은 물론, 입면의 분절효과 를 얻어 외부조형에 human scale의 구현이 가능하였다.

언덕 위 예배당의 표상으로, 높은 종탑의 구심성 있는 수직 축을 설정하고, 대칭형 평면과 대칭의 입면으로 종교공간으로 써의 엄격성을 부여하고저 하였으며, 외부 각 출입구 앞의 열 주와 기둥 위의 주두 등, 채플 내부천창 및 외부창의 Stained giass와 함께 종교건축의 한 양식으로 삼고저 하였다. 閩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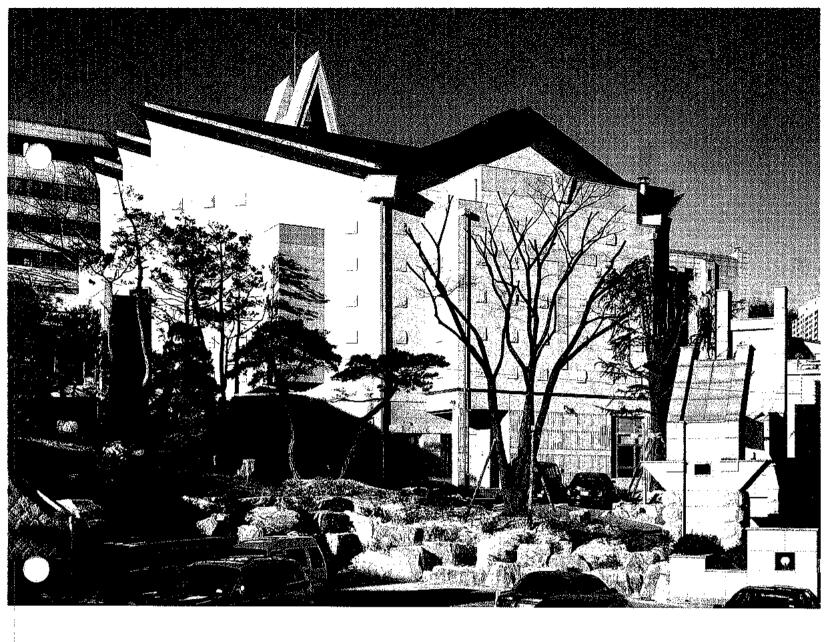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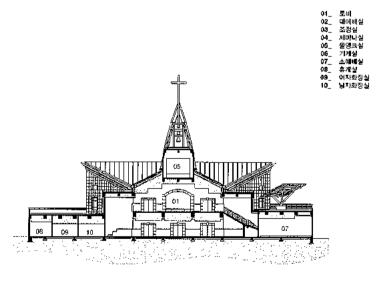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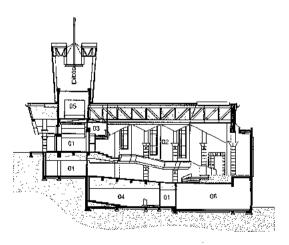
정면도

• 044 Rurean architect june 2004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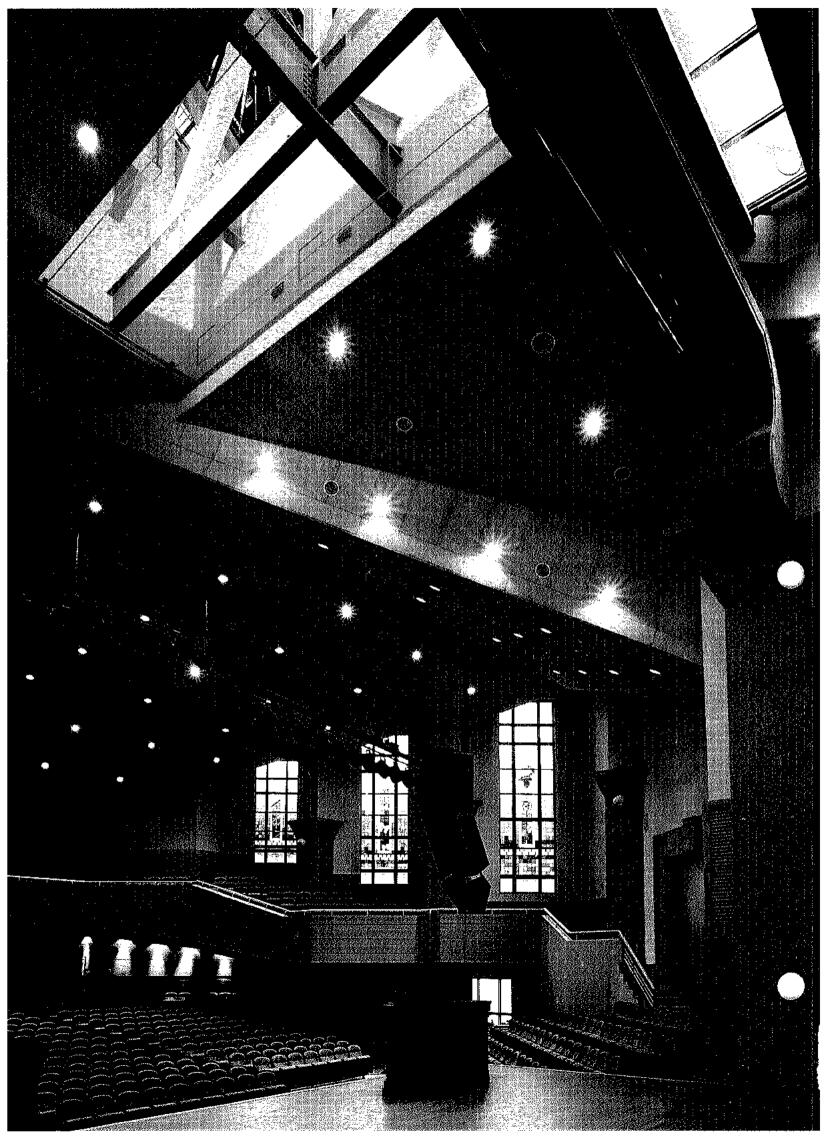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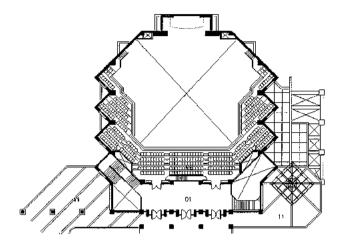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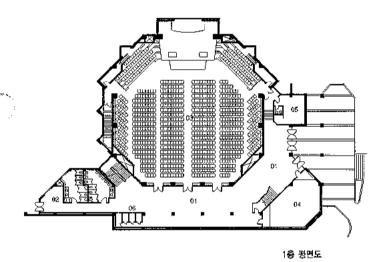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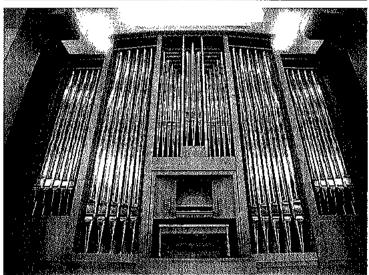
2총 평면도



0 2 4 8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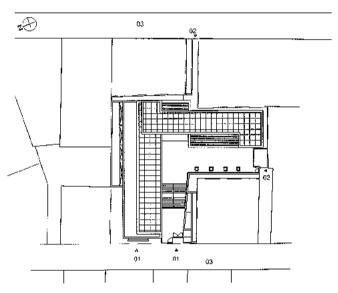
<sup>01</sup>\_ 로비 02\_ 휴재성 03\_ 대예배설 04\_ 소예배설 05\_ 사무설 06\_ 개인기도설 07\_ 세메나설 08\_ IPS성 10\_ 정의설 11\_ 옥외대라스

## 마리아의 딸 수도회 수녀원

Filles de Marie Immacule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532-8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녀원

대지면적 979.60m

연면적 1,905,98㎡

거 폐 육 48.25%

용적률 13346%

규 모 지상 4층,지하 1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분할 치장쌓기, 노출콘크리트

건 축 주 머리아의 딸수도회

시 공 사 (주)제효

설계 담당 김완덕, 이도형, 강신국, 임은정

사 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문정식)

01\_ 주출임구 02\_ 부출임구 03\_ 6M임구

이 프로젝트는 기존 수녀원의 자리에 새로운 대외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수녀원 신축을 결정하였다. 기존의 수녀원은 약 25 년전 단층의 단독주택의 내부를 일부 개조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로 주변의 단독주택 2동을 포함한 3동의 낡은 주택을 수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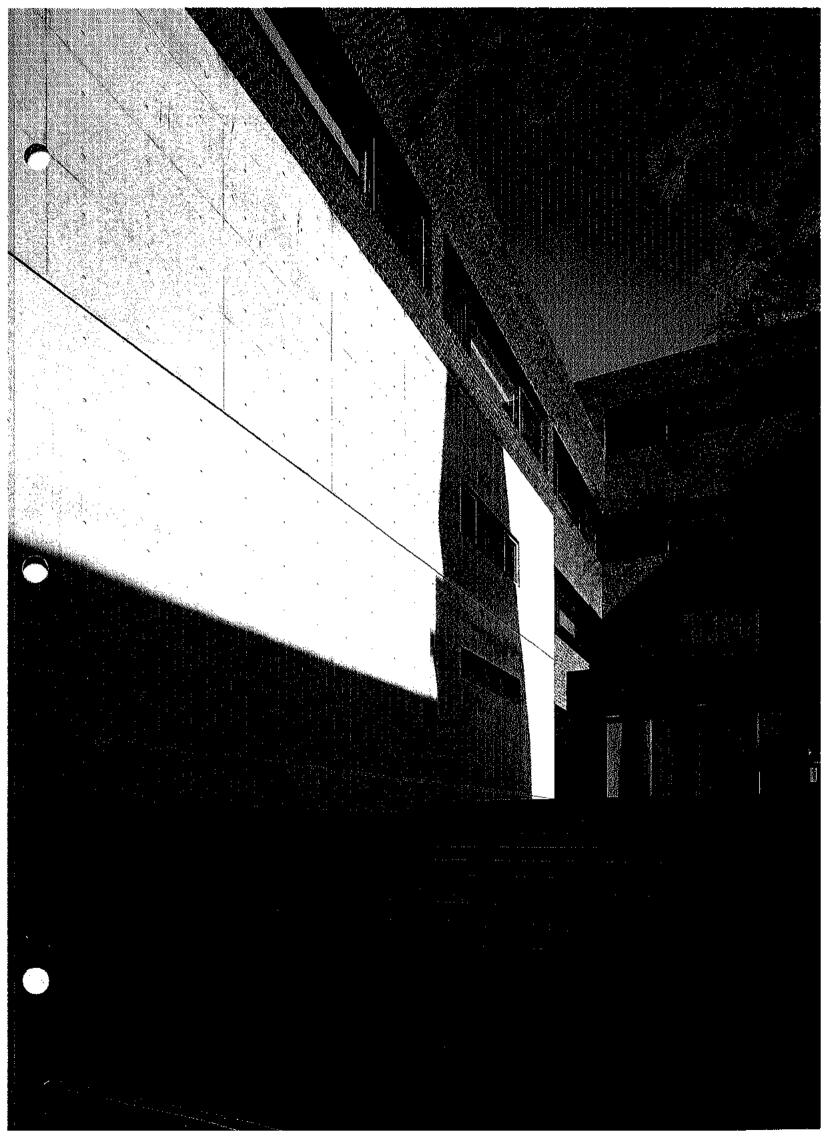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센터와 지역 본부라는 새로운 기능에 부합하는 수녀원을 고려하게된 것이다. 이 건물은 지명 설계경기를 통하여 당선되어 계획인이 결정되었으나,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초기의 계획 의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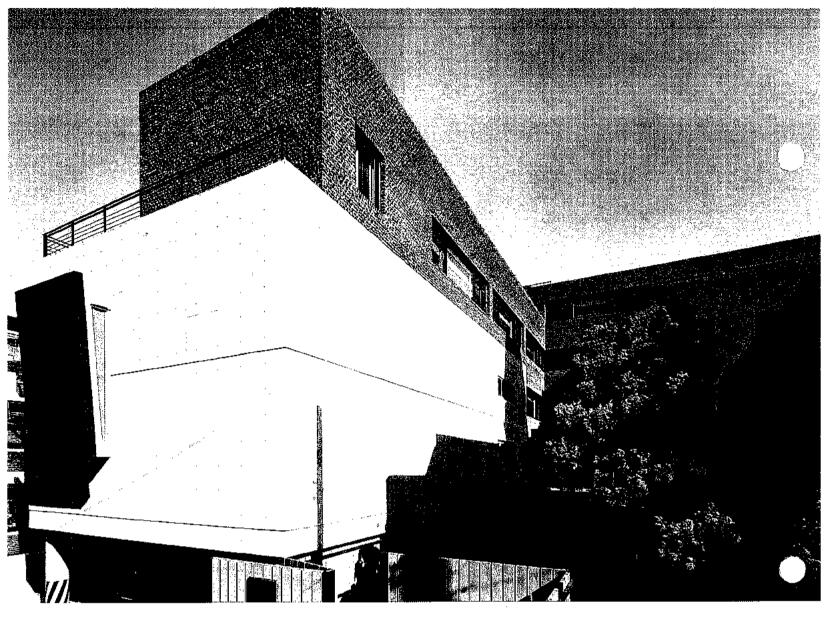
많은 부분 변경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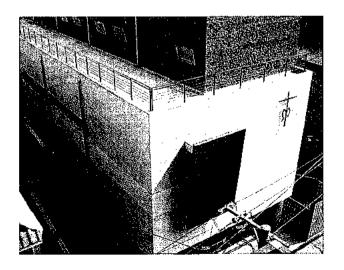
디자인 진행에서의 가장 주된 프로그램은 도심지 내의 수녀원이 가지는 성격 -지역 본부와 성당을 포함한 지역 센터로서의 기 능을 가진 public의 공간과 수녀님들의 수 도와 주거의 기능을 담는 수녀원이라는 private의 공간-을 협소한 대지 내에서 '어 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것이 었다.

4~5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둘러싸인 3개 의 필지는 필지 내에서 약 1개층의 높이 차 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대지내의 지형차이를 이용하여 주진입은 성당 매스를 따라서 형성된 외부계단을 통해 진입을 하 도록 유도하였으며, 계단의 끝에는 위요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와의 차단의 의미 를 담으려하였다. 이러한 레벨차이는 자연스 레 외부인의 이용이 가능한 사설들을 지하 층에 집중배치하게 하였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는 대지 환경과의 장 소적 조화와 수녀원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 조하기위해 건물의 외장재료를 선택하였으 며, 입면의 분절과 외장재의 변화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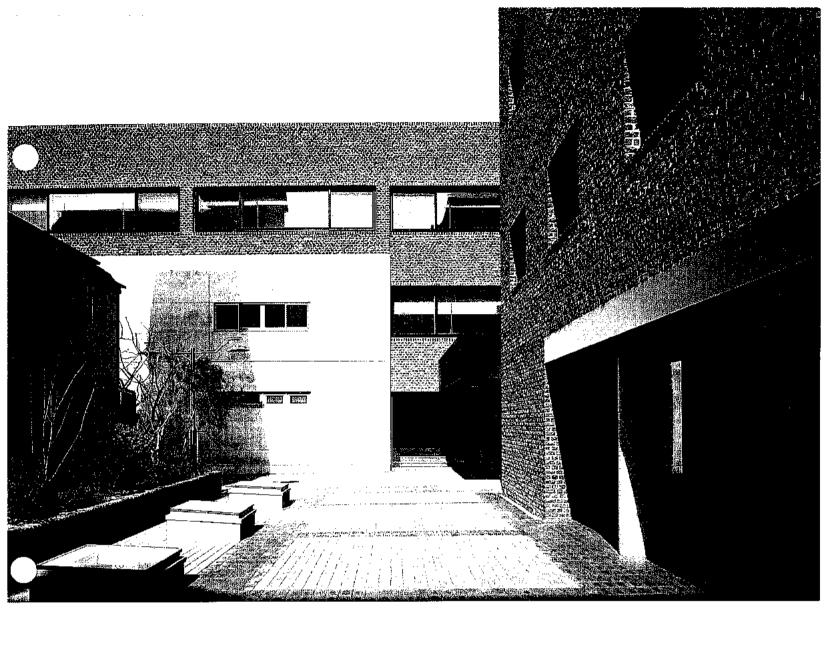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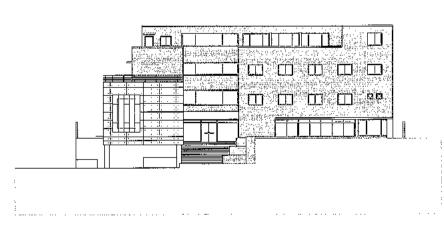


자칫하면 거대하게 느낄 수 있는 매스에 시각적 변화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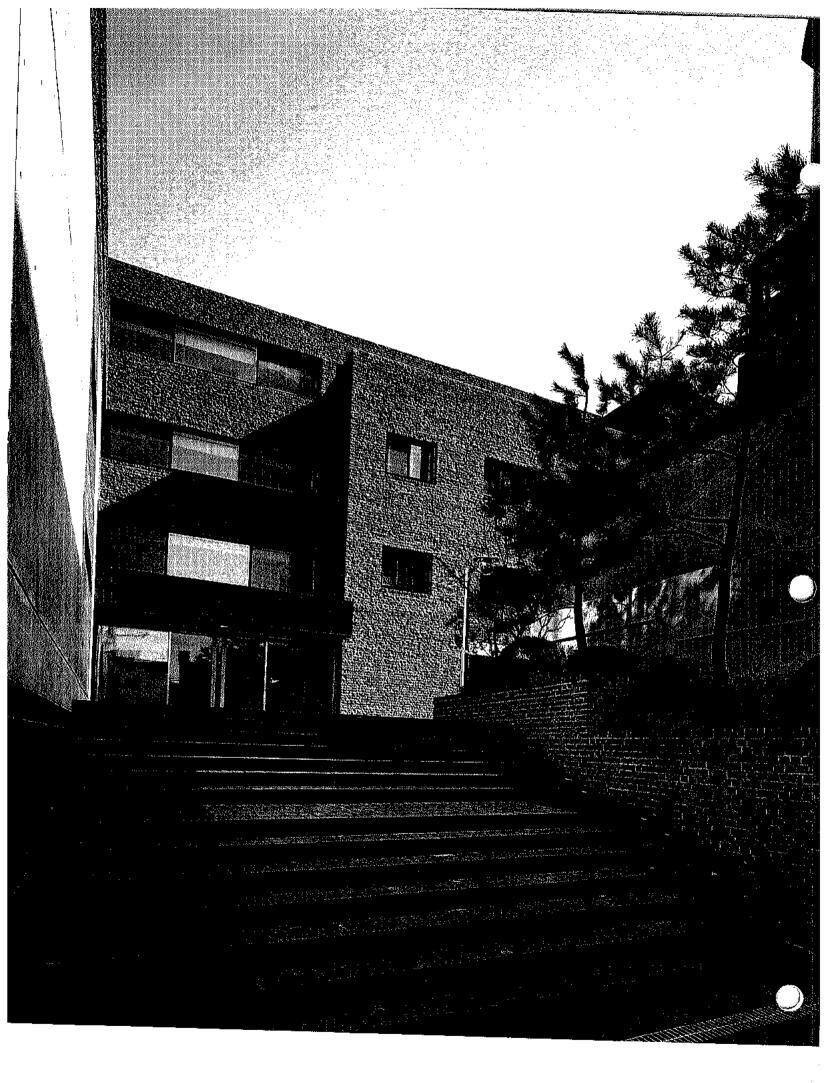
수녀원의 가장 중심적 공간인 성당은 외부로부터의 빛의 유입을 연출하여 정결함과 경외감을 부여하려 하였으며, 성당 매스와 외장 재인 노출콘크리트와 내부에서의 층고의 조절과 백색의 실내마감, 장식의 최소화를 통해 성당의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도록 하였다.

도심지내 수녀원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성격을 해결하기위한 많은 계획 의도들이 '편의'와 '경제성'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되었지만, 이 처음의 생각은 건물의 외장, 입면의 분절, 실내의 내부마감등 계획의 마지막까지의 큰 틀이 되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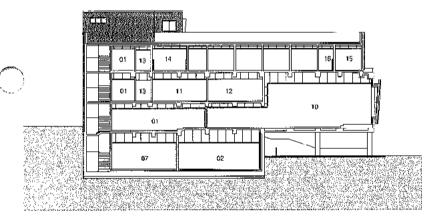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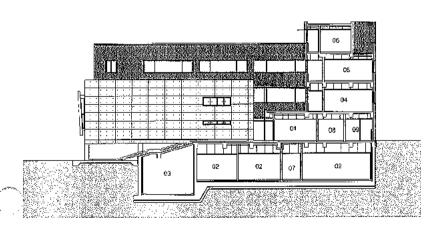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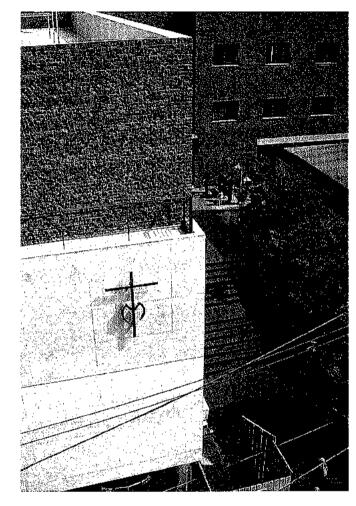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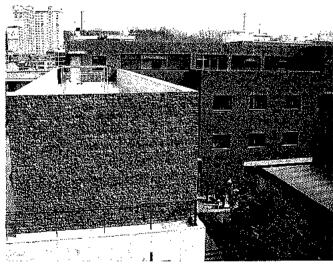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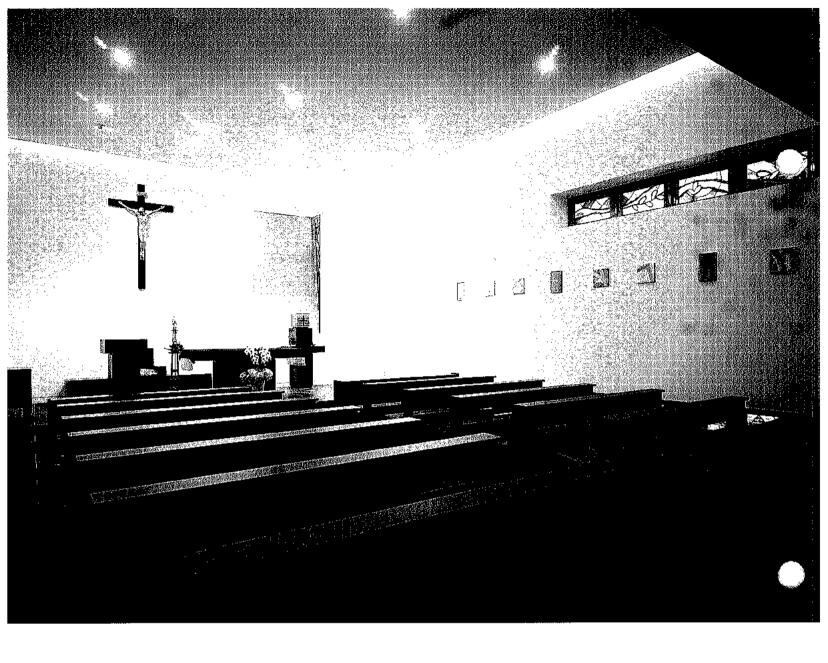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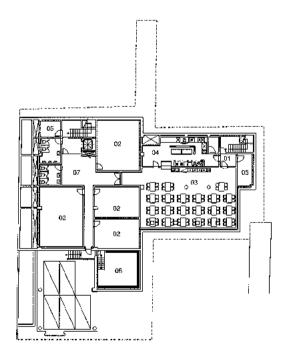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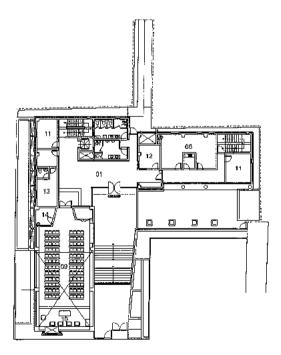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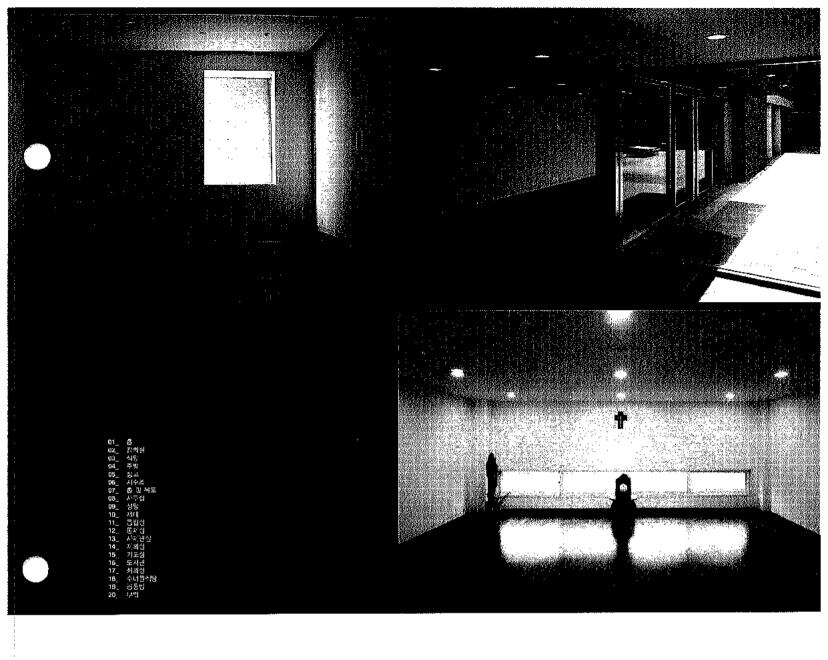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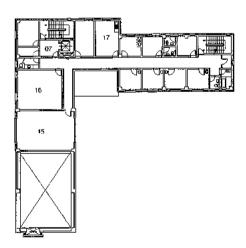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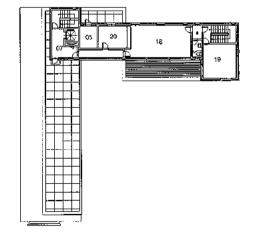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남서울대학교 성암문화체육관

Seongam Culture and Sports Complex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남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남서울대학교 캠퍼스내

용 도 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

내지면적 186,063m

건축면적 8,020,52㎡

연면적 20,025,81m

신폐율 4,311%

용적률 8,084%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150대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감 리 자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사 삼성물산(주)

사 전 건축사사무소 제공

#### 설계는 고민의 결과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설계를 해서 밥 먹고 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 난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일을 하는데 고민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설계는 대학교 때부터 유난히 밤 세우는 일이 많고 그놈의 야근은 사회에 서도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한 설계 를 하는 사람은 다 알 것 같다.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지만 건축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는 생각이 창작을 한다는 생각보다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변덕이 심한 건축주를 만나면 설계 바꾸는 일을 손바닥 뒤집는 일 보다 훨씬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계획안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잘 모르기에 건축주를 공부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 배치도

다행하도 남서울대학교 재단은 설계의 중요성을 다른 건축주보다 이해를 많이 하 시고 적극적으로 신뢰해 주셨지만 현상설계 에서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무척 힘든 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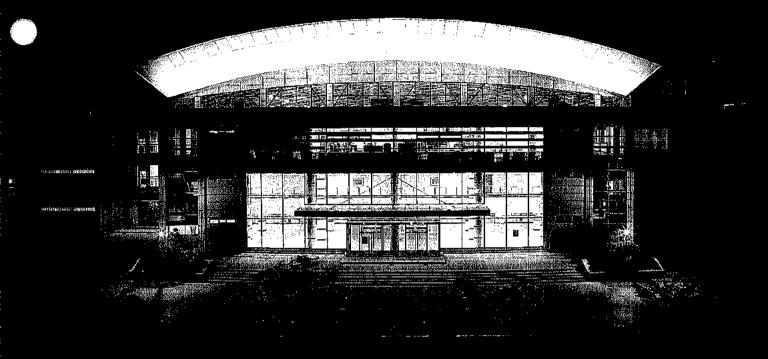
재단측은 항상 우선적으로 설계자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개교 10주년에 맞춘 준공

식에서도 시공사보다 먼저 불러서 감사패를 주시는 이사장님의 마음 씀씀이에 설계자의 업자가 조금 신장 된 것 같아 그간의 고생 과 어려움을 잊고 고마워했다.

#### 계획하기는 머리 쥐어짜기일까?

모든 설계는 어느 정도 설계자의 머리를 달달 볶은 후에 작은 영감이 스치고 지나가 는 것 같은데 20년 넘게 계획을 하고 있지 만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고, 안 되면 머리를 쥐어짜야 되니 그 고충을 건축주는 알까?

건축주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알아내어 서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



만 디자인을 할 때면 설계자는 창작이라는 이름의 버스를 타고 고생길에 들어선다고 본다.

물론 건축주 역시 신이 아니기에 설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건축주는 설계자와 같이 떠나는 창작이라는 건축여행에 즐거운 동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설계자는 계획을 만들기 전에 다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 는데 초기구상 단계에서는 생각의 자유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라는 제한요소가 능력을 벌목 잡을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직 당히 타협하기는 설계자리면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 건축주 요구조건은 정답이 없는 것 일까?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답안이 없어서 언론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모범 답안이 있지만 설계를 맡긴 건축 주는 가끔씩 답안을 바꾸기도 하는데 설계 지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목국히 받아드릴수밖에 없다고 보고, 따질 수도 없으니 속상해도 도를 닦는 기분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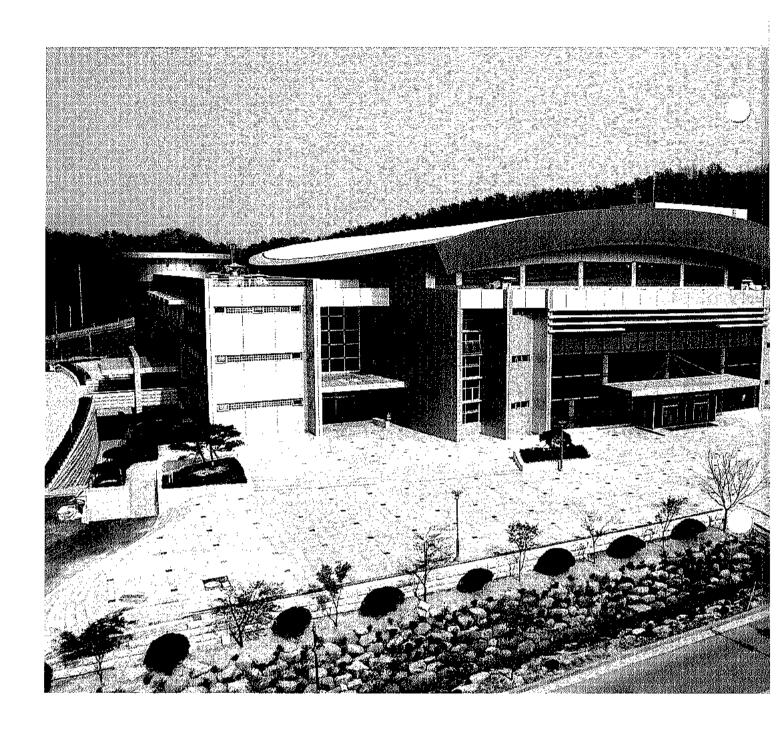
남 서울 대학교의 설계 요구조건은 현상 설계 지침부터 분명했으나 설계협의 과정에 서 부분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남서울 대학교의 체육판은 대규모 행사 집행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하다. 설계를 하면서 학교 측 재단 보다 체육학과 교수님들, 건축학과 교수님 들, 지역 주민들과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혐의가 있었다.

#### 계획은 통찰력이고 설계는 변변력 일까?

혹시 하느님이 설계를 하신다면 한번에 하실 것 같지만 모든 설계가 한번에 완성 되는 경우가 없기에 설계자는 매일 바쁘고 박박 기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주도 모형과 조감되를 보고



한번에 OK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초기 계획안과 마지막 설계도면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발전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계자도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

설계리는 일은 여러 차례 계획을 개선하고, 많은 대안 비교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변경 요구조건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여러 차례 설계 보고를

통해서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수용해 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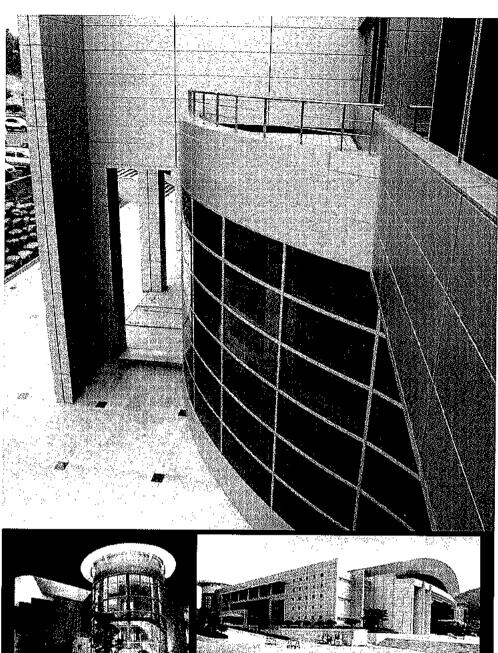
#### 누가 컴퓨터가 도면 그린다고 할까?

대학 다릴 때 교수님 말씀이 설계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하셨는데 설계를 오래 하다보니 설계를 하는 일은 생각 같이 그리 멋있지도 않고 지휘자같이 막강하지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설계자가 고집을 피우면 건축주가 편하지 않고, 건축주 편하게 설계자가 쉽게 자주 YES 하다보면 설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때가 많은데, 결정권은 항상 비전문가에게 주어지므로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설득할때가 가장 함이 드는 것 같다.

도면을 아무리 잘 그리고 잘 표현한다 해 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입체물인 건축은 준공이 되서야 나타나게 되고 상세도에서





고민이 덜 된 결과는 여지없이 엉성한 마무리가 되고, 억지스런 디테일은 당연히 어색한 모양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문가라는 설계자도 가끔씩 후회 할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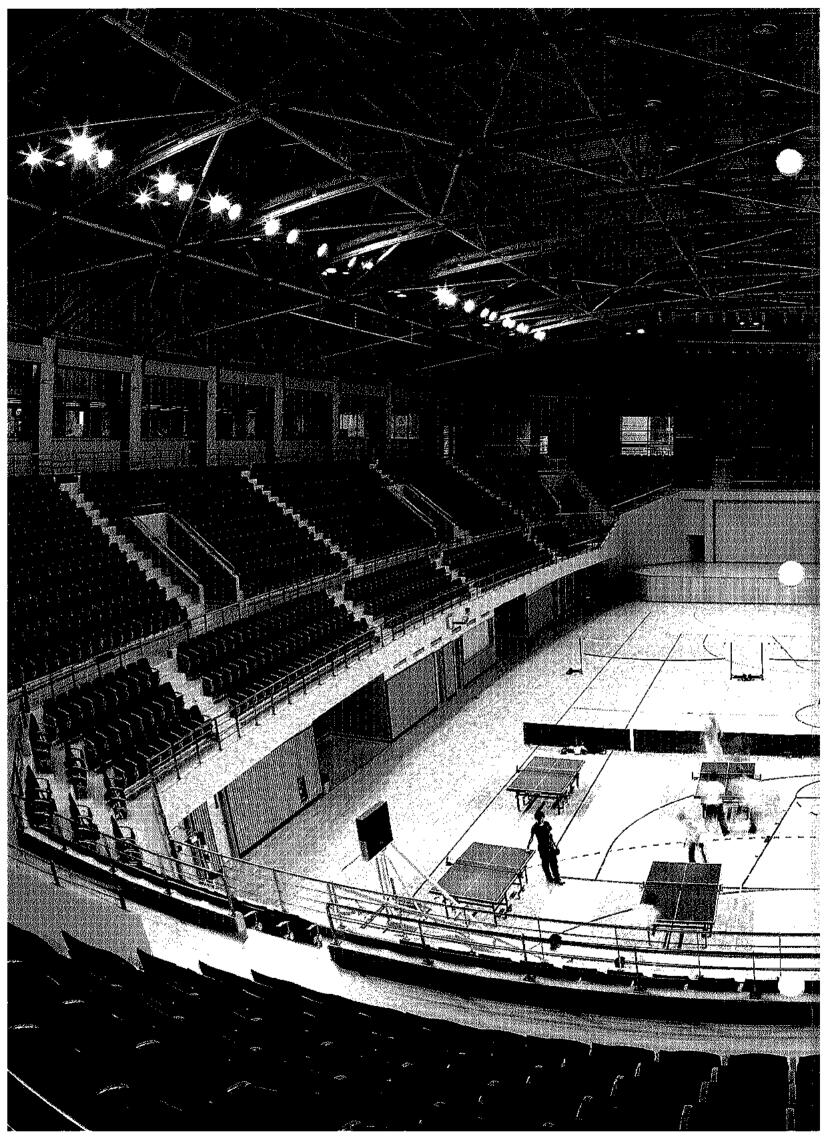
#### 집을 짓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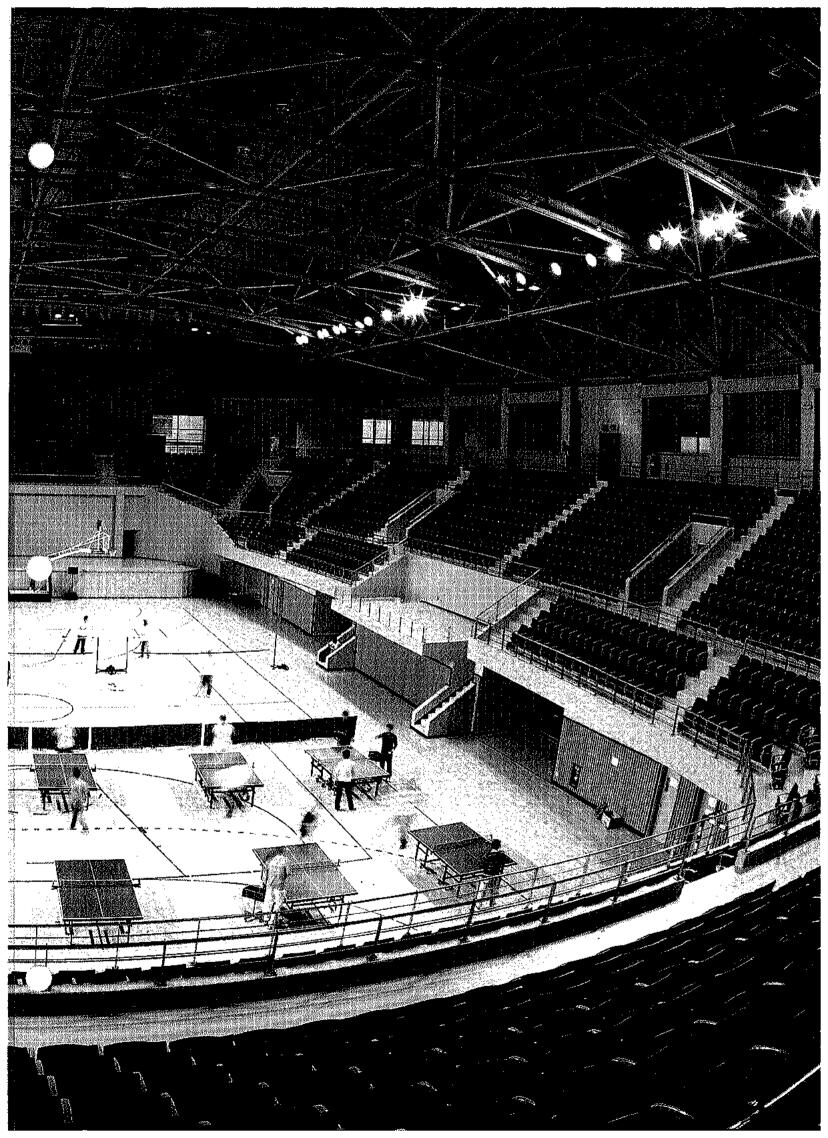
오죽하면 자기가 사는 집 한번 자면 흰머리가 난다고 하는데 집을 지어본 사람은 이

고충을 잘 알 것 같다.

더구나 각자 목적이 다른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시공자가 사각의 링에 올라가 싸우 고 우기다보면 결국 힘이 강한 건축주가 이 기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설계자가 적당 히 자존심을 양보한 것 이거나, 아니면 시공 사가 조금 손해를 감수 하였거나, 그것도 아 니면 감리자가 보기에 기술적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결과일 것으로 본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 설계의 마비점이 잘 발견되어 수정이 쉽다고 하지만 다른 각 도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상하게도 도면을 그린 사람은 도면에 푹 빠져서 잘못된 곳이 보이지 않지만, 도면 을 검토 검증하는 상급자는 틀린 곳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설계자의 눈에는 바람직하 다고 해도 감리자의 눈에는 개선해야 할 부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집 짓고 즐겁기만 한 건축사가 있을까?

건축이라는 명제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 자가 모여서 고민하고 땀 흘려야 건축물이 완성 되는데, 그 결과는 물론 모두 만족할 수 없고 사용자 역시 고생한 사람과 관계없 이 불편함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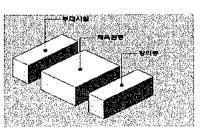
세상에 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실제의 볼륨 크기를 상상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건축가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알맞은 크기와 높이의 비례감도 예상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에 준공 때가되면 이래저래 설계자는 설레고 때로는 후회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많이 한 설계자는 분명 다음에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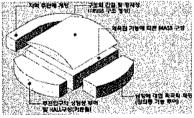
#### 본다.

그런 면에서 남서울대학교는 설계자 눈에 보이기에도 미흡함이 일부 있지만 건축공간 의 위계 부여 및 기능의 통합 및 분리 개념 적용측면에서 고만이 많이 있었고, 특히 대 학교 체육시설로서 사용의 편라성 문제가 중 요했다고 생각한다(글/최재인)圖

#### 공간계획 및 기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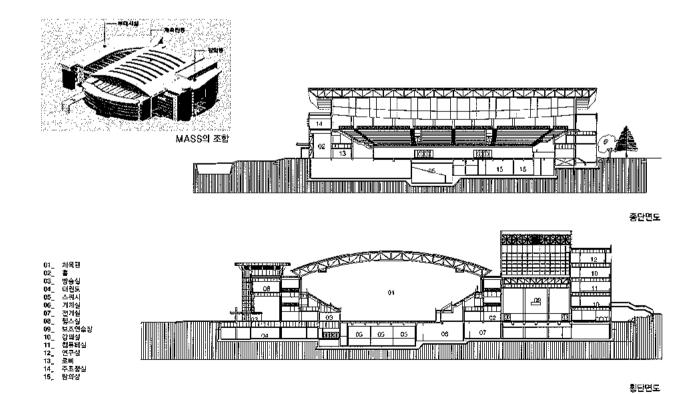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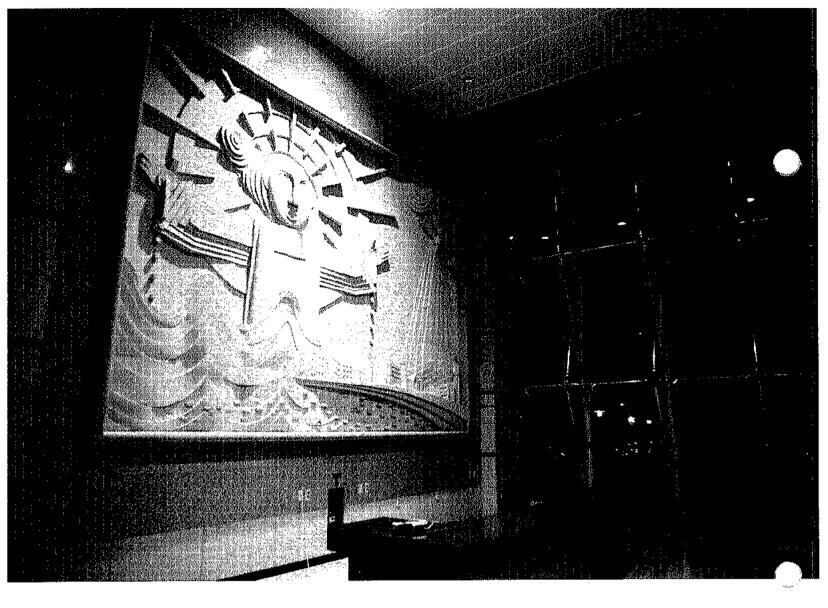
MASS의 기능적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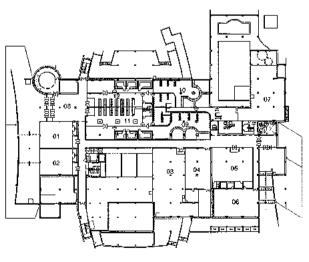
MASS의 기능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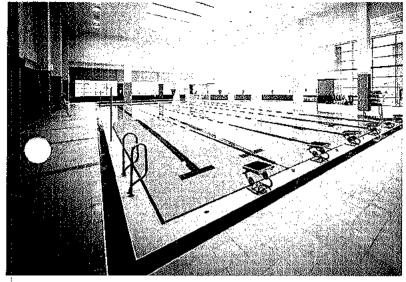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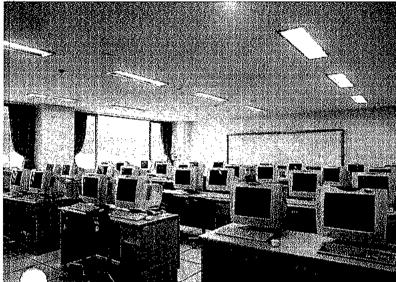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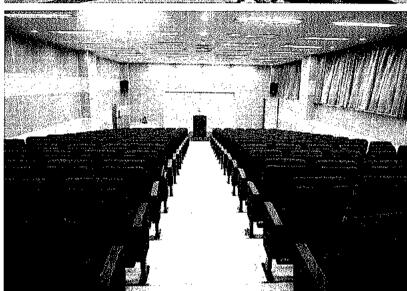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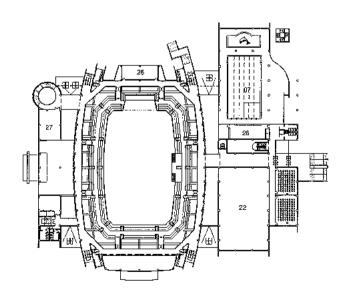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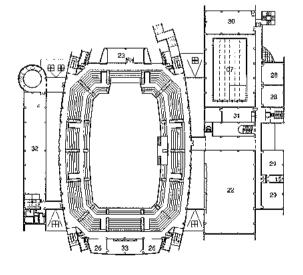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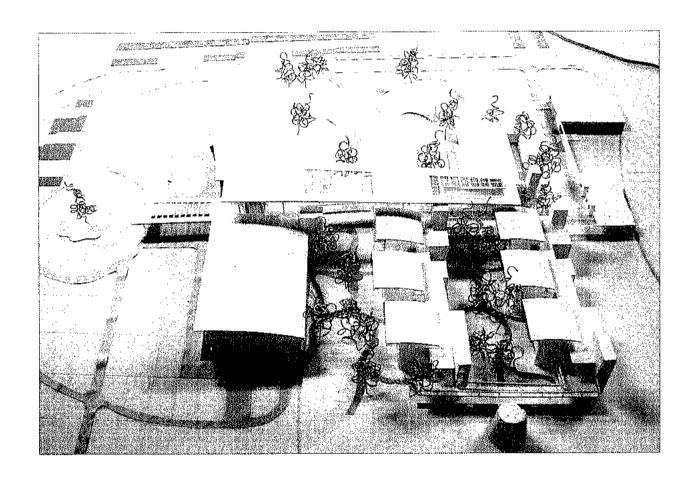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3총 평면도

# 청주 독립형 Hospice Independent Hospice, Chu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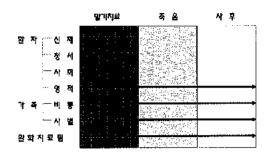
#### 프롬로그

2001년 어느날 모 교수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름이 아니라 청주에 있는 말기암 환자 시설이 있는데 돈도 없고 환경 또 한 너무 열악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수녀원을 저렴하게 임 대받아 개조 후 사용하다가 자금 여력이 되면 신축하려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개조에 무료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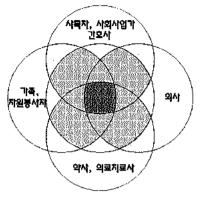
필저는 그 분이 한 10여년 이상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내심 존 경하는 터라 서슴없이 그러겠다는 약속을 하고 수녀원 개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후 말기 환자를 위한 Hospice 시설에 대한 Study 와 본 Project를 접하게 된다.

#### Hospice 정의

호스피스(Hospice) 란 라틴어의 어원인 'Hospitium' (손님접대) 이라는 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또한 영어의 "Hospital'을 'Hospitel' 이나 'Hotel' 과 같이 오래된 프랑스어의 'Hospitale' 에서 유래된 것 이며, 주인과 손님이 서로 돌보고 손님에게 편안한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 로 돌보는 행위로서 근래에 들어 말기 환자에 대한 진료, 즉 호스피



스는 의료 분야에서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램 2. 호스피스 팀)

#### 호스피스 (Hospice) 의 대상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지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대상은

- 입원당시 의식이 뚜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 동통완화 및 증상조절을 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을 시행했으나 더 이상의 의료적 치 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 주치의나 호스피스 담당의사가 호스피스 진료를 의뢰한 환자
- 임종 (<del>죽음</del>)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환자
- 환자가족 또는 그 친지가 대상이 된다.

#### 호스피스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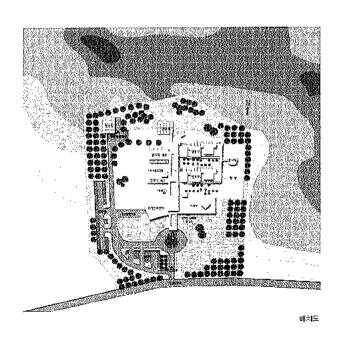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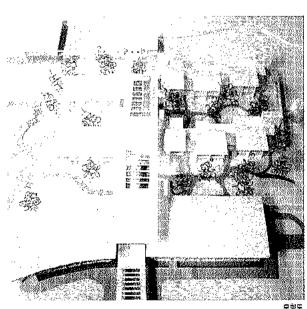
을 갖고 있으며, 말기환자의 전면적 간호를 위하여 상호 전문적 팀이 호스피스 팀으로 구성된다.

#### 호스피스와 일반병통과의 비교

호스피스 (Hospice) 와 일반병동을 비교해보면 호스피스는 고통 조절기관이며, 일반병동은 치료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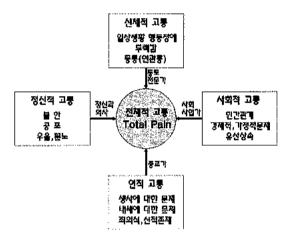
	Hooping	일반병동
	Hospice	=1.00
개념	고통조절기관	치료기관
<del>목</del> 적	중상완화	생명연장
대상	말기환자와 그 가족	흰자
간호형태	의사소통과 말기환자에	말기 <b>환</b> 자들은
	대한 지지를 강조	간호대상에서 흔히 소외됨





#### 많기 환자의 생활특성

말기환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도가 높으나 체력의 저 하, 마비 및 신체기능의 저하로 신체적 운동 장애와 함께 비교적 일 상생활 동작이 제한되며, 또한 정서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감 정을 내포하고 있어 행동으로 표출되므로 일상생활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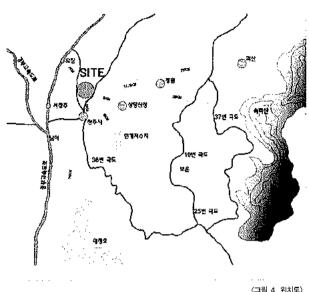


(교립 3. 알기환자의 생활 특성)

#### 청주 Hospice 건축계획

#### • 주변현황 및 입지 조건

본 계획 태지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9-8번지 주변으로서 속다.



(그림 4, 위치도)

산 문장대 북서쪽에 자리하며 주변 지역은 상당산성과 한계저주지. 명암약수, 청주 박물관등의 반경 6Km 내에 있고 청주시내에서 교통 거리 4Km지점에 위치해 있다.

####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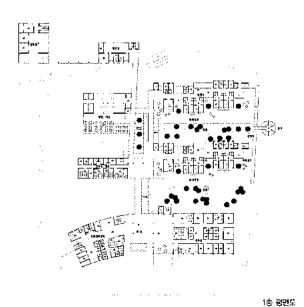
대지워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9-8번지의 5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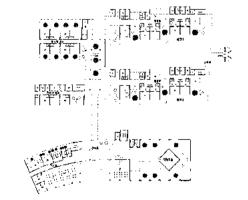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자면적: 24,900mm

건축면적: 7.64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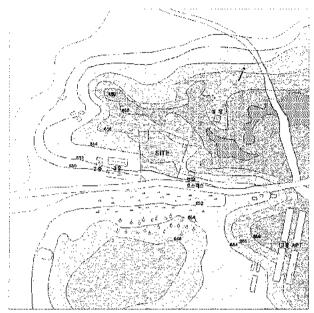
연면적: 16,085,46m²





2층 평면도

068



(그림 5. 싸이트)

용적율: 50,32% 계획총괄: 이창훈 계획담당: 어인준 계획참여: 김병기, 육현일, 이내은, 한미숙, 정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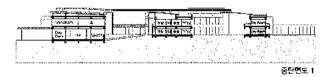
####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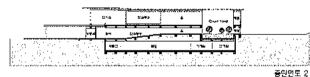
말기환자를 위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은 일반인의 시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체력이나 심신이 극히 약한 환자를 위한 시설로 무장애공간은 물론이고 말기환자가 죽음을 자연스런 삶의 한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계획에 목표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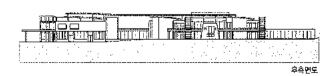
- 호스피스 시설 내에서 환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공간을 계획한다.
-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지형 및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순
   응하는 공간을 계획한다.
- 말기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원적 환경과 사색적 환경을 제공 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 말기 환자의 고독감, 소외감, 거주성을 고려한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말기 환자의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여 환자의 생활 패턴을 수용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 계획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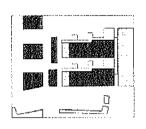
- 토지 이용 및 배치 계획적 측면
  - 자연지형 활용, 주변 환경에 대한 경관적 고려, 자연친화적 공 간제공
  - •일조 및 통풍을 위한 남향 배치원칙 말기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배치
- 외부 환경의 조성적 측면
  - 녹지공간과 보행동선, open space 의 연계, 외부공간의 적극 적 활용
  - •보·차 분리 및 말기 환자 우선의 외부 동선계획
  - 사색적이며, 외출적 느낌의 옥외공간조성
  - 자연요소 적극도입
- 실내 환경적 측면
  - 가정적 환경제공과 고유생활방식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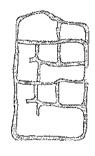
- 친숙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지역주민을 고려한 의료시설 제공
  - 혐오 시설로서 인식을 고려하며 지역주민을 배려한 계획
- 계획개념
- 자연친화적 공간



- 중정 : 내외 자연 유입
- 수종간 : 자연요소 적극적 도입
- 텃밭 : 자연과 교감, 계절감

〈그림 1. 자연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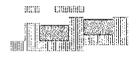
#### -말기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색적 공간



- 산책로
- 시색, 여정, 친숙과 안락함
- 병실에서 치료공간으로 외출적 느낌부여, 정서적, 영적 안정감

〈그림 2. 사색적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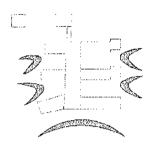
#### 가정적 환경과 고유의 생활공간 도입



- 07.1G 43.000.00 10.000.000
- 우리나라 주거문화 특성고려온돌설치
- 말기환자의 대표적 특성인 동통, 체위변경, 구르면서 통증조 절 역할 찜질역할

(그림 3. 생활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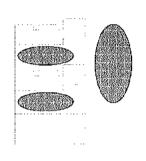
#### 외부공간의 적극적 활용



- 배열 : 남향배열, 폐적한 환경조성, 파빌리온 타입 적용
- 조망: 우족의 자연 조망, 시각적 즐거움(동남측 낮은 산, 과실수)
- 환경 : 아늑하고 포근한 위치,전원적 환경

〈그램 4.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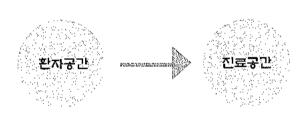
#### 쾌적한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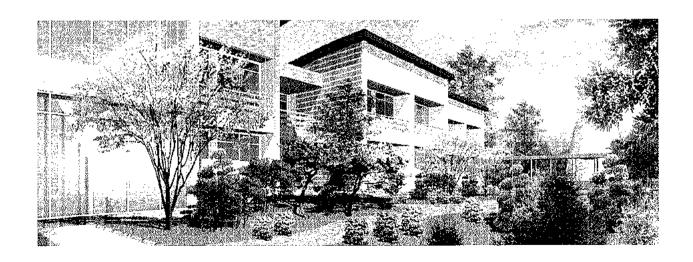
- 지형자세: 저형을 최대한 이용,자연스런 배치
- 병통사이 : 환자들의 옥외장소, 사색, 자연지로 등 동적 행위 공간유도

(그림 5. 쾌적한환경조성)

#### 외출과 같은 느낌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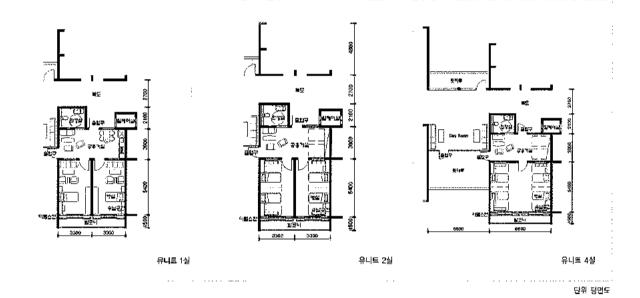
〈그림 6,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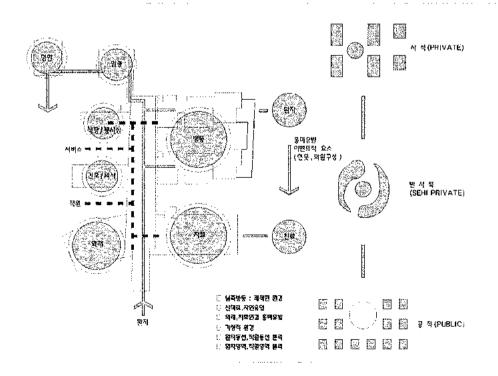


#### 맺는말

인간의 부딪히는 최후의 고비에 있어서 임종(죽음)이아말로 인간의 당면하는 가장 큰 위기인 것이다. 각 나라의 문화와 또는 종교관에 따라 개인이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신체적 소멸에 대한 공포, 고독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가족과 친지들과의 이별 등이 죽음을 기피하고 억압하며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 Project 는 이러한 말기 환자를 위한 시설로서 전재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으나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에 고쳤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으며 호스피스의 인가기준이나 법제정 등 업무의 표준이 하루빨리 마련되고 호스피스 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운영체계 등 열악한 환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연간 5만명에 이르는 암 환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이다. (글 / 이청훈) 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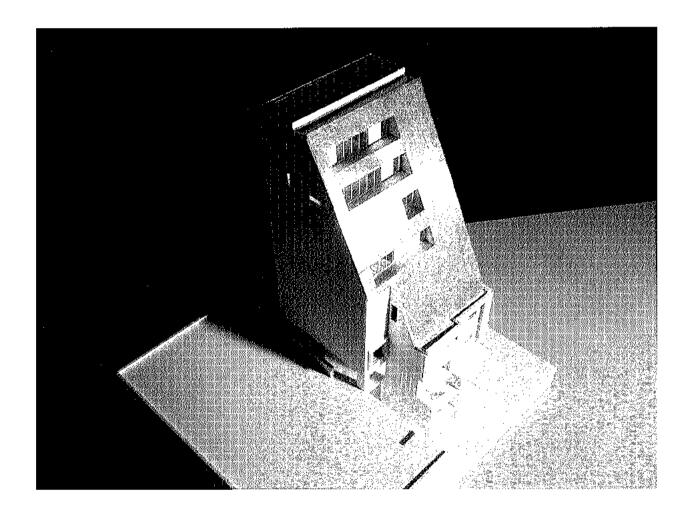




평연개념료

## 청담동 STUDIO EGG

## Cheongdam-dong Studio Egg



#### 일 과 알

일 과 알 모두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외에 는 전혀 관련됨이 없는 단어이지만, 작금의 심정은 어찌 이리도 닮은 데가 많은 지 새삼 스러울 뿐이오. 일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기를 업으로 삼고하는 모든 노동, 벌이 그 리고 되어가는 형편이라 하고, 일이란 새끼가 될 물질이 껍질에 싸여 있는 것이라 하는데 각각의 뜻으로야 영 딴판인 경우 아닌가?

#### 잂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을 고맙게도 다들 설계 소위 디자인이라고 하는 창조적 개념의 용어를 써 주어, 우려도 제법 근사한 일하는 사람들로 칭 받게 됨을 거듭 자랑으로 삼고

※이 글의 문체와 내용 등이 감히 건축사자에 계재되기엔 경박함 그 자체이나, 요즘 시절이 시절인지라 야 조금 감안하여 잠시라도 가볍게 읽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함(발자주)

자 하오, 이는 진심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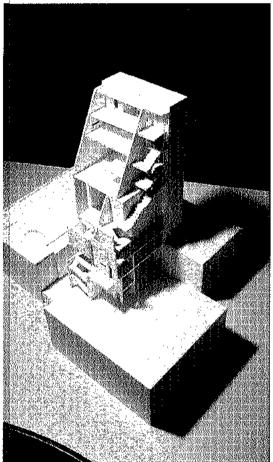
짚어 올라가니 작년 이 맘 때쯤, 소개 소 개로 만난 젊은 건축주, 이 사람 소개도 곁들 이면서 본론으로 들어 갈까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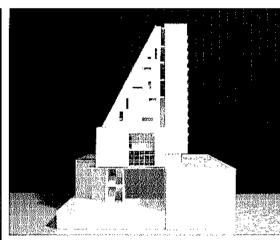
젊은 사람답게 일 한번 시원시원하게 시 켜 간만에 후련하게 벌이되는 일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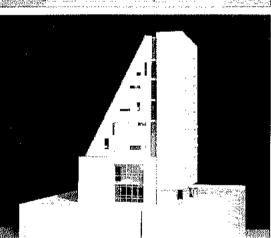
외국까지 나가 투자 많이 하면서 사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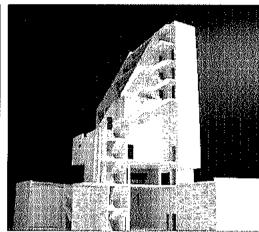
가 막급이요, 사진 스튜디오가 제대로 된 걸 차리려니 우리네 건 참고사항이 없고 맨 바 다건너 자료들만 요긴하다니 또 한숨이 푹푹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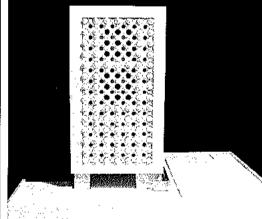
체면 뒷전으로 하고 여기저기 모은 자료, 아마 거의 건축주가 준 게 아닌가 싶은 데 이 걸 어쩌어쩌하여 겨우 덩어리 모형하나 없어서 참았소. 이 때부터 봇물 터지듯이 건물모양 이야기가 막 나오더니, 어느 날 이 사람 종이로 빚은 계란판 하나 들고 와서는 "이거 건물모양에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하더이다. 이때까지 머리를 싸맨 수준이 앞에 렌즈모양을 어째어찌 해볼 까 하는 건데, 이건 또 무슨 판 깨는 소린지 했다오.











부하고 온 사나이라 예술 한 번 하겠다는 정 신상태 제대로 되었고, 우리네 일하는 사람 심정도 제법 헤아려 주니 이 어찌 고맙다 하 지 않겠소. 사진하면 우리네 사람들 그냥 지 나칠 수 없는 업이니 주제 모르고 좀 이는 척 하고 일하려니 갑갑한 일 한 둘이 아니요. 차리리 이는 척이나 하지 말 것을 하는 후회 만들어 보여주었소, 그런데 이사람 이 걸 보고 사진관에서 쓰는 큰 카메라 형상과 똑 닮아 아주 맘에 든다는 뜬금없는 소리에 몸 둘 바를 몰라 무척 당황했었소. 그저 뒤쪽으로 법에서 띄어야 한다는 말 잘 따라 했을 뿐인데 말이오 이 참에 모형에 주름까지 잡아 카메라모형으로 아예 만들어 볼까 하다 자신

실은 이 사람 그 중에 국제화에 발맞추어 회사명도 영어로 만드느라 고민하던 차, 우 연히 EGG란 이름의 도메인이 없는 것을 알 고는 바로 EGGSTUDIO로 작명작업 막 끝 낸 상태였소, 나의 지병 중 지병인 이는 척 하는 중상이 또 발동하여 바로 이렇게 거들 었소, "스튜디오에 설치되는 사이클로라마의 현색곡면이 알의 내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면, 계란판에 박힌 알은 그 외양적 이미지를 암시한다." 내가 말하고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소, 계란판에 알이 박힌 건물이라, 이거 혹시 건축으로 될성 싶은 지 걱정이 태산이 오, "요즘 건축 재료가 또 기술이 워낙 좋아 져서"라는 얘길 철석같이 믿기에 자업자득 인 이 지경 누굴 탓하겠소, 알까지는 절대 건 축주의 요구사항이 절대 어니었소.

#### 얼

요즘 알이란 말의 쓰임새가 전혀 뜻밖이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주제넘게 또 한다니 하겠소, 먼저 예전에 알이란 말이 들어간 단어들은 대개가 다 좋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 이건 주지의 사실이오, 예를 들어 알 맛다, 알밤, 알선, 알차다, 알코올 등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 한 행동들에 감히 "알 박는다"라는 말을 쓰니 매우 걱정이 되오, 또 휴대폰에 사활을 건 많은 청소년들이 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에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참으로 고민스럽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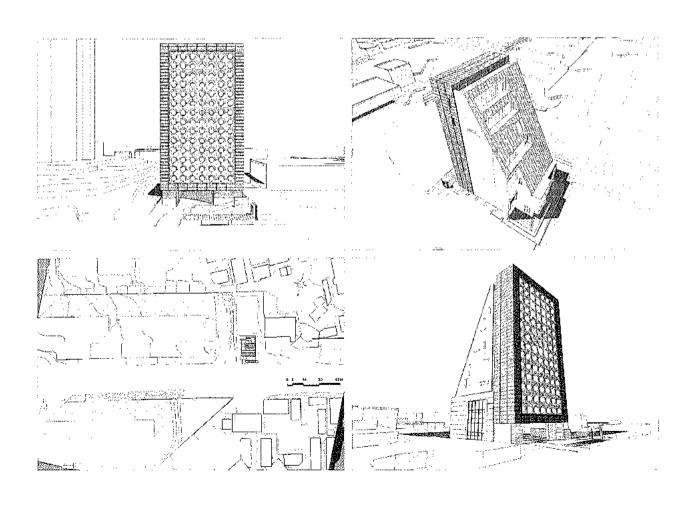
서두에 말했듯이 알이란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이니, 건축이 이와 어찌 닮지 않았겠 소? 알에서 부화하는 작은 생명들마다 인고 의 시절을 참고 견뎌낸 것을 알진데, 일심동 체인 건축을 위해 사는 우리도 말 할 수 없 는 고통들을 마다하지 않고 참는 것 까지 꼭 닮았으니 하는 말이오.

#### 겉 과 속

겉 과 속이 같은 동네인지 아니면 딴 동네 인지 살아가면서도 늘 헷갈리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이만 저만한 고면이 아닐 성 싶소, 왠지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따로 눌 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릴 들을까봐, 어 떻게든 연을 맺어 볼 요량으로 오늘도 역시 염치불구하고 떼를 좀 부리겠소, 그리고 말 투도 지금부터 바꾸겠소.

겉의 계란판을 만들만 한 건축 재료가 혼 치않아 성형이 가능한 것들로 압축을 했고 그 중 주아이스톤이란 자재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붙일 알들은 성형 FRP 위 우레탄계 열 도장으로 테마파크 연출 전문가들에게 의 뢰하였고, 실물크기의 샘플을 제작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층은 대부분 필로티이고 그 위에 제 1,2 스튜디오가 그리고 아래에 스튜디오 겸 작업 실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과 소품들은 코아 를 통해서 주로 이동하고, 대형 피사제(예:



자동차 )는 리프트로 서로 연결된다.

제 1 스튜디오는 총고가 11M이고 나머지 스튜디오들은 6M의 총고를 적용하였다.

결국 매스의 속은 거대한 3개의 빈 공간 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각각의 공간은 별도의 내부마감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한 싸이클로라 마로 마감된다. 이 싸이클로라마는 원래 그 림자를 없애기 위한 장치로 모든 모서리들이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고, 표면은 순백색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서 좀 과장된 말이긴 하 지만 알과 같은 구의 내부에 있는 듯한 인상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격

사실 어떤 대상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가 형식과 이론에 치우쳐 적극적 해법(직설적 표현 등)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 은가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건축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난 대상의 표현을 위해 건축 이외 분야의 해법까지 폭 넓게 조율해 볼 수 있 었으며, 건축의 표현과 의미부여 방식도 편 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접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 글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표현하지 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걱정보다는 그 직설적 표현시도 지체에 대한 부담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주의 아이디어에 따른 설계 의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것인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헷갈리는 중이다. 🖺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3-1,2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대지면적 316.90m²

건축면적 182,20m²

연면적 727,56m²

건 폐 율 57.49%

용적률 180.53%

모 지하 2층, 지상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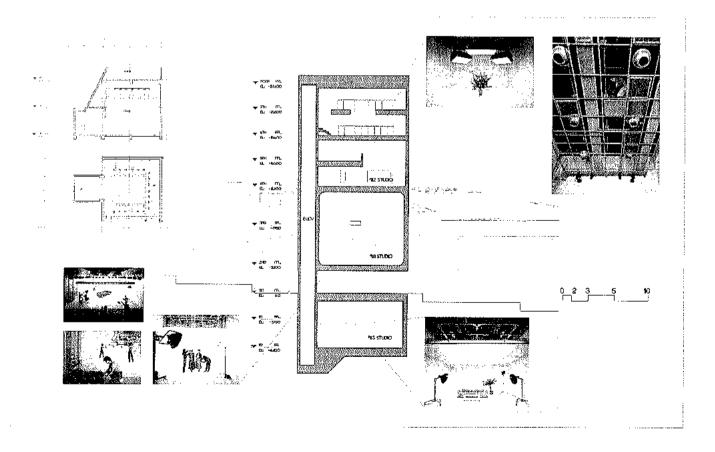
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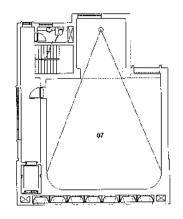
외부마감 벽/ ZHUAI STONE,

MONOCOUCHE, 지붕/ Z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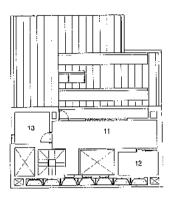
PLATE

인테리어 풍젠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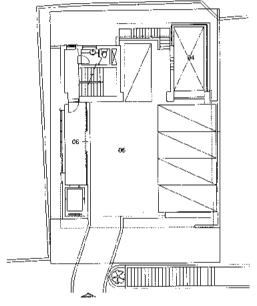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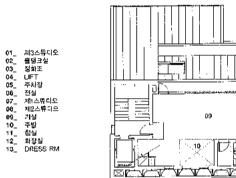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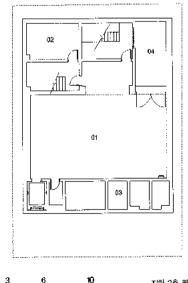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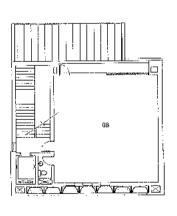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6 충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청담통 스튜디오 에그

# 공간클럽 - 13(미지막)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 목 첫

## [호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 2호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 3₫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 4호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놈지도

#### 5≅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 ৪ই

- a. 공간의 말또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위계

#### 7호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 8호!

- a. 쉬운 공간만들기
- b. 새로운 공간만들기
-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 ପ୍ରଚ

- a. 공간의 구별
- b. 공간의 대립개념

## 10회

- a. 마음속의 건축공간
- b. 언어속의 건축공간
-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 11호

- a. 공간의 위치
- b. 형태, 체계, 위치
- c. 위치적 공간구성

## 12章[

- a. 창으로 보는 공간
- b. 시나리오 공간

## 13호

- a. 공간계획
- b. 공간다자인
- c. 공간의 끝
- ※ 연재를 마치며

## a. 공간계획

Space Planning

계획은 어떤 일을 함에 앞서, 방법·차 례·규모 등을 미리 생각하여 얽이를 세우 거나, 또는 그 세운 내용을 말한다. 공간계 획은 공간을 만듦에 있어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 것인지, 공간을 만드는 순서, 공간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안을 짜는 것 을 말한다.

디자인의 시각에서 공간계획은 주로 규모 를 찾는 방법과 규모의 내용을 말하는 것처 럼 되어 있으나 실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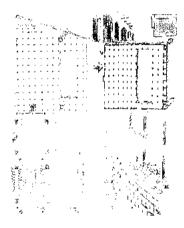


그림 1. 종교시설의 면적 산출을 유한 다이아그램의 예

1. 공간규모의 파악에 대한 공간계획의 내용은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공간의 규모는 어떠한지, 각 공간 간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 공간계획 내용은 필요한 교실들을 나열하는 것이며, 각 교실들의 크기를 결정하고, 교실들 간의 관계를 짓는 것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실의 파악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우선 공간의 목적이 정의되어야 한다. 학교라는 곳은 어떤 곳이며, 무엇을 가르치려하는지, 각각의 공간은 시람들의 활동을 담는 수요를 기

초로 한다. 그리고 목적은 주된 기능의 목적과 부속목적으로 나누어진다.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교실이 필요하지만, 교실에 딸려 교무실이나 양호실, 방송실 등이함께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의 필요한주된 기능공간에, 부속목적의 공간, 그리고화장실이나 계단실, 창고 등의 서비스 공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에는 잘안보이지만 건물의 기능을 서포트하는 덕트등의 설비 공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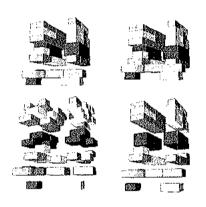


그림 2, 공간의 압체적 규모(배스)를 갖고 스터디 하는 과정

2. 이러한 공간들의 종류가 정리되면, 각 각의 공간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공간계 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실은 얼마만한 교 기를 가져야 할 것인가? 교실에 수용해야할 학생들의 숫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교육의 내용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 요한 공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1인당 2㎡. 이와 같은 수치가 쉽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따져 가면, 왜 그러한 수치 로 계획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학 생 1인은 특정한 교과목의 교실에서 책상과 걸상(책상과 걸상, 각각의 크기를 정해야하 는 것도 있다. 각각의 크기는 먼저 신체 규 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체규격 외 에 해당 교과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책 상 규격을 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술시간 에 좁은 책상을 사용하며 짜증을 낸 적이 있 을 것이다. 2인용 책상을 놓고 짝과 **다투어** 보기도 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

하면, 1인용 책상을 쓸 것인가? 2인용 책상을 쓸 것인가는 또 다른 중요한 계획 사항이된다. 교과목 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습득이라는 또다른 교육적 목적에 의해 판단될 수도 있기때문이다)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하며, 각 공간의 여유치수를 알아야한다. 그리고 동선에 의해 할애되는 공간의 크기와교실 내에 책걸상의 학습 공간 외에 필요한공간의 크기를 파악해야하고 그것을 1인당사용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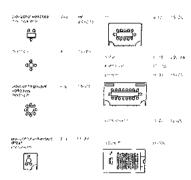


그림 3, 사용지 규모에 따라 공간의 사용가능성 체크

예를 들면 실내에 컴퓨터 학습공간이 따로 있다고 치자, 컴퓨터 공간에 많은 학생이 동시에 모인다면, 컴퓨터 공간의 크거가 매우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 공간을 무한정 배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특정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쌀물처럼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때의 수요를 위해 항구적인 공간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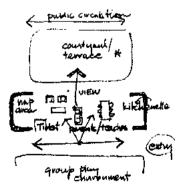


그림 4, 공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아그램

애하기는 함들 것이다. 그 경우 공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태동된다. 계획된 공간들의 운영과 관련한 공간경영 방침은 공간계획의 전제조건이 된다. 아무튼 학생들의 단위 공간 크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학급 내에서 발생되는 행위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보태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게 하여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면, 그러한 공간이 팔요로 하는 조건에 대해 파 악하고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채광을 위해 창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며, 창 을 만들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조 명의 조건, 환기를 위한 조건, 소음의 조건, 수도나 전력 등의 갖추어야 할 설비조건 등 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교실의 예를 들면 장방형의 모양부터 꼭 장방형이어야 하는지? 정방형은 안 되는지? 원형은? 사다 리꼴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사용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소음의 허용 한도는 어떠한지?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재료를 써야하는지? 실내의 색상조건은? 분 위기의 조건부터 원활한 기능을 위한 각각 의 조건에 이르기까지 파악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영역은 기술 적 정보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간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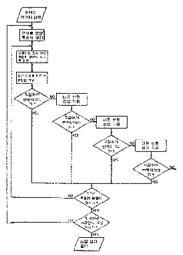


그림 5. 공간개확 프로세스품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4. 개설에 대한 계획이 정려되면 개설과 개설간의 공간관계에 대한 계획적 요구사항의 정리가 필요하다. a 교실과 b 교실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지,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동선이 가까워야 하는 것인지, 감시가 되도록 시선이 통해야 하는 것인지, 물이나 가스 등의설비라인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동선이 가깝다는 것은 직선 연결을 뜻하는지, 병렬연결을 뜻하는지, 이러한 문제가 계획의 사항이 된다.

5, 다음으로 공간계획의 정의에 따라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 역시 공간 계획의 범위에 속한다. 정해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의 크기를 담기 위해 기둥을 세울 위치를 정하고, 벽을 쌓고, 공간의 가변성을 위해 벽의 종류를 정하고, 공장 생산되는 창문의 크기에 맞춰 창틀을 정하고, 내부 마감재에 맞춰 기둥간격을 조정하고, 반복되는 필요한 실들의경제적인 건설을 위해 모듈을 설정하며, 등등은 모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인 것과 많은 상관관계를 이루지만 공간계획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그림 6. 공간제작을 위한 모듈의 제안

6,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만드는 순서 를 정하는 것도 공간계획에 포함된다. 공정 표로 알려진 이 과정은 사실은 공간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공사관리, CM 등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 간 만드는 순서가 만드는 공간의 종류에 따 라 달라 적용될 수 있을뿐더러 사회적, 기술 적 인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건 축가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고 해야 할 것이다. 요른 옷존이 설계한 시 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당시로서는 만들기 쉽지 않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웃존은 조 립식 콘크리트 부재를 스트링으로 연결하는 구조에 의해(구조디자이너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하고 그에 의해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 또는 필요한 재료의 수급상황과 미래저향적 가치 관에 의해 공법과 프로세스가 이해되고 선 정되어야 하는데 공사관리적 측면에서 효율 성만을 두고 건물공사의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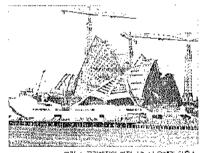


그림 7, 공간제작의 과정-시트나 오데라 하우스

공간계획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한번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간계획의 전제에는 사용자의 목적이 있으며, 공간계획의 결과에 는 물리적인 공급규모와 방식이 있다. 그리 하여 이 부분이 무형의 존재할 수 있을법한 공간에서 유형의 존재공간을 만드는 과정의 진수로 여겨진다.

공간계획의 계획사항은 건물을 짓기 위해 기능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입장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는 사람들의 건축적 삼-건물 속에서의 삶-올 매우 기능적으로 다룬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이 계획 적 지표로 지지받고는 있지만 인간의 삶은 많은 경우 계획적 지표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심가로의 바쁘게 스치고 지나가는 행인들 속에서 하늘을 보며시간의 여유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며, 짧은 동선으로 구획된 행위의 연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습관적 행동에 따라 우회하는 길에 익숙해 있기도 하며, 밥을 먹는 식탁은 때론 공부하는 책상이 되기도 한다. 연간의 삶을 계획이라는 지표로 조망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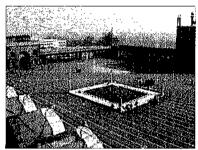


그림 8. 계획의 조건~"광장에 서있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응작임은?"

은 편리성이라는 개념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삶이 반드시 편리함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공간계획의 가치가 한 정됨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보수적인 가치로서 편리성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해 일반화된 정답을 추구하는 자세에서는 건축공간의 계획적 사고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 b. 공간디자인 space designing

디자인은 번역하자면 설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건축설계는 디자인보다는 보다 포괄적 정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건축설계는 계획을 마무리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종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축에서의 디자인은 어감상으로 의장이나 장식 동의형태적 표현에 차중된 내용을 다룬다고할 수 있다.



그림 9, 장식된 공간의 여

1. 그렇게 본다면 공간디자인은 공간의 형식 또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간계획이 공간의 내용과 규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공간다 자인은 정해진 규격의 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즉. 예를 들면 공간계획에서 학교의 경우 교실 의 크기와 개실의 조건이 정해졌지만 그것 욜 해결하는 형태적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 되지 않는다. 공간디자인에서 이 문제를 정할 수 있다. 같은 크기의 교실이더라도 교실을 원형으로 만들 것인지, 사각형으로 만들 것인지, 팔각형으로 만들 것인지를 디자인 할 수 있다. 교실의 내부벽면 색상 은 노란색으로 할 것인지, 파란색으로 할 것인지, 초록색으로 할 것인지, 창틀은 세 로창틀로 할 것인지, 수평창틀로 할 것인 지,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를 디자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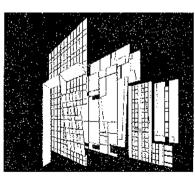


그림 IO, 프란시스 플레의 멜레포르트 국민학교 파샤드 폐턴

2. 그러나 디자인이 형태를 결정하는 것

이지만 그 과정이 형태적이지만은 않다. 즉, 교실의 모양을 정하는 데에는 교실내에 서 벌어지는 학습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형의 좌석배치로 세미나형 수업이 벌어 진다면 원형의 교실은 이에 적합한 디자인 으로 보인다. 강연식 학습이 중요하다면 일 방향의 직사각형 교실형이나 부채꼴형 강 의실이 어울려 보인다. 교실의 방향에 따라 채광조건을 받아들여 창틀의 골격을 제안 할 수도 있다. 교실내부의 색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학습효과를 위한 벽체의 분할을 염두에 둘 수도 있으 며, 바닥의 재료나 패턴의 결정에도 이유 있는 전제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들은 공간의 계획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공간계획을 충실 히 하면 공간디자인의 속성이 그대로 결정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마치 심해의 물고기 가 노란색, 파란색, 매우 특별한 색상을 가 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자이너인 하나님이 채색하듯 그려 넣었다 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빛이 닫지 않는 심해의 조건에서 특별한 색상인자를 갖는 물고기의 유전적 요소가 그러한 색을 만들 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도 가능하 다, 이때의 디자인은 계획의 확장된 의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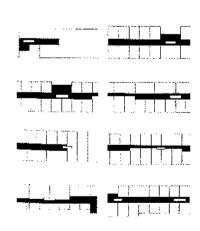


그림 11, 다양한 모양의 패턴 예-벤 반 버클의 제부르게 설 고층 주거단지 다야이그램

3. 그러나 디자인은 계획과 다른 측면을

포함한다. 교실의 창모양은 내부공간의 조건에 종속될 수도 있지만 건물의 입면형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교실 내 빛의 확산을 돕기 위해 루버를 설치한 창이 연속되며 건물의 외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공간계획의 결과로서 외관디자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건물의 비례에 따라 교실마다 다른 창의 크기를 갖게 될 수도 있듯이 그것은 공간계획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형성될수 있다. 그것이 공간 디자인의 또 다른 변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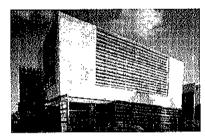


그림 12, 루백 디자인의 예-뺸 찬 버클의 ACOM

4, 공간디자인은 만든다는 측면에서 공간 계획과 다시 조우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 건물을 만드는 구조방식을 결정짓기도 하며, 기둥의 간격을 조정하기도 한다. 다만 공간계획과 다른 점은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동일한 가둥 간격에서도 가둥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둥의 모양을 달리 할 수있고, 가둥을 통해 구조를 표현할 수도 있다. 고딕성당의 기둥을 보면 구조적 역할과는 상관없이 천정 리브의 힘이 지상으로 전달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둥에 붙여 조그만한 가둥물을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알베르타는 성 안드레야 교회당에서 더블 가둥을 통해 건물 외관의 미적 분화를 일으킨다.

5. 공간계획을 통해 두공간의 가까움이 증명되듯 위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두공간 사이의 공간디자인을 통해 두공간의 위치가 얼면서도 가까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은 가 능하다.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보이도록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직선의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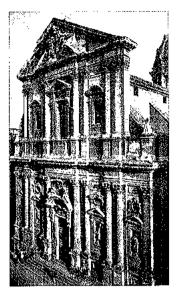


그림 13, 2중 기둥 열주-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로로 연결된다면 그리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디자인의 가능성이다.



그럼 :4, 평면의 다양한 디자인-자하 하다드의 이화여대 캠퍼스센터 국제 지명현상설계안

6. 또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목적의 개조가 가능하다. 모든 교실의 모양이 원형으로 만들어진다면 일방향식의 강의라는 형식은 사라지고 모든 수업이 세미나식으로 진행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디자인을 맹신하여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겠지만......

공간디자인은 소극적인 의미로 공간의 형



그림 15, 구조리자인-노만 포스터의 르노 센터

태만들기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 방적인 디자인이 아니며 공간계획과 상응하는 이유를 갖고 있거나 공간을 만드는 구조 적 기술과 상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인의 순수성은 인간 감성에 호소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통한 계획적 변화의 자세와 연관되기도 하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는 미학적 판단과 상관되기도 한다.

공간디자인의 목적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창조이며, 이는 수용적 자세의 있을법한 이유를 찾기 보다는 표상적 의미의 세계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려는 의지가 우선된다고 생각된다. 어치피 건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미래는 현재의 기술과 사고에 종속되지만, 디자인이라는 제 3의 인자에 의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가능성을 갖는다. 새롭다는 정의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쟁점으로 디자인의 결과물이 태동되기를 소망하는 자세가 공간디자인의 미래를 여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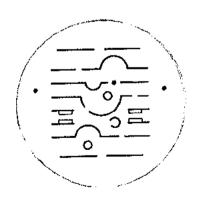


그림 16. 디자인으로 유도뵐 아이들의 움직임-Van Eyck의 전시관

## c. 공간의 끝

The End of Space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맞은편의 부엌을 바라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깊이 가 느껴진다. 컴컴한 뱜 아파트의 베란다 창 을 통해 보여 지는 뒤 편 부엌의 반사된 모 습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공간의 깊이를 보다 잘 보여준다. 그리고 부엌의 끝 벽이 공간의 끝이고, 더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이상의 꿈처럼 하 늘을 펄펄 날 수 없으니 공간의 한계가 인간 의 자유를 구속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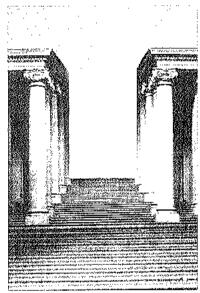


그림 17. 허우한 공간의 끝

공간의 끝에 서면 허탈함과 좌절감이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공간의 끝에서는 체념이 받아들여지고 경계이내에서 존재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한다. 그 이면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간이라는 유형이아니라 무한의 영적인 세계가 떠오르거나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뿐이다. 공간의 끝은 유형이라기 보다는 무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실제로는 벽 뒤로 하늘 공간과 연속되는 우주공간이 있을 것이다. 시각적으로는 끝없이 보여지지만 인간의 삶과 관련 없는

이들 공간은 추상적 개념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휴전선 철책 앞에 서면 이곳은 남한의 끝



그램 18. 공간의 끝~낭터리지

이라는 생각에 머문다. 그리고 철책너머는 갈 수 없는 공간으로 남는다. 겨울에 바닷가 에 가면 차가운 바다가 앞에 놓여있다. 뭍으 로부터 시원한 바다를 구경하러 왔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음에 떠문다. 이러한 경우의 공간의 끝은 유형적이지만 개념적이다. 내용 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의 연속이지만 인식적 인 한계로서의 끝이다. 인식적인 공간의 끝 은 삶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국토 의 한계, 남북한의 경계, 대지의 경계선..... 자연인으로서의 공간은 연속성이 존재하지 만 세상적 의미에 의해 한정됨으로서 끝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활동적 한계에 의한 공 간의 끝, 공간에 대한 인식의 끝, 그리고 의 미상의 끝, 공간의 끝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림 19, 공간의 끝-지도상이 표현된 대지경계선

간의 끝은 한계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리하여 이웃집과 경계선을 트고 건물과 마당, 정원으로 연속되는 공간을 두여 공간의 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되며, 한계지어진 공간의 끝을 가리기위해 화단이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의 끝에 적용하기 위한 세속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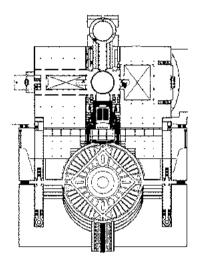


그림 20, 공간의 청점을 보여주는 전쟁기념관 평면

공간의 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은 공간의 목적점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하 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목적점의 의미가 강 해진다면 그자체가 공간의 끝으로서의 의미 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점은 주변에 대한 관심을 흡수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목 적점이 빈약할 경우, 무언가를 밖에서 더 갈 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공간의 끝에 대한 상실감을 더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공간의 끝에 대해 적용하기 위하여 마진을 두는 것 도 방법이다. 아파트의 베란다는 공간의 끝 에 대한 상실감을 조절하기 위한 좋은 방법 이다. 근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베란다 공 간을 없애고 큰 창을 거주공간에서 외부로 직접 대면하는 것은 강한 대조를 통해 마진 보다는 공간의 카타르시스에 비중을 두었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강렬함에 적응되지 않 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대자의 경

계선에 시설녹지의 띠를 형성하거나 셋백을 하며 전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공간의 끝 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그림 21, 공간의 끝에 설치된 여유콩간~팃마루

공간이 끝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공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연속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공간의 한계는 벽으로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공간은 인간의 행동으로나 인식적으로 한계지어지며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다. 후쿠 이마의 역사의 종언처럼 공간의 인식의 끝은 가변적이었으면 좋을 듯 싶다. 존재하지 않는 벽, 또 존재할 수 있는 벽, 그것으로 건축공간의 끝을 성립한다. 있는 뜻이 없는 듯이 마음속에서 좌우되며 심리적으로 판별되며, 전자적 장치에 의해 미래에 달성될 가변적인 벽이 공간의 끝을 이루게 된다면 더 이상 공간은 한계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 <mark>연재를 마치며</mark> epilog

고동안 건축적 공간에 대해 여해되고 느껴지는 현상과 사고내용을 공간클럽이라는 타이틀로 연재하며, 공간에 대한 논리의 시 작으로부터 감상적 공간의 끝인 허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이러한 논점은 공간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간이론의 태동을 기대하는 편에 가깝다. 기존의 공간에 관련된 이론들이 매우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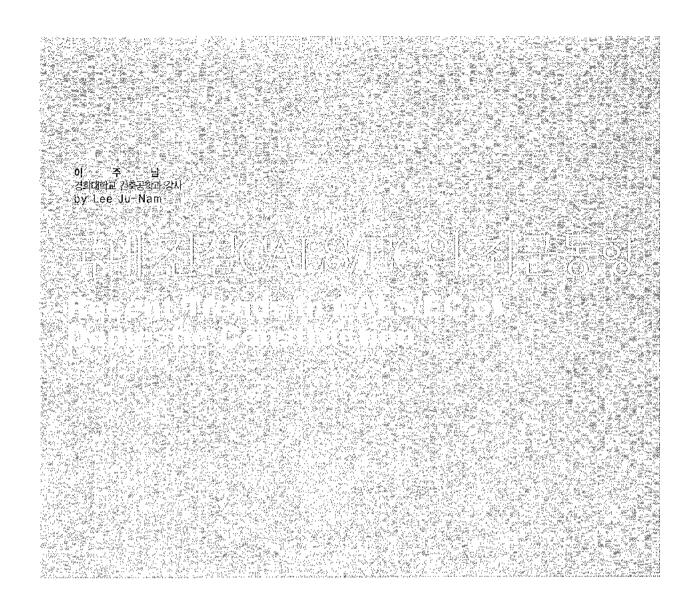
리적으로 구체적인 현상 설명이나 의미체계 를 이루고는 있지만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 사(가)들에게 실감이 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 일 것이다. 무엇을 응용해보고자 하여도 전 혀 연결을 지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건축사 (가)들은 건축설계를 할 때 아이디어의 원천 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원해 왔다고 생각된다. 보다 실제적이며, 건 축물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 해주고, 설계에 직접 응용해보고 싶은 그러 한 사례들이 설명되고,,,,, 본 연재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논리적 틀보다는 건축물에서의 현상조명과 이해의 시각을 넓히는 데 주력 하였다.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공간용어가 실 제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해체하려 하였 다. 많은 사례를 들어 실제 건축적 현상을 설명하고 설계의 사례로 들려고 하였다. 그 것들 중에는 이미 건축사(가)들이 사용하는 방식들이 설명되기도 하였거나 너무 쉬운 내용으로 전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매우 간단한 단서로부터 커다란 변화가 시 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사소해 보이는 공간의 시선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건축계도 기존의 건물들을 모방하는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사이트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다양성은 창의적인 사고를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사(가)의 색깔과 이데올로기로서 창조성을 보여야 한다. 나만이 만들 수있는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 공간은 건축의 시작으로서 창조성을 이루어낼 가장 기초적인 인자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을 기술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희망하기로는 이로부터 창조적 건축의 단서를 많은 건축 사(가)들이 찾았으면 한다.

앞으로 기회가 되어 이번 기회에 다루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또 다른 관점들과 정보 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 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圈



그림 22. 알 수 없는 끝-만토니오 가우다의 구엘공원



최근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정보화 바람은 "건설CALS/EC(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Electronic Commerce)"라는 이 롬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CALS/EC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건설CALS/ECS는 현재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CALS협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하에 의거 구체화 되고 있다. 2007년까지 건설산업의 지식정보회를 실현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방안과 인허기업무 및 도면 납품의 표준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몇몇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건설CALS/EC의 의미와 최근의 동향과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고 자 한다.

<sup>1)</sup>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 동법시항령 제29조

#### 건설CALS/EC란

국내의 건설CALS/EC란 건설산업의 전생명주기동안 발생되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즉,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기획·설계·사공·유지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수·발주자 및 관련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환·공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정보화, 지식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 건설CALS/EC의 동향

건설CALS/EC는 1996년부터 추진되어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구축, 도면정보의 표준화, 건설산업관리의 전자처 리체계 구축, 건설산업정보교환시스템, 시설 물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설CALS/EC의 도면정보 교환표 준규격으로 STEP기반의 2차원 도면정보 교 환표준 모델인 KOSDIC을 개발하였으며, 이 것은 기존에 작성된 많은 도면들이 표준포맷 이 제정되지 않아 수 · 발주자 및 협력업체들 간의 도면의 교환 · 공유 · 납품 · 활용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건설CALS/EC는 2007년까지 건설 산업

(표 1) 건설CALS/EC의 단계별 추진계확?)

Поннов	4800	1 2004	2005	2006 2007	
사업분야	2003	2004	2000	2006   2007	
n 조정네	건설업무 표준화				
포준정비	건설정보 유통을 위한 표준화				
	건설사업관리서스템 구축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시설물유	지만리시스	템 구축		
구축·확산	건설인 해가				
	사람족				
	건설CLAS/EC 운영 및 확산				
건설기술			건설정보의	의 공유 환경조성	
공유체계구축			건설기술?	성보의 단일창구화	
건설 <del>용</del> 용			건설정보호	<sup>6</sup> 응용기술 개발	
IT연구			참단 정보	통신 기술의 적용연구	
			민간건恢	보화추진 및 활성화지원	
지원체계			건설 e-1	조니스 인프라 구축	
강화	건설정보화 기반학대를 위한 교육				
	건설정보	화 촉진율	위한 법 ·	제드 기반환경 구축	

의 지식정보회를 실현하고자 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표1)과 같다.

#### 도면 표준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각 설계사무소 들은 자체적인 작성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성기준은 건설 CALS/EC에서 표준이 제정된다면 표준화에 따라야 할 부분이다.

현재 도면표준화 작업으로 "도면정보 교환 표준"과 "CAD도면 작성기준"이 개발되었다. 도면정보의 표준화는 2차원 CAD데이터의 도면정보 교환표준 저침, 규격, 라이브러리, 인증체계의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표 2) 도면 정보 표준의 꾸분<sup>(3)</sup>

구 분	표준 개발 대상 분야
	도면 포맷
도면정보 교환 표준	도면 객치 및 정보 연계
	도면의 납품 및 교환
	도면 구성
CAD도면 작성 표준	도면 제도 및 표현
	도면 용어

## 도면정보 교환표준(KOSDIC)

KOSDICI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이란 국내 건설분야 도면정보 교환표준 포맷이다. 기존의 CAD데이터는 이 기종간의 데이터 교환이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업체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KOSDIC의 근간은 STEP이다. 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이란 CALS 제품모델 표준으로 기존의 임시방편적이고 불완전한 자료교환 및 IGES, DXF, DWG 등의 공유 표준들을 대치하고자 개발된 정보교환 및 공유 표준으로 정보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KOSDIC은 현재 토목·건축 분야별 실무기관의 실무도면을 대상으로 실무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검증 시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CAD도면 파일을 KOSDIC으로 변환한 경우 DWG나 DXF의 형상정보는 손실 없이 KOSDIC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나 일부 DWG 전용 객체정보는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 CAD도면 작성표준

CAD도면 작성표준은 한국건설CALS협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계도면 작성시 CAD도면 표준으로 도면의 크기, 양식, 심벌, 레이어, 글꼴 등 도면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하였다. 이러한 CAD도면작성 표준은 실효를 거두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설계사무소 고유의 CAD도면 작성기준은 프로젝트의 특성과 업무에 맞게 사용되므로 쉽게 바뀔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한 CAD도면 작성기준의 마련을 위해서는 실무자들과의 적절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현재 CAD제도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들과의 몇 해에 걸친 재 정비로 그 실효를 거둔 만큼 우리나라의 경 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 건설CALS/EC에 거는 기대

이제 종이에 손으로 그리는 도면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트레싱지에 그리는 도면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해 그리는 도면에 더익숙해졌다. 또, 물감으로 멋지게 그리던 투시도의 매력도 없어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sup>2)</sup> www.calspia.re.kr

<sup>3)</sup>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CALS/EC표준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CALS연구센터, 2004, 4,

<sup>4)</sup> www.cals.or.kr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출 력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 던 일이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고 투시도를 그리는데 익숙해 졌 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없 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업무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건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건 설CALS/EC체계하에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건설CALS/EC는 우리에게 어떤 업무 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건설산업의 정보화, 지식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CALS/EC는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업무처리시간의 단축, 공사품질의안전성 제고, 공사비의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CALS/EC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여러 사업들은 건설산업 전반

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 업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것과 기존에 사용되어온 행정의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바뀌어 나가고 있으 며 건설산업도 이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제는 건설산업에서도 외국기업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기업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적 표준으로 공인된 표준포맷을 사용할 경우, 정보의 공유나 재사용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건설CALS/EC가 추구하는 바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건설CALS/EC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들은 실무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전략에 부용하여 활용 가능한 시스템은 적극 도입하여 만·관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 맺읅말

건설산업에서 건설CALS/EC의 역할은 중 요하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러한 정책이 늘 바른 길로만 갈 수는 없겠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 으로 가벼이 진행된다면 건설산업 전반에 커 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 련기관들은 늘 신중한 마음으로 건설 CALS/EC를 추진해 주기 바라며, 민간에서 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遺

##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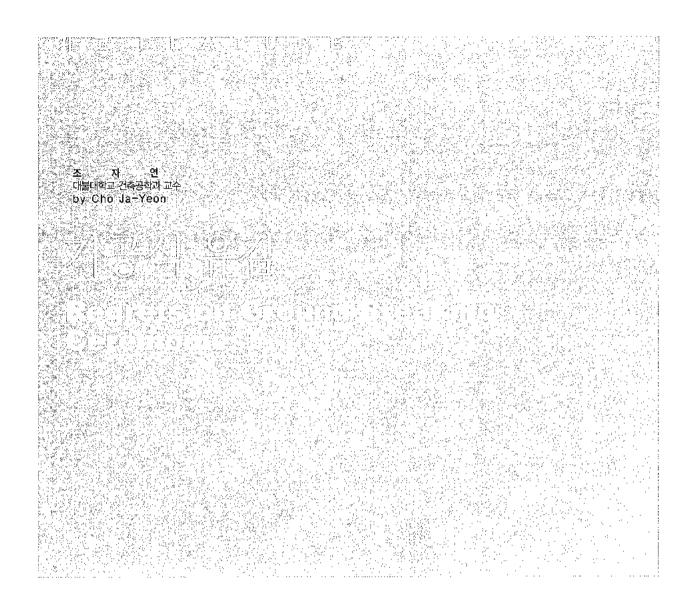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 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건축서비스템」을 구성하여 질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전(부내 최다)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만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문의: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지난 4월 초에 외국관련 연구소의 기공식에 갈 기회가 있었다. 당일 식장에는 연구소 관련 외국인과 국내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행사는 그동안의 경과, 내외국인들의 축사 그리고 이어진 테이프 커팅 및 발파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식장의 단상에는 건축 관련자로서 시공사 대표가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기공식이 끝날 때까지 건축사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히 그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설계하면서 심외, 허가를 위해 동분서주했을 건축사는 제외되어 있었다. 순간 필자는 몹시 서운하고 부끄러웠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오물 뒤집어 쓴 느낌이 이렇까? 우리끼리였다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외국인들 앞에서 적어도 그들의 나라에서는 건축사를 이렇게 박대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그런 기분이 들었나 보다. 그 짧은 순간에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유학 중에 잠시 귀국한 졸업생이 독일 신문을 보여주며, "이 분 덕탁에 학교에서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고 했다. 신문에는 독일 한 도시의 공립도서 관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설계인과 당선자인 우리나라 건축가에 대한 가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 두 면에 걸쳐 심사과정, 당선작 선정, 당선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선자 인터뷰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었다. 필자도 그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건축가가 큰일을 해냈음에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났다.

요즘 몇 몇 신문을 통해 건축에 대한 특집기사를 접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건축 관련 사진과 기사에 건축주와 사공자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설계자가 누군지 명기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낳아준 엄마에 대한 언급 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격이라면 너무 비약하는 걸까? 신문기사 작성의 기본이 육하원칙임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건축에 관한 기사에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빠진 기사를 쓰는 신문기자의 무신경만 탓할 일일까? 그 똑똑한 기자들이 과연 잊고 빼먹은 걸까? 아니면 언론사 제작방침이거나 데스크가 쓰지 말라고 강요했을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건축물에 관한 기사에 설계자가 누

군지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관습적으로 설계자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은 나로부터 라는 것이 고급을 통한 전리이다. 무엇보다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 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이다. 하지만 건축사들의 대다수가 직원들 월급 만들어 주기 바빠서 도저히 틈이 없는 건축사님들. 그리고 작품 외에는 아예 관심 조차 없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건축사 면하가 있으신 어느 공무원께서 건축 시들의 (무관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건축 법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하라고 연락하면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법안이 통과된 뒤에 뒤늦게 부라부 라 문제점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 관련 이 있는 법안이어서 시안에 따라서는 분명하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견되는데도 그 저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 참 답답하 다고 했다. 관점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 것이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 한 현 주소인지 모르겠다. 그럼 건축사 문제를 누가 해결해줄까? 사회가 알아서? 건축주가? 시공자가? 물론 아무도 대신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건축사를 중 여건이 되는 분들은 시의원, 국회의원에도 대거 출마하고, TV에도 반변하게 얼굴 내밀고, 신문에 칼럼도 열심히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해 작품 안하고 엉뚱한 짓 한다고 뒤에서 비웃으면 안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질수록 역동적이며, 그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그 조직에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건축 3단체가 합의하여 각 언론사에 공동명의로 건축물 소개기사에 건축사 이름을 명기해 줄 것에 대한 협조공단을 보내고, 1년에 한번씩은 단체장들이함께 손잡고 각 언론사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일들이 번거 롭기만 하고 도리어 건축사들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이 될까? 연속극에 종종 등장하는 〈 설계사(?!)라는 국적불명의 용어를 쓰는 방송 작가에게도 협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점잖게 그 오류를 지적해주면 어떨까? "극중 인물 작 업으로 〈건축사〉를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그분의 호칭은 건축가 혹은 건축사가 맞 습니다"라고

그러나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건축사 자 신이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라고 본 다. 물론 누구나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도 미래 언젠가 우리나라 건축사들 모두가 지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날이 온다면 앞에서 장황하게 언급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몇 년 후 5 년제 건축대학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텐데, 그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선배 건축사들께서 기본 토양을 조 금씩 만들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유명한 퐁텐블 로를 위하여 미켈란젤로을 초청하였을 때, 미켈란젤로는 적은 보수와 자신의 창조적인 작업을 프랑스와 1세가 보장하지 않음을 근 거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작가로서 의 〈자존심〉 아닐까? 하지만 설계비가 너무 적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만용(?)을 부릴 건 축사가 우리 현실에서 몇이나 될까? 직원들 굶기려고 작정한 정신 나간 소장이거나, 재 산이 많아서 월급걱정 안 해도 되는 분야겠 죠. 직원들 월급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일 것이다. 결국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직원들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매년 인건비를 최소 물가인상 를 만큼은 올려 주어야만 하는데, 설계비는 10년 전 그대로인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심히 공부

한 제자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박봉에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에 끄덕이며 공감한 적이 있다. 지방에는 주택을 평당 2~3만원받고 설계해주는 사무실도 많은데, 도대체 그사무실 작원들은 얼마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설계비 받은 만큼만 일해 주어야 할테니, 도면은 또 얼마나 부실하게 될까? 이것은 경제의 원리이므로 누구도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실한 도면이 결국 전체 공사비를 상송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설계비 아깐(?) 것만 좋아하는 건축주가 우리 주변엔 왜 이라 많은지 모르겠다.

처과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진료 중 간혹 형편없는 솜씨의 인공치아를 가진 환자를 보게 되면 조심스럽게 묻는다고 한다. 전에 어디서 치료를 받으셨나요? 질문 전에 분명히 무면허지들이 시술한 것이라는 확신 이 있지만, 혹시라도 동료 치과의사를 욕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확인이란다. 동료의 식이겠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 각과 함께 과연 필자는 다른 분들의 설계를 깊은 생각 없이 매도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 했던 적이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작가와 작 품에 대한 존중과 예약를 갖추면서 얼마든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당연히 건축사 사이에도 이런 〈동료의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는 동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건축사가 품 위 있고, 자부심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제 3 자 눈에 비쳐지지 않을까. 건축사들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동료를 높여줄 때 사회도 건 축시물을 존중해주리라 만든다.

건물이 다 지어질 3년 후에는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은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준공식에는 건축사가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 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작 품소개와 그동안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즐거 운 상상을 해본다. 그때쯤이면 기공식의 우 울함은 잊혀지겠지요 圖

# 건축마당 소 식 news

협회소식 kira news

##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계획부문 주제 「불이(不二)/Architecture in Nature, Nature in Architecture」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준공 건축물부문은 2002년 9월 1일 이후 2004년 8월 31일까지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로 오는 9월 1일과 2일 접수를 받고, 계획건축물부문은 「불이(不 二)/Architecture in Nature, Nature in Architecture,주제에 맞는 미발표 창작물로 오는 10월 11일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광 고와 홈페이지(www.kira.or.kr)를 참조

## 제8회 이사회

2004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 에서는 제1호의안인 회관건립위원회 재구성 승인의 건 제2호의안 건축연구원 설립 운영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밖에도 건축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에 관한 건 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 개선(안)이 기타 사항으로 협의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회관건립위원회 재구성 승인의 건) : 재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유보키로 하고

차기 이사회 시 재논의 하기로 함.

 제 2호의안(건축연구원 설립 · 운영계획(안) 승 인의 건) : 건축연구원을 설립·운영키로 하고, 운영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차기 이사회 사 의결키로 함.

A 24

면 인	т 3
제6조(구성) ① 연구원은 연구원장 1	제6조(구성) ① 연구원은 연구원장 1
인과 연구원 약간 명을 둔다.	인과 부원장 2인 및 연구원 약간 명
② 내용 생략	율 문다.
③ 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보좌하	② 내용 생략
여 원장 유고시 선일자가 그 작	③ <u>부원장</u> 온
무를 대행한다.	
제7조(연구원장) ① 내용 생략,	± # 11 + # m
② 연구원장은 건축사로서 수	제7조연구원장(① 내용 생략
<u>년간 건축분야에 종사하고,</u> 학식	② 연구원장은 학식과 덕명이
과 덕당이 있는 자중 이사회의	있는 자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조직 및 운영) ①~②내용 솅	
략.	제9조(조작 및 운영) ①~②내용 생
③ 연구원의 업무 및 <u>연구실적</u>	롹
<u>은</u> 협회의 감사가 감사규정에	(9~ <u>회개는</u>
의하여 감사하며, 이를 이사회의	
총회에 보고한다.	

- •제3호약안(정회원회박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 장기미납회원의 회비는 최대한 정수하는 방 안을 강구키로 하고, 제명 절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행하기로 함.
- 의결주문의 내용 중 "미납회비 결손처분 액"은 "미납회비 결손처분 예정액"으로 수 정키로 함.
- •제4호의앤신임 감사 및 여자 재선출에 대한 감사요청에 관한 건)
- : 소송 중에 있으므로 부결키로 함.

## ▲ 협의사항

 제1호(건축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에 관한 건)
 각 시도 건축사회의 의견과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협회 의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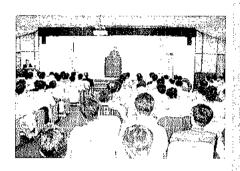
• 개최일자 : 2004년 10월 7일(목)

• 장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올림픽 파크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고될 예정

- •제2호(주택건설공사감리제도 개선(안)에 관한 건)
- : 주택법시행령 제26조 중 업역 구분의 때 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키로 함.

## 서울건축사회, 제5기 특별검사원 발단식



서울 건축사회는 지난 6월 11일(금) 제5기 특별 검사원 발단식을 갖고 서울의 불법·위법 건축물 에 대한 특검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 대전건축사회, 회원간담회

대전건축사회에서는 지난 5월 24(월)일부터 3(월)일까지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 회에서는 입법 예고된 건축법령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세부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금 년도 사업중 하나인 회원친목행사와 외국건축탐 방 추진에 관한 사전회원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 <u>울산건축사회, 건축법령 개정방안</u> <u>간담회</u>

을산건축사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건축법령 개정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는 울산광역시청 김도현 도시미관과장의 건축법 명 개정(안) 발표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문사항 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용답 시간이 있었다. 특히 금번 개정안 내용 중 현장조사검사업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 2004 강원도건축사대회 개최



지난 5월 22일 2004강원도건축사대회가 도 내 건축사와 강원도, 강릉시 건축직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 경찰수련원에 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회원상호간 우호증진 과 건축부조리 척결에 의미를 두고 축구와 족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화합의 한미당 축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30여년 간 건축사로서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한 한성 일, 김화영, 민병합 건축사가 강원도지사 표창장 을 받았으며, 강릉시 및 강릉시교육청 건축직 공 무원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 경남건축사회, 회원단합 등반대회

경남건축사회에서는 지난 5월 1일(로) 60여명의 회원(부부동반 포함)과 사무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합천군 소재 황매산에서 2004년회원단합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심신단련, 회원사의 단합을위해 작년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화창한 날씨속에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이날 행사를 빛내 주었으며, 쉽지 않은 신행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산행이 이뤄졌다. 이날 산행은 중촌 리-천황재-철쭉군락지-황매산성터-순결바위-국사당-영암사로 이어지는 코스로 약 5시간 가량 소요됐다. 경남건축사회 정응규 회장은 산행되 가진 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회원 서로간의 협력과 단합으로 한 명의 낙오자나 부상자도 없이 무사히 산행이 이루어 진 것에 감사드리며,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남건축사회 회원간의 결속 및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산행의 동반 대장은 최선기 건축사가 맡아 끝까지 회원의 안전과 완주를 책임졌다.



## 경남건축사회, 회원단합 낚시대회

경남건축사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토) 통영 시 소재 소매몰도에서 30여명의 회원 및 사무소 직원,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회원단합 낚시대화를 개최했다. 청명한 날씨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사의 단합 및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회원들간의 만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수평적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경남 통영 소매물도에서 개최됐다. 소매물도는 천해의 자연환경과 온갖 형상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성으로 특히 남해안 청정해역에 위치한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풍부해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행사는평소 낚시를 즐기는 회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여 대어를 낚기 위한 강한 집념을 보이기도 했으며, 몇몇 회원들은 뱅어돔을 낚기도 해 낚시의 진수 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정응규 경남건축사회 회장은 "작년에는 잦은 비로 인해 낚시대화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맑아 행사가 차질 없이 치러진 것에 감사드리며, 이런 자리를 통해 좀 더 회원사의 결속과 친목도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 우리 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난 5월 7일 우리 협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5층 회의실에서 (가성)토론준비위원회 주관하에 '협회의 위원회 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양순 홍보 · 편찬위원장의 '제도적 측면에서 본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홍명식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의 '청년건축사가 활약할수 있는 위원회 구축', 김항년 협회발전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 그리고 김석환 건축위원회 위원의 '협회 작능성발휘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는 박종철 법제위원회

위원, 백민석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민규암 국제 위원회 위원, 조원용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이 참 여했다. 좌장은 조충기 법제도개선기획단 위원 이 맡았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강석후 청년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임두기 법제위원회 위원이 진행을 맡아 우리 협회 전 고문들을 비롯한 이 사, 지방회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띤 자유토 론이 벌어져 시종일관 협회발전과 건축현안에 대한 진지한 발언들이 오고갔다.(122쪽 참조)

## 2004년 건축사자격시험 공고

오는 9월 12일(일)

오는 9월 12일(일) 오전 09시부터 19시까지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단,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본협회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실시한다. 시험장소는 8월 25일 본협회와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130쪽 참조)

## 한규봉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복 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당선



한규봉(주)천일건축엔 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 전임 감리협회 회장)회원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 교육연수 원 대강당에서 있은 국제

라이온스협회 제28회 354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 강준규회원, 강남구 의원 당선



강준규((주)이건건축 / 50) 화원이 강남구의원 에 당선됐다. 지난 6 월 5일 있었던 '6 · 5 재 · 보궐 선거'에서 개 포3동의원에 당선된 강

회원은 앞으로 2년 동안 강남구 행정의 파수꾼으로 활약하게 된다.

##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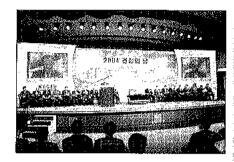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소세무 정보 :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소상담 시례 : 회계 및 세무에 태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산내용은 당해 질의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산내용을 통보해준다.

## 건축계소식\_ archi-net

## [2004 건설의 날, 행사 개최 유공자 111명에 포상



2004 건설의 날 행사가 대한건설단체총연합 회(회장 마형렬) 주관으로 6월 18일 오후 3사에 건설회관에서 이헌재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우리협회 이세훈 회장과 건축, 건설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관련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한 111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우리협회에서는 구윤회(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회원이 당탑산업훈장, 송수구(건축사사무소)회원과 박충명(성환건축사사무소)회원과 박충명(성환건축사사무소)회원이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대한주택공사, 제8회 대학생 주택건축 대전 개최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 주거지에 활용가능한 도심형 주거단지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가로와 어우러진 집합주거단지」를 주제로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 및 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8회 대학생 주택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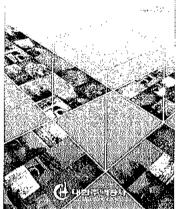
문의: 031-738-4157 www.jugong.co.kr

- 공모주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한 도시 속의 생활공간 만들기
  - 「도시가로와 어우러진 집합주거단지」
- 대상부자: 가상의 집합주거단지
- 참가자격: 국내 2년제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한팀 3인이내)
- 참가신청: 2004, 6, 21,~7, 9.
- 작품접수: 2004, 8, 18,~8, 20,
- 코디네이터: 감도년(성균관대학교 교수)

↑ #### Extensions | 오성속의 성항공간 판음기

## 제8회 대학생 주택건축 대전

\* 374 0 760 6 05 - 0 10 \* COA 4 66 256 2 16 - 3 70 \* COA 4 66 256 2 16 16 25 25 25



## 제2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3회 대한민 국건축대전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으로 하되, 이번 건축대전 주제인 '지속성(持續性)'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주제는 변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문제의식과 그 액을 같이하고 있으며, 윤리적 강조 및 생태건축에 참 착된 국제적인 건축상황을 인식하여 이 시대 한 국건축의 정체성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의 도에서 선정됐다.

- 주제: 지속성

- 작품접수: 1차-9월 3일(협회 사무국), 2차-11월 15일(예술의 전당)
- 작품내용: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
- 원서신청: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심사위원: 승효상, 김낙중, 임채진, 정진국, 김원식, 장윤규, 최재희

## 제22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서울 시나라오(Seoul scenarios)
- 응모자격: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1팀 3인 이하)
- 신청기간: 2004년 8월 10일까지
- 작품접수: 2004년 9월 14일 오후 5시
- 심사: 2004년 9월 21일~9월 30일
- 심사위원: MVRDV
- 문의: 02-747-2892 www.space-prize.com

## <u>2004 태양에너지 건축설계 국제학생공</u> <u>모전</u>

한국태양에너지학화에서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의 고취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건축설계기법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하여 1990년부터 학생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 태평양 태양에너지 국제학술대회 행사와 더불어 국제학생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모든 종류의 자연에너지가 전시되고 또 실제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건축공간을 제안함으로써 건축학도들이 환경친회적인 건축디자인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제: 태양열 과학 센터(Solar Science Center)
- 응모자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건축관련 학부 및 대학원 재 학생(개인 또는 3인 이하 공동출품 가능)

- 신청기간: 2004년 7월 31일까지
- 응모신청: 홈페이지 이용 접수
- 문의: 02-562-1557 solar,cric.or.kr

## 민건협, 여름건축강좌

흙과 건축

2004 민건협·민예총 여름 건축강좌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 과정을 개설된다. 이번 강좌는 '흙과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관정 에서 흙을 관찰하고 이해하여 흙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일정
- •6월 26일(제1강) : 흙 누리, 흙과 삶/신영오 (연세대 생물학과)
- 7월 3일(제2강) : 동양철학에서의 흥/김윤칠7월 10일(제3강) : 흥의 인상/장동광(일민미

술관 수석큐레이터)

- 7월 24일(제4강): 도심에서의 흙/김현수(건 설기술연구원)
- 7월 31일(제5강) : 훍 건축/강용상(좋은그릇 대표)
- 개강 : 2004년 6월 26일 오후 4시장소 : 민예총(건국빌딩 5층 1강의실)
- 문의 : 민예총 문예아카테미(02-739-6851) www.kpaf.org

## 제12회 MBC 건축박람회

제12회 MBC 건축박람회가 오는 8월 19일부 터 8월 2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자재 전 인테리어전, 가구전, 리모델링전, 전원주택 및 펜션신업전, 조명, 조경산업전, DIY산업전 등 이 펼쳐져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소개와 건축정 보에 대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문의: 동아전람 02-780-0366 www.dong-afairs.co.kr

## 2004 건원세미나

2004 건원세미나는 2003세미나의 주제에 이어 '도시 속의 건축, 도시 속의 주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시 속에 자리하는 건축의 모습과 주거단지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건축설계 및 단지설계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기획, 건원건축 B2 세미나실(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에서 오후 5시에 진행한다.

문의: 02-527-1585 www.kunwon.com

- 6월: 도시에서 커뮤니티 단위의 이해와 설계에의 적용/한광이(연세대학교)
- 7월: 주거단지의 생활도로계획/제해성(아주 대학교)
- 8월: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 축/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 9월: 역사도시 속의 집합주택계확-일본의 사례/안재락(경상대학교)
- 10월: 주거단지 내부의 도시적 공간-세계 각국의 길, 광장, 녹지, 공원 들여다보기/김 홍규(연세대학교)
- 11월: 도시조직의 개념변화와 블록형 집합 주택의 적용 가능성/손세관(중앙대학교)

# **2004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탐방**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본 구마모토 아트플리스팀방 행사가 6월 1 일부터 8월 3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일본 구마모토 현내를 무대로 풍부한 자연과 역사, 풍토를 살려 나가면서후세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뛰어난건조물을 창조해 나가고, 현민들의 도시문화, 건축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역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구마모토현의 독자적인 풍부한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협찬하고 월간 공간, 월간 플러스, 월간 건축문화가 후원하고 있다.

- 행사기간: 2004년 6월 1일~2004년 8월 30일(6회)
- 인 원: 각 일자별 선착순에 한함(최소 출발인원은 20명 이상)
- -- 호 텔: 2인 1실
- 금 액: 650,000원
- 일 정: 3박 4일
  - +1회 / 6월 29일~7월 2일 / 40명
  - 2회 / 7월 6일~7월 9일 / 40명
  - 3회 / 7월 13일~7월 16일 / 40명
  - 4회 / 7월 20일~7월 23일 / 40명
  - 5회 / 8월 17일~8월 20일 / 40명
  - 6회 / 8월 24일~8월 27일 / 40명

문의: 구마모토현 건축과 아트폴리스사무국 (서울홍보사무소) (주)인터내셔날커뮤니케이션(02-737-1122)

www.japanpr.com

## 국제학생전시회 개최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 주제로

UIA의 International WorkProgram에서는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라는 주제로 국제학생전시회를 개최한다. 2005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UIA 총회 중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주제는 "Environmental Architecture & Sustainable Town — Environmental Friendly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이며, UIA 그리스 지부에서 주최한다.

- 제출서류: 포스터(A3 사이즈 1장), CD 1 장, 언어(영어)
- 일정

· 등록 및 문의사항: 2004, 7, 15

• 제출마감 : 2005, 1, 15

• 수상작 전시 : 2005, 7, 4~11

- 문의 및 제출:

Http://www.arch.ntua.gr/Ares email: env-uia@arch.ntua.gr

fax: +30 210 772 3592

## 제39회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공모전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Asia Front Village)' 주제로

1966년부터 일본의 센트럴 유리주식회사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잡지인 '신건축'은 매년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1976년부터 해외 참가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국제공모전이 되었다. 적절하계반영된 세계적 관점이 매년 공모전의 주제로 선택되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20 세기의 주목할 만한 주제로서 21세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는 기후, 자연지형, 역사 등에 의해 형성되며, 세계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한다. 21세기에 고유하게 전해내려 온 문화의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그 가치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고,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보다 많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심사는 토요 이토, 오카모토 마사루, 구마 켄 : 코 등이 참여하며, 코디네이터는 비바 쇼조가 맡게 된다. 접수는 7월 26일까지.

참조: www.cgco.co.jp/english/glass\_\_

house html

## 이호진 건국대 건축대학 교수 정년기념 건축전 개최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우리나라 건축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후학양성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신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이호진 교수가 지난 30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건축작가로서 활동한 작품들과 건축학자로서 걸어온 길을 정리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한가람 미술관 4전시실에서 「喜齊 이호진교수 정년기념 건축전」을 개최했다. 이호진 교수는 그동안 왕성한 저술활동과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주요작품으로는 국방부청사, 건국대학교 마스터 플랜, 학교건축, 교회건축, 오피스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이 교수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문의: 02~456~9442

## 대도벽돌 신제품 「헬시몰」 출시

(주)대도벽돌은 바닥과 벽, 천장 등에 벽지를 바르기 전에 쓰였던 기존의 시멘트와 모래반죽 의 마감재 대신 천연재료로 꾸성된 「헬시몰」을 개발하였다. 「헬시몰」은 충북 충주 광산에서 대 도가 직접 채굴한 맥반석과 게르마늄 등 여러 혼합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 도와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줄였다. 문의: 02-543-0092

## 000소장을 000건축사로 부릅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등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답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부산광익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교광지덕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 (02)684-5845 - 동부자덕건축사회/(031)563-2357 - 부천지덕건축사회/(031)756-5345 - 수원기억건축사회/(031)756-5445 - 수원기억건축사회/(031)241-7957~ 8 - 사용지덕건축사회/(031)318-6713 - 안신건축사회/(031)49-9130 - 안원지연건축사회/(331)449-2658 - 무부지역건축사회/(331)31-75-6455 - 미추지역건축사회/(331)31-74-241031)635-645 - 피주지역건축사회/(031)31-74103 - 공략자역건축사회/(331)31-74103 - 공략자역건축사회/(331)31-74103 - 유민지역건축사회/(331)31-74103 - 유민지역건축사회/(331)31-75-6648 - 유민지역건축사회/(031)336-

■ 강원도건축시회/(033)254·2442

0140 - 왕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공통사업건축사회(033)652-0126 - 삼착지역건축사회 《033)551-8708 - 속초시역건축사회《033)551-8708 - 영 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 《033)748-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숙시회/(043)223-3084~6

설주시약건축사회/(043)223-3094 - 목천지역건축사회 (043)732-5752 - 재천지역건축사회(043)646-3588 -총주지역건축사회((043)851-1687 - 음설지역건축사회 (043)873-0160

■ 출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자약건축사회/(041)854-3355 - 보딩지역건축사회 /(041)934-3367 - 백제시역건축사회/(041)895-2217 -서산시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 /(041)551-4551 - 충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당원지역건축사회 /(083)631-2223 - 옥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육포지역건축사회/(061)272 · 3349 · 순천자역건축사회 /(061)743 2457 · 여수지약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장산자의건축사회/1053)812-6721 · 경우자역건육사회 /(061)726-6877~8 · 구마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자역건축사회/(054)432 · 6688 · 문경지막 건축사회/(054)565-1412 · 성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536-0244 · 영주자역건축 사회/(054)536 · 6586 · 영전자역건축사회/(054)334-8256 · 참극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 사회/(054)244 · 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개체시의건축사회(055)635-6870 - 개조지역건축사회 /(055)8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 정치역건축사회/(055)245-3727 - 발임지역건축사회 /(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 산시건축사회/(055)3384-3050 - 신주지역건축사회 /(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몽 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풍시역건축사회 /(050)883-4612

■ 체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사람포지역건축사회/(064)783-5501

## 건축공사 · 감리실무-구체편

이 책은 건축사법의 정의에 의해 그 업무의 성격과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감리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공사관련자인 건축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시공자, 4자간의 상호관계의 역할 및 업무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체편과 마감편을 나누어 먼저 구체편을 발간하였으며, 법률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의 범위를 가름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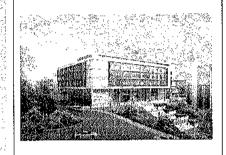
## 생활의 건축

이 책은 대학 건축과 입학 4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건축인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공 논문이 아닌 학회지, 월간 건축지 등에 게재되었던 건축관련 내용과 모임축사, 격려사 등과 그간 작업하였던 성당, 학교건축 및 기타공공시설작품들로 간략한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건축 전공 교수로서, 건축가로서의 건축인생 40년의 회교와 그 시간의 소중함을 위한 앞으로의 준비 마음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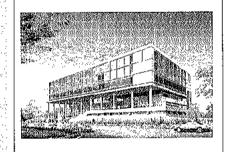
바로 잡습니다 =

※ 지난호(5월호) 120쪽 현상설계 중 「건국대학교 서울캠 며스 제2시회과학관,우수작의 내용이 「건국대 산학협동 관,자료가 잘못 개재됐음을 밝합니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제2사회과학관,우수작/무영건촉



「건국대 산학협동관」/무영건축



※ 지난호(5월호) 91쪽 기고 「브라질 고층시우소 건축에 사용한 고성능 유색콘크리트」내용 중 단위가 빠져 있어 바로 잡습니다.

91쪽: 약1250kg/m², 162m 높이에 42층 건물의 연면적은 52,000㎡이다.

92쪽: 브라질콘크리트의 배경

브라질은 100m이상의 높은 건물, 가장 높은 106m 이 오명하

제일 높은 189m의 콘크리트 사우소.

e-타워의 설계와 건설조건

e-타워는 폭 17m, 길이 28m, 깊이 2.8m 큐모의,

0.42m²이하의 콘크리트 재료

3,02kg/m²의 말도와, 2,67kg/m²의 밀도와

HPCC의 혼합비율

약 150㎡가 초요되는 것에 비하여 1,5㎡의 HPCC쁥

# 건축공사 감리실무



이종엽 지음 / 619쪽 / 35,000원 / 기분당 발행(02-2295-6171)



정무웅 지움 / 266쪽 / 15,000원 / 기문당 발행02~ 2295~6171)



전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98 청량리파출소 100 북아현동복지관 102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 108

부산지방보훈청사 [14

## <u>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u>

Daegu-Gyungbuk Branch HQ,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당선작 /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 성진용 · 이승연) + 진영건축사사무소(전병서)

대지위치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45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회구역(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

대지면적 6,735,70㎡

건축면적 2,804,95m²

연면적 24,940,02m²

건폐율 41,64%

요. 저 콩 172.65%

주차대수 290대 (지상 14대, 지하 276대, 장에인용 6대, 버스 2대 포함)

규 모 지하 4층, 지상 12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mm로이복총유리, 우드패널, 알루 미늄판패널

설 계 팀 박기성, 박근우, 장순택, 정주찬, 임태영, 김대홍, 김하영, 장명석, 안현성, 정병용, 신재영, 김종수, 김봉진 트임



GITHERI Des south in the Dates

'트임'은 '열림'의 의미보다 적극적이며, 가서 성의 강화를 내포한다. 주변의 저층주거군에서 의 가시성을 고려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끄는 녹지/테마공원에서 저층부의 주민편의시설까지 이어지는 개방성을 트임으로 규정하였다.



## 트임 1.

사무공간인 고층부의 부양은 저층부와의 격리가 아닌 수직적 전이공간의 마련이며, Sky Garden의 조성으로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구조는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속성을 떠 나 건축미로 승화되는 Tectonic적 요소를 포함 한다. 최상층부의 철골트러스는 고층부의 하중 율 잡아주고, 그 자체로 역학적 긴장감을 주는 미적 요소가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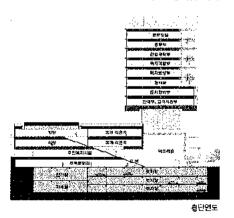
## 트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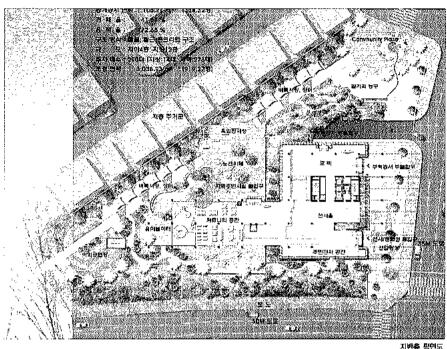
배치에서 고층부는 시각적 차폐와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거군과 이격하였고 이 격된 공간은 문화적 성격의 테마공원으로 채워 놓았다. 건축물이 자기중심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닌 주변과의 화합을 주도하는 커뮤니티의 장 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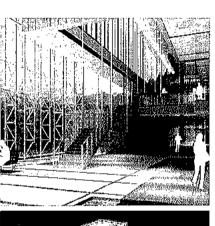
## 트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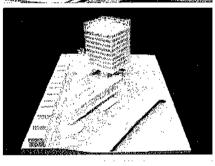
오피스는 2개층이 오픈된 휴게정원을 두어 시각 적 청량감과 식목으로 인한 실내공기를 자연정 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도 시경관 측면에서 도시내의 녹사율을 높이는 역 할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트임'의 의도는 인간(주민)과 인간(근무 자), 자연과 인간, 도서와 건축물 사이를 막힘 없 이 트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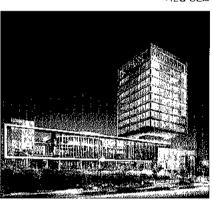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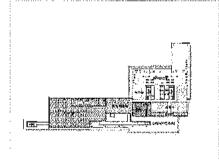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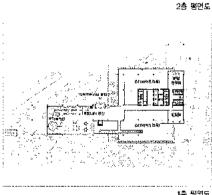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 청량리 파출소

Cheongnyangni Police Box

## 당선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두인(최오용)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청당리동 2-4번지와 1필지 자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대지면적 718m² 건축면적 347,78m²

연면적 835.76㎡

건 폐 율 48,44%

용적률 106.89%

구 조 철근콘플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7대 (장애인용 및 소방차량 포함)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정토벽돌 치장쌓기, 목 재루버, THK24 복충유리

설계팀 최오용, 김선국, 공경옥

**협력업체** (주)광장구조, (주)송정엔지니어링, (주)엘림

컨설턴트 (주)디지털코어

언제라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축물 중의 하나가 바로 관공서 건물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을 계획하는 건축가들의 염 원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시 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 닐까 한다.

처음 접해본 계획부지는 무척이나 작고도 아담했다. 게다가 그 형상 또한 삼각형의 모양새로 참으로 해법을 만들기에 수월치 않아 보였다.

기능을 풀어 가면서, 그러한 대지의 한계를 극복해 가는 묘한 즐거움을 맛보는 기쁨을 누릴수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거의모범답안처럼 평면이 정리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한 해법은 비단 나만의 모습은아닐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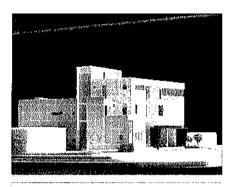
결국은 입면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게 되면서 어떠한 방향의 이미지 부각을 선택해야 할지를 흥고 고심하게 되었다. 그리곤 좀더 따뜻하고 푸근한 유기적 건축물로의 계획을 시도하였다. 주요한 재료는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돌과 콘크리트, 그리고 목재와 같이 따뜻한 느낌의 것을 적절히 사용하여 친밀감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공간이 서로 교차되고 관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관공서 건축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수의 발코니를 형성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중정과 휴식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환기와 채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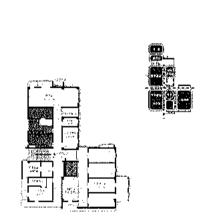
그 외에 소방차고 후면으로 마당의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 야드를 배치하였으며, 배면의 수 관세적 및 건조장과의 자연스런 연계를 도모하였고, 후정의 휴식 및 녹지공간과 옥상정원과의 입체적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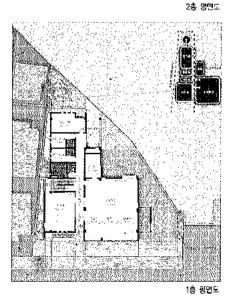
어떠한 재난과 재해에서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필사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공공업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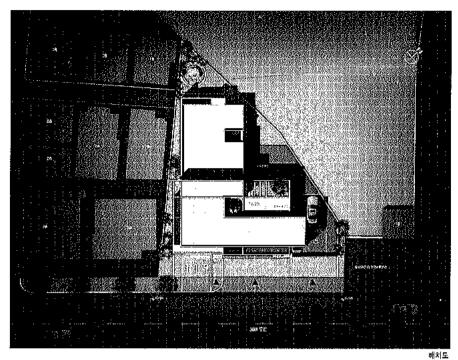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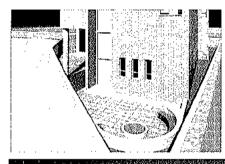
인 동대문 소방파출소가 공공성과 기능성, 고리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존의 경직된 관제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밀감이 있고 안정감을 갖게되는 하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며, 아울러 도시풍경을 구성하는 공간적조형물로서 지역주민의 따뜻한 관청으로 명확히 자리매감 되기를 기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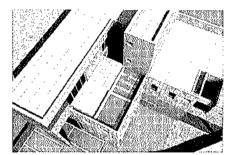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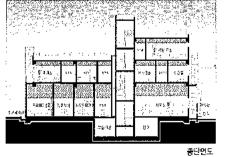














남촉면도

북아현동 복지관 Bugahyeon-dong Community Welfare Center

## 당선작 / (주)범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최광수)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129-34의 3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 동사무소 복지시설

대지면적 1,256,80m<sup>2</sup>

건축면적 630,75m²

면 적 3,167,87m²

건폐율 50,19%

171,38%

조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23대(법정 : 15대)

외부마감 외벽 : 압출 성형 시멘트판, T0,8갈라륨

강판, 컬러 알루미늄 패널

창호 : T18 컬러 복층유리

설계 팀 계획:이규복

임경배, 이진희, 선은지

### 기본계획 방향

## 계획의 전제

- •노후 및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만원봉사 수준향상
- 만원편의시설 확충 및 직원근무여건 개선
- •지역 장애인들의 균형적 복지수혜와 지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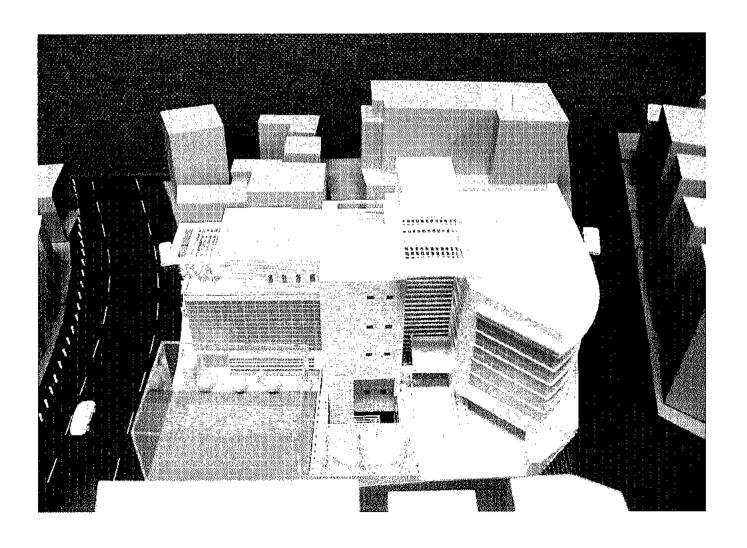
## 계획의 방침

- 계획의 합리성
- 동청사, 주민자치센타 및 복지관 각각의 독립성 을 갖는 공간구성과 동선체계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자연스런 접근유도
- 쾌적한 내·외부 환경과 친밀감 있는 공간계획
- •작품의 독창성
- 지역사회의 랜드마크(Land Mark)로서의 상징성

- 미래 지향적 이미지 상징화
- -- 주변환경과 친밀한 이미지표현
- 경제성 고려
- 기시공된 흙막이 CIP를 이용한 지하층계획 및 후면부 고저차 이용한 토공량 최소화
-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한 계획
- 안전한 사공기술의 도입 및 내구성 있는 재료선택
- 에너지 절약형 건물

## 대지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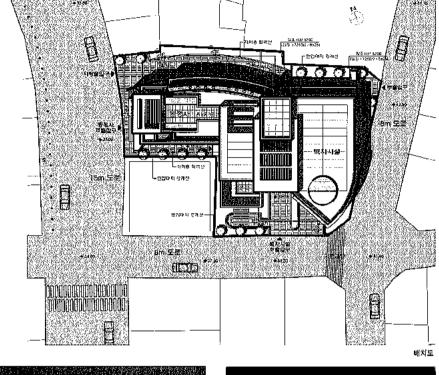
- 신촌로, 지하철2호선 아현역에 근접하여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 주변이 주택군으로 동청사 및 복지관 건립취지 에 적합
- 전면 15m도로, 우측과 후면 8m 도로와 접하나 고저차가 심한 경사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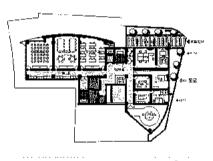


- 우측도로와 후면도로는 교차부분이 계단으로된 도로로 차량이동이 불가함
- •북측의 인접대지는 당대지 보다 높아 고저차를 이용한 일조사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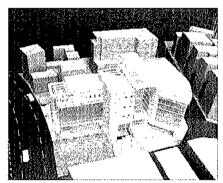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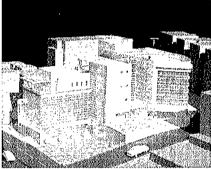
- •주어진 대지조건에 순응하고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 •동청사와 복지관 주출입구 완전분리한 독립성 확보
- 신촌로, 지하철2호선 아현역으로부터 연결되는 전면 15m도로 동청사 전면성 배치
- •고저차 이용한 3면도로에서 건물 접근 용이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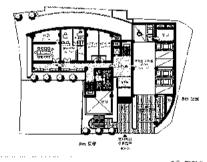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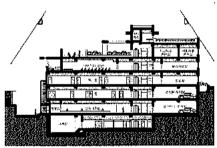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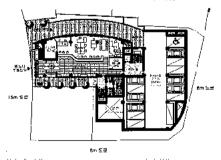








횡단면도



1**층** 평면도





남╇면도

# 新心器後 胃本科

D. galay-son dong Communist Moham Comm

우수작 / 단이건축사사무소 (조미석 · 조중현)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 129-34, -37, -63, -86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256.80m²

건축면적 689.51㎡

면면적 3,133,44㎡

건폐율 54.86%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조 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계획:14대(장애인용 4대 포함), 법정:14대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T24로이유리, 노출콘크 리트

## 기본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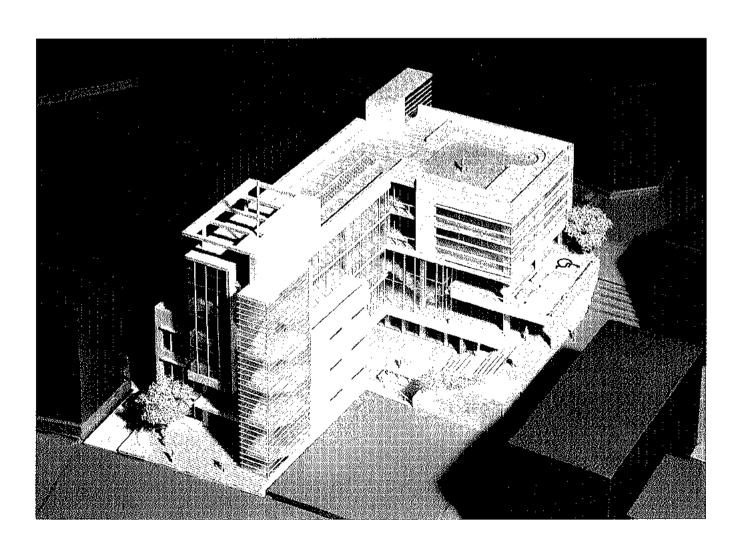
- 노후 및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
-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
- 주민 문화공간 확대
- 지역 장애인들의 균형적 복지 수혜와 지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들의 연대감 조성 을 통한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

## 대지현황분석

- 대지위치
- 아현역으로부터 추계예술대학 방향으로 200M 이격
- 대지 서측으로 한성 중고교 진입로와 면하고 있 으며 본 대지옆에 기업은행이 위치함으로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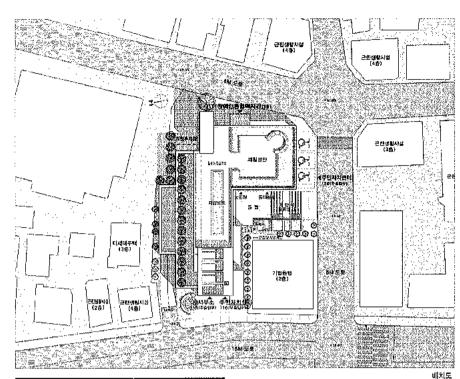
역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성격이 잘 부각될 수 있 는 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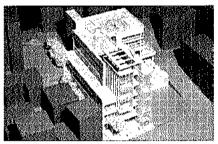
- 주변현황
- 대저의 3면이 도로에 면하므로 각 도로로부터 각시설간 별도의 출입구 계획가능
- 대지북측으로 주택(다세대, 아파트)이 위치함으 로 주택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디자인 필요
- 부지모서리 기업은행을 고려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 계획 필요
- 대지남측 도로는 동측도로와 급격한 레벨차이로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 상호간 차량통행 불가
- 향과 조망체계
- 대지의 장변이 남향에 면하고 있으나 남측에 기 업은행 지점건물이 접하고 있어 기업은행 건물 후면은 자연채광이 덮 필요한 코이를 배치하는



## 것이 바람직함.

- 도로가 협소하고 주변의 공자가 적은 관계로 건물 저충부의 조망조건은 양호하지 못할 것이므로 대지 내부에 중정과 같은 OPEN SPACE를만들어 아늑한 조앙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옥상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하늘정원을 만들어 휴식과 자연을 접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접근
- -- 공공성이 강한 동사무소는 전면도로인 15M도 로로부터 접근을 유도하며
- 특정인들의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은 이면 도로인 8M도로로부터 접근을 유도하여
- 각각의 시설간 독립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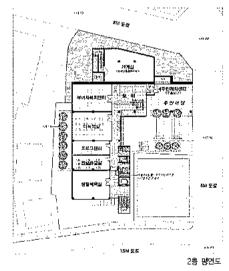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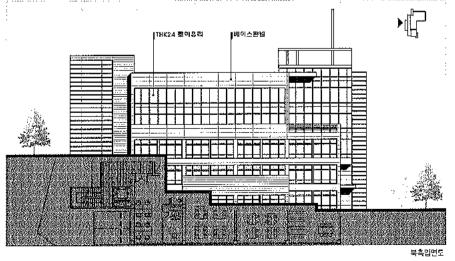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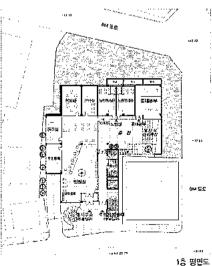












## 舞り巻巻 岩川県

Duyshyeon dong Community Wolfare Oction

## 가작 / (주)유일건축사사무소(임해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9-37호 이 2015년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252,74m²

-11-12-1 1-0-1

건축면적 563,38m² 연면적 2,194,45m²

건폐물 44.9<del>8</del>%

요 저 로 17618%

규 및 동사무소 지상5층, 복자관 지하2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계획: 14대 (장애인용 2대포함)

법정 : 13대

외부마감 고밀도목재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설 계 팀 김영길, 장현민, 임기택, 노현진, 김용대,

이완건

## 계획의 주안점

- 마<del>을</del>길의 형성
- 통선의 유입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
- 사통팔달의 접근성
- 자연지형의 활용
- 자연요소의 도입
- 자연채광 및 환기 극대화, 수목의 도입
- 자연지형에 순용하는 SKY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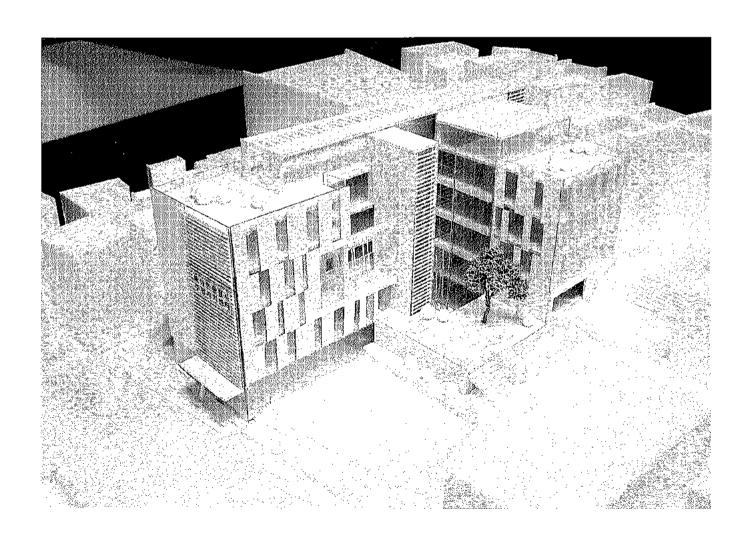
#### 배치계획

- 사통팔달 접근성
- 3면이 도로에 접한 대지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 한 접근성
- 동사무소와 복지관의 독립된 동선분리를 위한 배치
- 외부공간계획
- 남측에 마을마당을 설치하여 주민과 이용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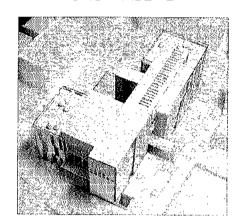
- 의 휴계공간 및 쉼터역할을 하여 커뮤니티 활성 화하며 내부공간과의 연계
- 옥상층에 정원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을 설치하 여 직원 및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마련
- 조경계획
- 구목(소나무) 및 구화(장미)를 식재하여 공공시 설의 상징성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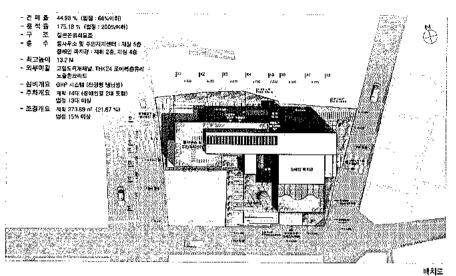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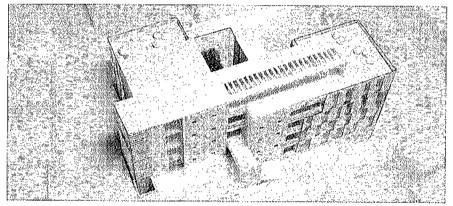
- •독립코어
- 복합된 기능의 건물로서 혼잡하지 않고 독립적 운영을 위한 동선분리 및 독립코어형성
- 다양한 접근성
- 대지의 고저치를 이용한 다양한 출입구의 형성으로 인한 다양한 접근성 및 동선분리
- 아트리움 및 공중정원의 도입
-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채광 및 환기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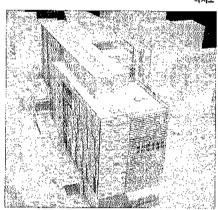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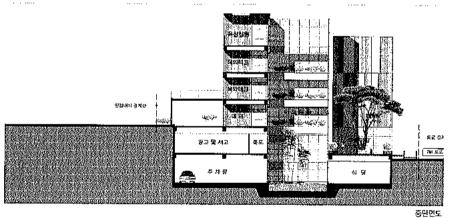
- ~ 공중정원 설치로 수목의 도입 친환경 이미지
- 옥외데크 등 다양한 매개공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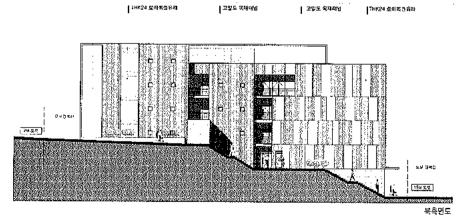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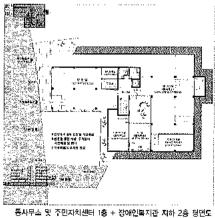












• 107

##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

Seodaemun-gu, Lee Jin-Ah Memorial Library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연(한형우)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현, 독립문 문화의 집 부지로서 독립공원 부지내 일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사운화미관지구

건축면적 455m

연면적 2631㎡

규 모 지하 1층, 제상 4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점토벽돌, 적삼목 위 오일스테인, T24투명, 반투명 복총유리

조 경 잔디식재와 점토벽돌을 이용한 공원 바닥 조경, 건물내 중정 및 옥상조경

설계 팀 김현이, 백지원, 이외행, 정승복, 김수진, 이치훈, 김성욱, 박성신

### 기본 개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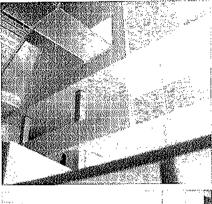
구 서대문 형무소의 축과 주변 인왕산 정상의 방향을 기준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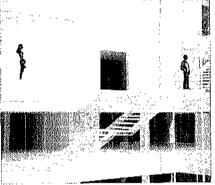
그리하여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형무소의 길게 뻗어있는 "벽"과의 긴장감을 강하게 유지하고 통시에 인왕산과 서대문 구형무소의 경관을 형무소의 병과 함께 좁고 긴 내부의 중앙홀로 유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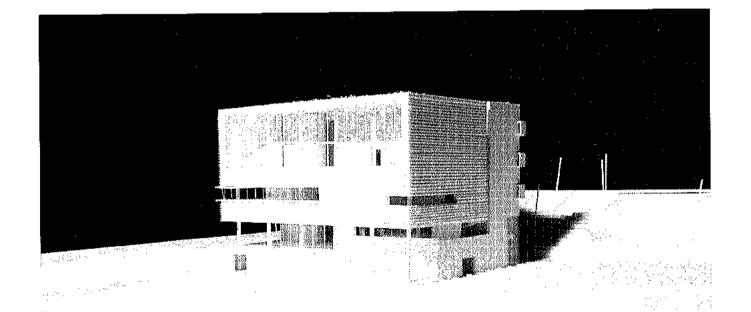
## 공간구조

도서관의 공간구조를 안접한 구 서대문 형무소의 공간에서 유추하였다.

감옥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에 충실했던 공간은 역으로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의 구조로 변이된다. 변이된 공간은 중앙홀에서 의 시각적인 경관에 한층 긴장감을 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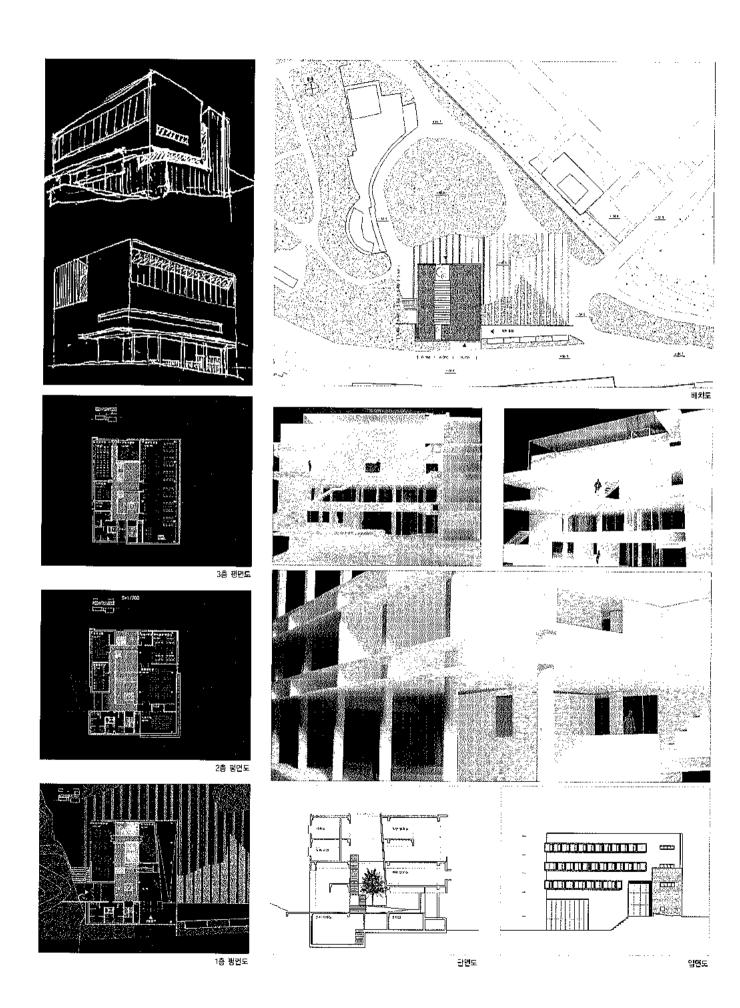






• 108

xorean architect june 2004



## 서다운구 이전이기원도서관 Sexthormin-gui Les Jin-An Wembrita Libbary

## 당선작 / (주)가와종합건축시시무소(최삼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재통 101

지역지구 자연독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대지면적 103,576,10m²

건축면적 578,06㎡

연면적 2,535.54m²

건 폐 율 0.56% (법정 20%)

용 적 률 1.91% (법정 5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20 복층유리

설계 팀 변정석, 조만재

모형 : 꿘오열, 송가중, 이진효

## 기본계획방향

## 계획의 전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는 기부자의 소 망을 반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만 을 위한 도서관 및 문화복자관으로 서대문구 지 역공통체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 계획의 개념 및 제안

이 계획안은 독립공원내 위치하여 역사적의미를 한층 더해 주는 장소가 가진 특수한 시간적, 공 간적 조건에 부합하여 그것을 담을 장소, 공간들 의 무란한 가능성을 위하여 열려져 있어야 한다.

## 기능의 분리와 자연스런 동선연결

어린어 열람실·일반열람실 및 주민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서 홀을 중심으로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충별 분리하면서 브릿지를 통한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한다.

## 기존 독립공원의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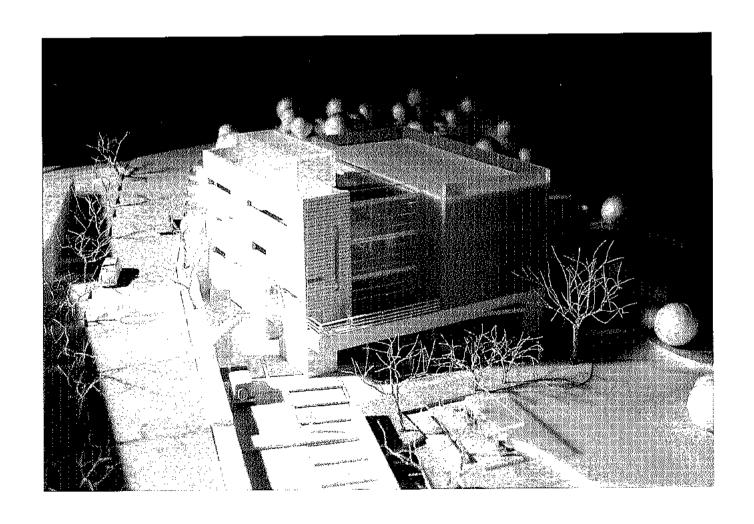
독립공원내 위치한 부지가 갖는 의미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 문회복자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안한다.

### 만남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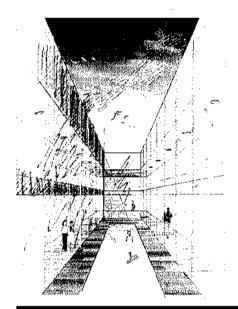
아파트 밀접지역과 독립공원의 경계점에 위치하여 인공에서 자연으로의 자연스런 접근과 그곳에 의도된 행위, 의도되지 않은 잠재적 행위들의 유발 가능성을 가지게 하며, 햇빛, 바람, 하늘로 열려져 있는 삭막한 도시생활에 잊혀져가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의 핵심으로 자리매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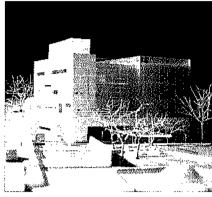
### 이미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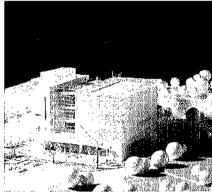
부지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고려한 재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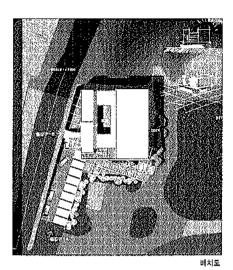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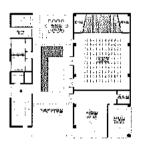
선정하여 강직함, 투명함을 부여하여 미래를 여는 희망찬 모습을 담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칭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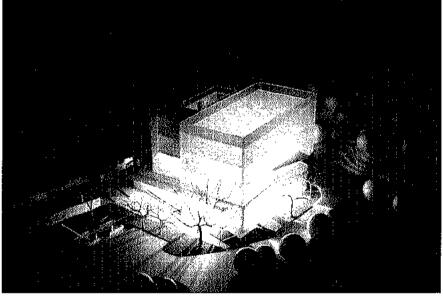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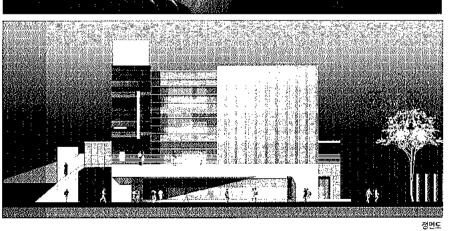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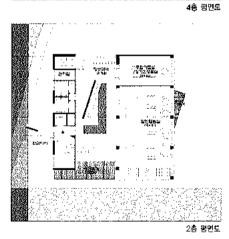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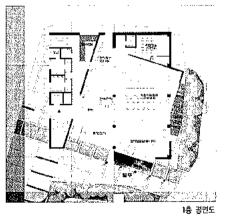












## 사비문구 이전야기를도사관

Seodaemun-gu. Lea Jin-Ah Memorkal Library

## 가작 / CODA 건축사사무소(황건순 · 김봉수)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자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독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용 도 교육 및 연구시설

대자면적 861,00㎡ (전체대지면적 : 103,576,10㎡)

건축면적 563,06m²

연면적 2,627,82m²

건 폐 율 4,21%

용적률 7,48%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9태

외부마감 화강석, 로이복층유리

설 계 팀 김홍연, 김상훈, 김효숙, 강향래

## - 대지와 주변 환경

차기와지는 초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찾아간 대지는 서대문독립공원내 후면부에 위치하며, 남서축은 고층아파트군에 막혀있어 겨울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거의 사각형태의 대지였다. 좌측의 약 10M도로는 대지보다 높게 경사져 올라가는 형태였다.

## - 상징성

기념도서관으로서 어떻게 상징성을 줄 것인가? 평면형태에서부터 상징성을 주고 싶었다. 한참의 고민 끝에 독립 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서 독 립문 형태의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채광성이 좋은 중정형으로 평면 배치를 시작하였다.

### –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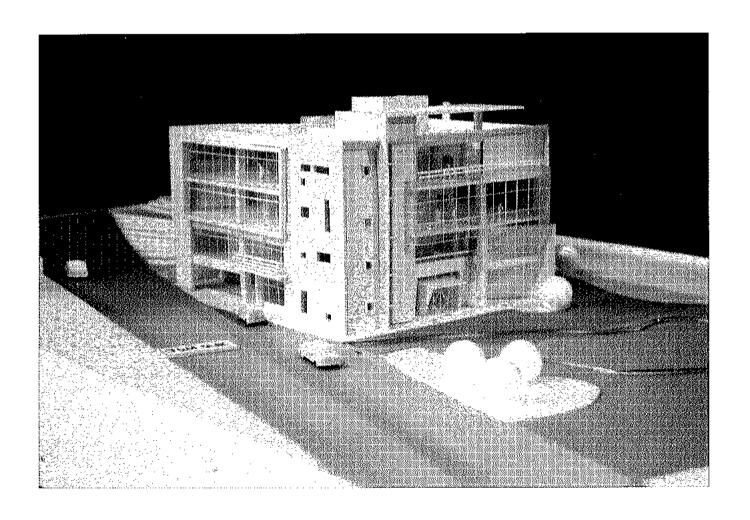
지침에 따르면 기존부지에 있는 독립문 문화의 집 기능과 도서관 기능이 함께 계획되어야 했다. 그래서 가능한 문화의 집 기능과 순수 도서관 기능을 구분하여 조당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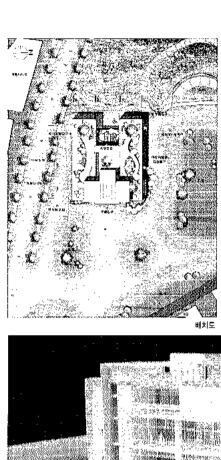
기존의 문화교실 기능을 1, 2층과 지하층에, 순수 도서관 기능을 3, 4층에 계획하여 조닝하였고, 중정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하층에도 충 분한 자연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또, 층별 로 충분한 휴게공간 및 다목적공간을 계획하여 추후 증축이 용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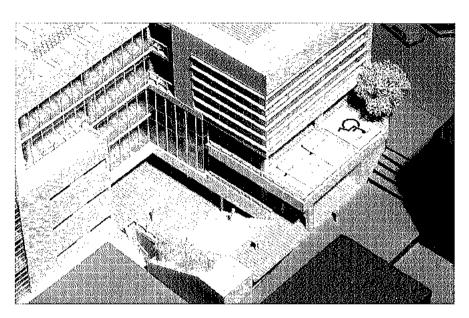
### - 입면디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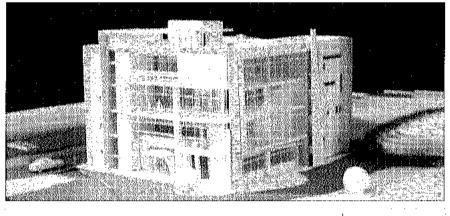
기념도서관으로서 기념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면 서 친근한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적절한 매스분할, SOLID와 VOID의 분배, 부분적인 사선도입,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 및 휴먼스케일을 적용하여 친근감 있게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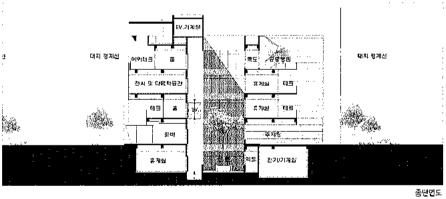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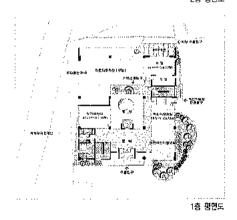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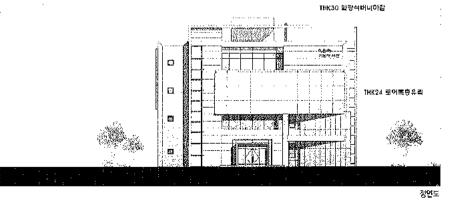














지하층 평먼도

# 부산지방보훈청사

Busan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 당선작 / 디아키건축사사무소(정철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4-11번지

대지면적 2,689,30m²

건축면적 891,60m²

연면적 3,646.37m²

건폐율 33.15%

용적률 107,21%

규 모 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부분철골조

외부마감 점토짚 벽돌치장쌓기 / 실리콘 수지플라스 터 / 18mm 저반사 복층유리

설 계 팀 이학용, 김동육, 이동경, 이옥주, 이성태,

대지는 현 부산지방 보훈청사가 위치한 부지로 부산의 상업 및 업무시설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항 쪽으로 조망이 열려진 동쪽 면 외 에는 대지주변으로 중, 고층 건물이 빼곡히 둘러 싸여있다. 좁은 인접도로 폭에 비해 많은 유동인 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대지의 주진입을 남서축도로의 교차점에서 이용하도록 계획하였 고 협소한 대지면적과 같은 대지안에서 신청사의 신축후 기존청사의 철거라는 건축주의 방침이 가 장큰 제약이었다. 이는 배치계획에 가장 큰 고려 사항이어서 전면의 진입광장을 둔 남향배치를 취 하게 되었다.

#### 계획목표

해양문화도시 부산의 역동적인 힘을 형상화하고 보훈이념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보훈기족의 편약 증전과 보다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 항양을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 보훈이념 상징

21세기 정보문화에 부응하는 보훈청사의 위상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는 모델로 제시한다.

#### 유기적 연계

해양도시 부산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도심의 컨텍 스트간의 상효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여 지역성 에 맞는 형태를 도출한다.

#### 기능

도시환경의 행정기반 구축으로 지역 도시간의 거 점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시설군의 기능과 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복합적 중심적인 공간을 만든다.

#### Positioning

- 주변대지를 고려한 업무시설과 지원시설의 배치
- 인지성과 접근성이 유리한 기로변에 출입구와 외부공간을 위치함



## Composition

- 기농간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조성
- 충혼탑을 상징적 오브제로 구성하고 외부공간 과의 활성화 유도

## Void Solid

- 건물의 비움과 채움을 수직적으로 활용하여 기능과 특성을 연계할수 있는 복합적, 다중적 공간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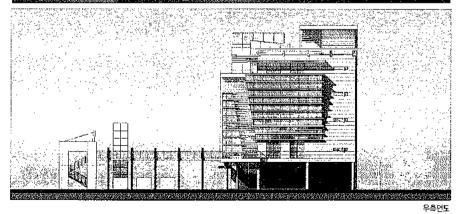
## Ope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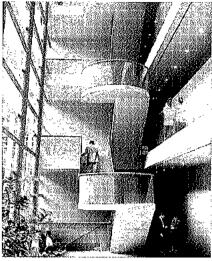
 도로에 면한 외부공간을 최대한 Open하여 개 방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정보교류의 장이 되 도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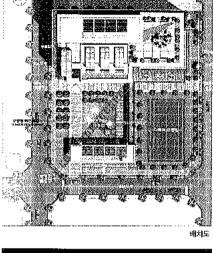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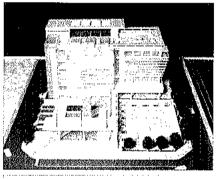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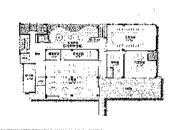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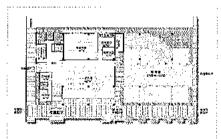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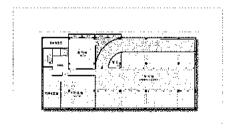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충 평면도



신건축

a+u

Architectural Review RIBA Journal

<u>신건축</u> 2004년 4월

이번 호의 표지는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뉴욕 점포가 장식했다. 꾸준히 루이뷔통의 점포를 디자인 해 온아오키 준의 뉴욕 버전인 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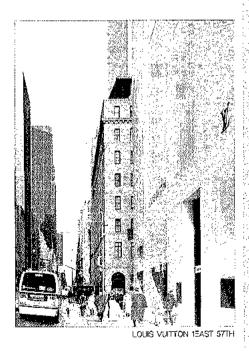
다. 이 외에 나온 셋케이(日本設計)와 KPF가 함께 설계한 나혼바사 잇쵸메(日本橋一丁目)빌딩, 쿠메 셋케이의 메이지대학 복합시설, 그리고 이소자키 아라타와 오노 요코가 협동 작업한 얼음 조각품 등 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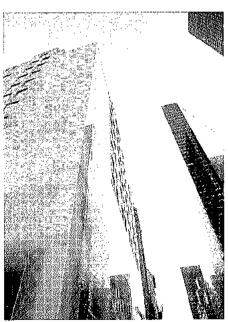
▶LOUIS VUITTON 1EAST 57TH - 아오키 준 건축계획사무소

이 건물은 그간 동경의 오모테산도, 나고야 등 일본에서 루이뷔통의 점포 디자인을 해 온 아오키 준이 뉴욕의 점포디자인을 수행한 것이다. 최근 루 이뷔통 점포의 디자인 하면 아오키 준의 디자인이 떠오롤 정도로 그의 디자인은 두각을 나타내었다. 아오키 준은 매장이 들어설 뉴욕은 단지 마천루의 도시일 뿐 아니라 중고미가 느껴지는 도시라고 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포가 들어서게 될 5번가는 가로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브랜 드 어머지만을 강조한 상업점포들로 인해 점차 본 래의 개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루이뷔통과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현재의 흐름 에 대항하여 기존에 5번가가 지니고 있던 중고미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 겠지만, 본래 프랑스의 브랜드인 루이뷔통이 단순 히 '프랑스'를 내세우기 보다는 점포가 들어서는 토지의 문맥에 커스터마이즈하는 전략을 갖고 있가 때문이며, 또한 9.11 테러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 디 자인은 2001년의 봄에 디자인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 9월에 테러가 일어났다. 테러가 일어난 후 방문 한 맨해튼은 마치 전혀 다른 거리와도 같았다. 그것 은 아마도 현실의 죽음을 목격한 후 모두 디즈니적 인 가공의 세계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현실의 죽 음을 앞에 두고 가공의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것 은 아니었으며, 살제로 '거기에 있는' 감각이 필요 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풍경을 다만 신선한 시각 으로 보는 것,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도시의 총체적 심리상황에 맞추어 선 백된 것이 거리의 본질로 회귀하자는 전략이었다.

존재감 있는 늠름한 건물이 필요했지만 바위산





LOUIS VUITTON TEAST 57TH

이 갖는 육중함은 피하고자 했다. 이 거리는 이 미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 눌려있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늠름함은 육중한 매스 그대로가 아니 라 물체의 물질성으로 추상화 되었다. 어름이나 수정이 갖는 아름답고 딱딱하지만 그림자를 드 리우지 않는 덩어리의 늠름함, 이와 같은 개념작 업을 통해 아오키 준과 루이뷔통은 휴 페리스 (Hugh Ferriss)가 이야기한 '수정(水晶)의 군(群) 으로서의 뉴욕 마천루'로 회귀하기로 한 것이다.

매장이 들어서게 될 '뉴욕 트러스트 컴퍼니 빌딩'은 휴 페리스에 의해 촉발된 건물이라 하 여도 결코 결작은 아니다. 빌딩의 머리부분과 그 아래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다. 즉 이것은 결정 들의 군집이 아니라 휴 페리스적인 머리 장식을 쓴 고전적 3단 구성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을 여러 매스들이 군집한 모양의 마천루로 바꾸 기 위해 건물의 모서리에 유리 커튼월을 부착하 였다. 이와 같은 기존 건물의 개수를 통하여 하 부로부터 분기하여 상부로 올라가는 코너부분의 모습을 만들어내었고, 휴 페리스의 마천루 모델 을 연상시키게 되었다.

유리 커튼월에는 아오키 준이 다른 루이뷔 통 매장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바둑판 무늬의 패턴이 들어갔다. 설계를 개시하면서 뉴욕에서 가능한 시공 레벨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강화 유리 특유의 뒤튤림, 현장시공의 상황 등의 어 려움을 확인하고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 실런트에 의한 SSG(스트럭쳐 실런트 그 레이징)구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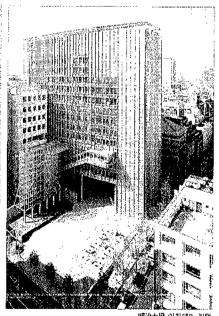
▶明治大學 아카데미 커먼(Academy Common) - 쿠메(久米)설계

가로(御路)로 열려진 도심형 캠퍼스 메이지대 학 아카데미 커먼은 대략 3개의 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3개의 시설은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과 리커런트 (recurrent)시설 등 생애교육의 장이 될 교실 수업, 학회, 강연회, 콘서트 등의 다목적으로 이 용되는 1200석 규모의 강당, 그리고 일반에게 개방되는 대학 박물관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가 다양한 세대, 분양의 사람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 이 되고, 대학의 거리인 神田駿河台지구라는 도

🖟 심 지역의 이점을 살린 「새로운 생애학습의 거 점」이 도리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한편 메이지대학의 캠퍼스 정비는 창립 120 주년기념사업의 하나인 A지구의 리버티타워가. 지구계획의 정비수법으로 선생 착수되어 완성되 어 있으며, B지구의 본 계획도 이 지구계획의 정비방침에 더하여 계획되었다. 이 지구계획의 포인트는 3~4m의 보도(步道)형 공지와 관통통 로를 확보하는 것과, 광장형의 공지를 확보하는 🎰 오노 요코와의 합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 것이었다. 이 광장형 공자는 駿河台의 새로운 얼 굴이 될 열려진 캠퍼스 광장으로서, 明大路에 면 하는 교통의 결절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 채택되었다. 이 광장은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과 지역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교감하는 메이지대학 駿河台캠퍼스의 하나의 코어가 될 것이다.

약 1,300평방미터의 과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설공통의 엔터런스를 1층에 설치하여 상층 부에 교육연구시설, 중층부에 강당, 그리고 지층 에 박물관을 적충하는 구성을 취했다. 교육연구 관련시설이 들어서는 상층부에는 빛과 바람의 길이 될 5개층에 달하는 오픈부를 두고, 교류 살롱이나 복도를 주변에 배치하여 이용자 상호 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장치로 삼았다. 강 당에는 부뜨러운 빛을 도입하여 그 빛이 외부로 흘러나가게 하여 외부와 호용하는 홀을 목표로 하였다. 건물의 전체적인 외피는 유리 커튼월로



처리하여 외부로 열려진, 도시와 교감하는 대학 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PENAL COLONY - 이소자키 아라타 + Yoko O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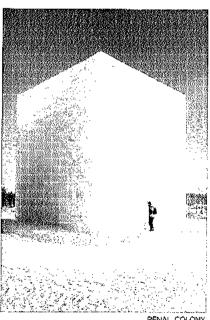
PENAL COLONY는 핀란드에서 개최된 「The Snow Show 2004」에서 만들어진 조형 물이다.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 이소자기 아니다 와 비틀죠의 존 레넌의 부인이기도 했던 예술가 음은 이 작품과 관련하여 2004년 3월에 이루어 진 이소자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인터뷰 - 오노 요코와 함께 만드는 것

저와 요코와는 40년지기입니다. 30년 정도 전에 저는 죤 레논에게 그녀를 위한 작은 프로 젝트를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스콧 에 그들의 빌라가 있어서, 그곳에 일본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비틀즈를 망가뜨렸다고 요코가 비난받아 마치 유배지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서부터 재료를 모두 실어왔습니다만, 죤은 영국 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최후를 맞아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륨의 감옥

이것은 어름의 감옥이다. 요코는 이전부터 이 테마로 작은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녀



의 작품을 알고 있기도 해서 감옥이라는 테마를 얼음을 소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코는 '한번 들어가면 여간해선 나오기 힘든 미로'와 같은 컨 셉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 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큐브 속 에 미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속에는 간신하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의 통로가 마련되고, 길을 찾아 가더라도 곧 멈춰서게 되며,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하늘을 처다보면 펼쳐지는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케치를 기반으로, 그녀가 작년 水戸예술관의 전람회를 기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대로 진행 하기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후 뉴욕으로 돌아 간 요코가 한 편의 시(詩)를 보내왔습니다. 그것 은 「PENAL COLONY 2004流刑場」라는 시였 습니다. 어름의 감옥에 이 시의 타이틀을 붙여 필 란드의 눈의 대지에 그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습 니다. 극한의 땅, 그 예날의 유형장은 지금에 와 선 정신의 유형장입니다. 그것이 녹아간다는 알 레고리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 a+u 2004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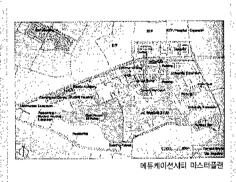
이번 호에 는 아라타이 소자키가 마 스터 퓰랜을 담당하고 각 건물의 설계 에 일본 건축 가물이 대거 참여한 카타 르의 에듀케



이션시티 시설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일본인 건 축가들의 오랜만의 본격적인 중똥지역 진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씨저 펠리 어소시에이츠가 설계 한 오오시카의 국립국제미술관 등이 소개되었다. 국립국제미술관은 이번 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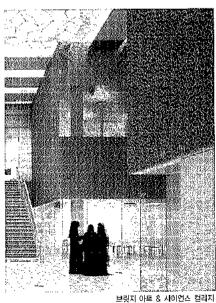
# ■카타르의 에듀케이션시티(마스터플랜-이소 자키 이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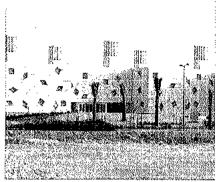
카타르는 중동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위치하 고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인구 60만의 소 국인 카타르는 국제화와 교육에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걸고 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마련된 에듀케이션시티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국왕의 부인이 직접 관장 <u>용</u> 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당초에는 주 니어스쿨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대학을 설립 하여 그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전체 부지도 220ha에서 780ha에 이르는 대학도시로 발전시 킬 계획이 서있다.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은 일본 의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가 담당했다. 캠퍼스 시설들은 이소자키를 비롯하여 코지마 카즈히로 와타나베 마코토와 키노시타 요코 등 일본인 건 축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비 일본인 건축가는 리카르도 레골레타 정도이다. 일본 건축가들로서 는 '미스터 단게(단계 겐죠)'이후 오랜만의 본격 적인 중동 진출인 셈이다. 에듀케이션시티는 각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부만을 유치하 는 독특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세계의 여러 대학이 학부단위로 이곳에 혼재되어 설치되는 것 이다. 최근에는 교양학부와 미국 코넬대학의 의 학부가 완공되어 오픈하였다.



▶ 브릿지 아트 & 사이언스 컬리지 - 코지마 카즈히로/ C+A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근교에 마련된 에듀케 이션시티에 세워진 교양학부와 브릿지(영어교육 의 과도적 과정)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위한 건 축이다. 카타르는 인구 약 60만의 작은 국가로서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지니고 있으나 1970년경까 지는 어촌과 같은 곳으로, 카타르 자체의 건축적 전통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 부지는 시가지 가 스프롤된 곳에 위치하지만 대규모의 캠퍼스용 지로서 그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계획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기준 은 아라타이소자키와 iNET에 의한 캠퍼스마스터 플랜이 전부였다. 따라서 주변의 컨텍스트는 부 지 인근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 에서 찾아졌으며, 결국 이슬람문화와 자연이라는 광범위한 배경을 염투에 두게 되었다. 구체적으 로는 이슬람을 내측에는 작은 파티오가 다수 존 재하는 도시공간의 부분과 같은 다중심적인 건축 으로 해석하였으며, 외부의 윈터파티오와 내부의 썸머파티오의 반복된 공간구성으로 건물전체를 구성하였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태양의 영향이 거의 전부라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양의 영향은 강력한 것 이었다. 직사광선을 막겨위해 더불 루프와 터블 월을 채용했다. 구름낀 날 조차 흔하지 않으므로 그 강렬한 광선을 어떻게 공간화할 것인가가 커 다란 테마가 되었다. 내부공간의 모든 썸머파티 오(FLA)는 천정면이 GRG로 된 반사판을 사용하 여 간접광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FLA의 교차부 에는 하지야 소피아 성당처럼 많은 수의 작은 스 타이라이트로부터 빚을 루버로 확산시킨다. 그림 자가 중첩된 공간을 걸어가는 체험은 무수한 베 일을 두른 듯한 느낌을 준다.





브릿지 아트 & 사이언스 컬리지

전체 공간은 반지하의 지하를 포함해서 3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단면의 구성이 이 건축의 골격을 이룬다. 반지하층은 주차장으로서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한 윈드타워가 통풍에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1층에는 교실과 1·2층이 오픈된 FLA가 배치되고 2층에는 교원실과 학생들의 지발적인 학습공간이 마련되었다.

▶코넬대학 의학부 카타르校 — 와타나베 마코 토와 키노시타 요코/ADH

코넬대학 의학부 카타르교의 설계는 건축주인 카타르재단, 그리고 실사용자인 코넬대학의 주문 사항을 충족시켜야 했다. 카타르재단의 요구사항 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코넬대학에서는 미국 본 교의 시설들을 모델로 한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 을 제시하였다. 의학부 건물은 카타르, 미국, 그리 고 설계를 맡은 건축가의 국가인 일본이라는 세 개의 다른 문화권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 코넬대학의 시설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설계자 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카타르의 기후에 대 응하고, 이슬람문화의 전통을 가미하는 것이었다. 구조설계와 설비계획을 맡은 Arup측은 섭씨 45 도가 넘는 기온을 갖는 지역에서 외기를 실대로 들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결국 더블루프와 더블월을 사용하여 외부의 직사광선과 외기의 침입을 경감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더블루프를 사용한 옥상층의 전부는 모두 설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설비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벽면에 기하각적인 문양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이라베스크문양의 전통을 염두해 둔 것이다. 또한 4개의 강의실 중 코넬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타원형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강의실에서도 각각 12면체와 20면체의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한 것도 기하학적 문양의 전통이 있는 이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의식한 것이었다. (번역 / 강상훈)

## Architectural Reveiw

2004년 2월



▶ Behrisch & Pathersc의 독일 Lordh, 학 교

Behnisch 의 다각형 학 교 평면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는 교실이 환형으로 결합되는 형태로서, 중앙의 천창이 있는 만남의 장소로 교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이모델은 1973년 그들이 설계한 Lorch의 Progymnasium에서 발전되었다. 교실에 비정형의 특별 교실들이 추가되고 교과과정의 변경에따라 건물의 규모가 조정되었다. 순수한 형태의교실들을 원형으로 묶어주는 방식은 주변의 지세와 항에 맞춰 변형되었다. 지금은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운 학교를 추가하여 짓게 되었다. 학교는 약간 경사진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요한 건축

적 특징은 랜드스케이프와 방향성 있는 각각의 개체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가진 원형의 통합력에 있다. 그것은 건물이 어느 위치에서건 즉각적으로 이해되어지도록 한다. 한편으로, 원형의 매스하부에 있는 각각의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학생들에게 특징적인 장소성과 경험을 제공한다.

▶ Gould Evans의 Arizona, Tucson, 무용극장 University of Arizona는 미국에 있어서 대학 교육이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대인 19세기 후반 에 생겨났다. 오늘날은 아리조나와 미국 남동부 지역의 약 36,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예술대학의 무용과는 특히 인기가 있어서, 미국 내 예술교육부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존에는 캠퍼스내 공연 시설이 부족하였으나 새로운 무용극장의 건 설로 학생과 교수진의 열의에 호응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Gould Evans는 새로운 이 극장이 랜드마크가 되는 동시에 캠퍼스 동쪽 관문이 되도록 디자인 율 의뢰받았다. 건물의 중심에는 300좌석의 국 장이 위치하고 그 앞으로 리허설 스튜디오가 자 리한다, 극장 로비 상부로 불규칙하게 기울어진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본 건물의 공식적인 얼굴이 된다. 거대한 유리케이스는 캠 퍼스의 중심 거리에 면하여, 무용수들의 역동적 인 몸짓과 동작이 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끈 다. 거북이 등딱지 같은 메쉬 스킨을 통해 빛이 스며나옴에 따라 이간에는 스튜디오가 부드럽게 발광하는 물체로 변모한다. 부식시킨 금속재는 미남서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재료로서 지 역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아리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재료는 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어도 내부까지 부작되지 않아. 비



코넬대학 의학부 카타르枝



Gould Evans의 Arizona, Tucson, 무용극장

싼 산화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외피의 비정형적 형태는 동굴과 같은 극장 인테리어에까지 이어지 며, 스튜디오와 극장은 음향과 동선의 문제로 독 립적인 볼륨으로 이루어진다. 댄스 스튜디오의 하부로는 유동적인 공간으로서 로비가 위치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외 에 이 프로젝트는 건축의 견고함과 운동감의 순 간적이고 만질 수 없는 대략되는 성질을 조화시 키는 한편, 무용의 운동감과 신체성을 해석하여 건물의 형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의 핵심으로 무용의 그래픽적 표현이나, Labanotation(헝가리 안무가 Rudolf Laban가 고안한 안무를 위한 악보의 상징체계)를 연구하 였다. 건축가는 George Blanchine의 작품인 Serenade의 Labanotaion을 참고하였으며, Serenade의 각 움직임의 보법에서 매트릭스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입구의 기울어진 기둥 그리드가 발생하였다.

▶ Auer +Weber의 독일, Magdeburg, 대학 도서관

Elbe강에 위치한 Otto von Guericke대학은 현대 건물들의 컬렉션을 서서히 늘려오고 있다. 1995년에 세워진 마스터플랜에 따라 Peter Kulka의 과학 교수동을 시작으로 Sauerbruch의 연구통과 Max Plank Society를 위한 Gunter Henn의 디자인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을 슈투트가르트와 뮌헨에서 활동하고 있는 Auer +Weber의 도서관이 위의 콜렉션에 추가되었다. Auer +Weber는 형태와 공간에 정제된 접근을 하며 창의적이며 경제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유명 하다. 독창적인 접힌 형태가 만들어내는 역동적 인 배치는 사로운의 베를린 도서관을 연상시킨 다. 접혀진 형태의 각 면은 열람실, 서고, 서비스



Auer +Weber의 독일, Magdeburg, 대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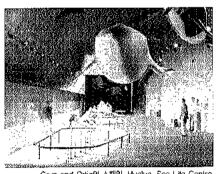
코어등으로 구성되며, 디테일의 처리는 명쾌한 공간 개념에 수렴한다.

그 밖에 ▶Peter Hubner의 독일, Unter Teck, Steiner 학교 ➤McCullough Mulvin의 아 일랜드, 더블린, 연구소 ▶Feilden Clegg Bradley의 영국, Gloucester, 대학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 ■ 인테리어

▶Cruz and Ortiz의 스페인, Huelva, Sea Life Centre

일련의 모래언덕위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낮 게 깔려있어서 사구의 지형과 거의 동화되어 존 재한다. 그러나 미니얼하고 절제된 형태는 드라 마틱하고 복합적인 내부를 숨기고 있다. 선형의 중앙 홀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동굴과 같은 내부 공간들이 매달려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2개층 높이의 중앙 홀에는 실제 크기의 해양 생물 모델 들이 매달려 있다. 콘크리트 본 마감의 거친 재질 과 이에 투사되는 그림자들을 만들어 내는 조명 으로 인해 방문객은 마치 바다 속의 바닥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된다. 수평 창으로부터 스 며들어오는 빚은 벽을 따라 조성된 풀에 채워진 물의 반사로 인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



Cruz and Ortiz의 스테인, Huelva, Sea Life Centre

## RIBA Journal

2004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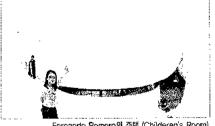
Herzog & de Meuron 이 이번 호 Guest Editor 로 선정되어 그들의 사무 살과 작품을 소개하고, 아 울러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프로젝트에서 그들과 같이 직업 하는 중국인 개념 예술가 Ai Weiwei에 대한 기 사를 실었다.

# ■ Fernando Romero의 주택 (Childeren's Room)

Fernando Romero의 건축은 멕시코의 다른 젊은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신선하고 자극적이 며, 한편으로는 Rem Koolhaas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품은 다소 지중해풍이면서 남부지방색을 드러내지만 항상 유토피안적 입장을 가지고 있 다. Children's Room도 이러한 생각을 담고 있 다. 백색의 무한한 공간감은 Kubrick의 미학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초현실적 공간은 외부의 정 원과 나무의 실재와 대비되어 더 강조되고 있다. 이 건물의 주된 개념은 내부와 바깥에 걸쳐 연속 되는 스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철제 프레임안 에 폴리우레탄 폼이 채워지고 파이버 글래스 스 컨이 그 밖을 덮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무정형 의 형태는 나선형 구조를 가진 조개나 계란과 닮 아 있다.



Fernando Romero의 주택 (Childeren's Room)

# ■ Herzog & de Meuron의 Andreas Gorsky 주택

찍는 것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이다. Herzog & de Meuron은 이전에 변전소이던 건물을 그의 작업실 겸 주택으로 개조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초점은 건물의 후면에 맞춰졌다. 매달려 있는 거 대한 서터에 의해 거실은 정원으로 열린다. 더글 라스 전나무로 마감된 현관과 발코니는 두개층 높이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트럭이 바로 주차하 여 사진들을 실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Herzog & de Meuron의 작업 과정

Herzog & de Meuron에게 관한 모든 것은 양면적이다. 작품들은 모두 대단히 이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거칠고 추하게 보일 수 있다. 가 장 유명한 스위스의 현대 건축가이지만, 그렇다 고해서 스위스적인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다. 또 한 런던 뮌헨 바르셀로나, 베이징등의 대도시에 오피스를 두고 있지만, 설계만은 Herzog and Pierre de Meuron이 태어나서 수학하고 살고 있는 바젤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의 건축은 사진 에서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건 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의 경험을 중요 시하기 때문이다. Herzog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기 좋은 건축이 보다 잘 팔릴 수 있을지 모른 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매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에서의 경험이며. 그것이 다른 매체와 경쟁할 수 있는 유열한 방법 이다." 다음 그들의 작품 5제를 소개한다.

#### ▶ Barcelona Forum

모든 사람들이 키큰 건물을 지을 때 Herzog & de Meuron은 그 반대의 것으로 하기로 하였 다. Via Diagonal과 원형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맞춰 평평한 삼각형의 매스가 놓여졌다. 수 처리 시설이 위치하였던 지역에 세워진 Barcelona Forum은 광대한 규모의 컨퍼런스와 전시 센터 를 수용한다. Herzog는 건물을 마치 바다로부터. 굴러 온 이브클라인 파랑색의 해면과 같은 재질 로 덮인 바위와 같다고 묘사하였다. 이 곳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년 내내 기능하는 공공공간

이 되고자 하였다. 오디토리움을 담는 바닥은 깊 🗓 게 파고 들어갔으며, 그 하부의 기단부는 전시공 Andreas Gorsky는 수많은 평범한 건물들을 표 간으로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도 한 🖹 다. 시장, 교회 등 일련의 공공시설은 모두 광장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물이 덮인 지붕은 북아프 리카로 이동하는 철새들을 유인하기 위한 건축가 의 바람이 들어있다.

#### ▶ Cottous 대학 도서관

마치 아베바과 같이, 평면은 유동적이고 공원 으로 흘러나오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형태는 서쪽으로는 캠퍼스의 입구로, 도시에 면하는 남 쪽으로는 보다 날렵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이다. Cottbus는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구 동독에 위치한다. 이 대학은 60, 70년대의 단순 하고 반복적인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 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이 도서관은 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 각 층은 각각의 따른 공간을 제 공하게 위해서 계획되었으며, 9개층을 관통하는 나선계단은 건물 내에서 시각적인 방항성을 제공 한다. 계단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잡담을 나누면 서도 일부는 자유롭게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충분 한 크기로 계획되었다. 건물은 다른 문화의 언어 가 프린트된 유리로 덮여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그래피티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 ▶ 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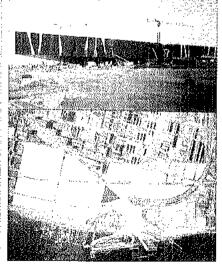
그들에게 있어서 미네이폴리스의 평평한 랜드 스케이프와 눈과 얼음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얼

음과 종이의 느낌을 위해 익스팬디드 알루미늄을 접기도 하고 구멍을 내기도 하였다. 거대한 비규 칙적인 창이 입면에 즉흥적으로 난 것처럼 보이 지만, 불규칙적인 형태와 배치를 찾기 위해서 수 백 개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미슬관, 350석 규모 의 스튜디오, 교육시설, 옥상정원 등이 추가되어 도시만의 휴식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각공원은 거리의 방문객의 시선을 끌어 시설로 의 유인에 기여할 것이며, 새로운 타워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 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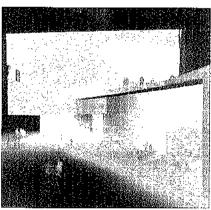
### ▶ 북경 올림픽 스타디움

이 스타디움에 Herzog & de Meuron이 붙인 비공식적인 이름은 새둥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자기 안의 공간에 매료되어 공간 도자기의 어 미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이미지는 1.5m 깊이 의 철제 박스 보의 교차로 실재화될 것이다. 콘크 리트 용기 안쪽에는 구조체가 모두 사라져서 십 만 관중들은 아무 장애물 없이 경기장을 용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반투명한 슬라이딩 지붕은 비 로부터 경기장을 보호하며, 이동 가능한 상부의 이만개의 좌석으로 올림픽 이후, 행사 규모에 맞게 스태디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최원준)



Barcelona Forum



Minneapolis Walker Art Center 증축

# 

#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지난 2004년 5월 7일(금) 14:00~17:30에 있었던 대한건축사협회 역사상 '최초'라는 회원의 자발적인 의견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토론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시행된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대하여 토론회 진행상황과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토론회의 목적과 현황

1) 토론회의 목적: 대한건축사협회의 각 위원회 활동상황의 상호교류 및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실현 방안의 연구와 모색으로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 현실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한다.

#### 2) 토론회현황

일시: 2004년 5월 7일 금요일 14:00~17:30

- 장소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강당 (대한건축사

협회입주건물 5층에 위치)

참석인원 : 약 80여명 (방명록 서명자 48명)

배부 : 토론회자료책자 120부
 건축백서 '건축개혁 2004' 20부
 대한건축사협회뺏지 75개

#### 토론회

□ 토론준비상황보고 및 개회선언[14:00 - 14:10]

사 회 :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주)종 : 합건축사사무소 공연

제1부 : 주제발표 및 토론 [14:10 - 15:45]

좌 장 : 조충기 | 법. 제도 개선기획단 위원 : 건 축사사무소 간향 최장 : 오늘 이 토론화에는 역대회장님과 협회 회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님들, 감사님들 그리 고 80여명이라는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주셨 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토론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사무처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토론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토론회준비위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과 지원을 표방하셨지 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명의 화원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칫, 토론회는 학계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토론준비위원회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협회의 발전방향이 나온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시도하자는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한다.

#### 1) 제도적 측면에서 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발표자: 장양순 | 홍보 편찬위원회 위원장 : 건 축사사무소 동명건축

토론자: 박종철 | 법제위원회 위원: 인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발표자 : 아나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행되면서 모든 분야는 더욱 더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에 부응하려면 정판및 위원회 규약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과 협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회원의 권역을 보다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위원 임기와 선출에서 구성인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이 회장임기와 함께 교체됨으로 인하여 활동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단절되므로, 특별한 시유가 없는 한 연임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신임 3명, 재임 3명 3연임 3명으로 구성되는 선임 순환방식과 위원장은 3연임을 미친 자가 된다.

축적된 노하우나 대외적 활동의 위상을 위하여 전문위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회 와 이사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유기적인 연 계를 위하여 위원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무임소이 사(담당 위원회가 없는 이사)와 구분하여 적용한 🦾 뱅크' 운영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정관 개정 전이라도 위원 회간의 활동상황 교류와 업무협조 목적상 정례 적인 위원장 통합회의가 필요하다. 위원회 활동 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평가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 으로 회원들을 위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발 전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야별 로 전문가들 모임과 그 특정 분야에 대하여 소 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위원장 겸임 이사제 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 : 최근 몇 년간의 법제도변화에 따라 협회의 결속력과 영향력이 날로 약해지면서, 협 회는 현 시대의 상황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고, 이제 협회도 우리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 있어야 한다.

'평가단의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는 분명히 평가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특정평가단'을 두어 위원회를 활동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위원 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이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각 위원 회의 활동사항과 방향을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충분히 소화하여, 협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는 면에서는 지지하나, 위원회의 활동이 자칫 이 사회의 영향이래 종속될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가 제대 로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안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위원의 임기/선출/전문위원'에 대해 '위원회 의 활동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한 다'라고 생각하며, 그와 병행하여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해,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회원 데이터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같이하여 '위원회와 이사회는 동등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직기구의 상하관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협회를 위하고, 회원을 위하는 차원에서 우리협 회 스스로가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협회가 긍정적인 방 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회원 들과 위원회의 공론이 이사회에서 가볍게 처리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임원들은 회원의/회원에 의한/회원을 위한 협 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 일에 전력을 다하고, 회 🥫 원들은 협회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 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정서를 가 질 수 있었으면 한다. 협회가 곧 우리요. 우리가 곧 협회이기 때문이다.

발표자 : 토론자가 지적한 네 가지 사항에 대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위원회는 기본적으 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은 발표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단 적인 예로서 매월 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 원회가 4~5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한번도 열 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잘하는 8.9명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1.2명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사와 위원회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 : 니지만 10여 년 전까지 만해도 이사가 위원장직 율 **맡았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관을 '정 관이 정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로서 보하며, 그 이사는 당해 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을 한 회 원 중에서 선임한다. 로 바꾼다면 문제해결이 되 리라 본다. 위원회의 활동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당 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발표자가 얘기한 위원의 임기연장과 연임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와 이사회는 동등해야 한다.'라는 부 분은 조직적 내에서 위원회가 이사회의 신하에 있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받아들이겠다. 정관계정이 아니더라도, 우 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장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각 위원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 게 될 것이고, 각 위원회의 정례화 된 '연합회 의 도 필요하다. 회의 때마다 각 위원회의 활동 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면 여러 분야의 위원회를 골고루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협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M/T를 가지고 그 비용은 협회가 해주길 바란다. 그 오리엔테이 션에서 신입위원의 교육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이후의 회의 진행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 2)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향 후 방안

발표자: 김향년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 예창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민규양 | 국제위원회 위원 : 토마 건 소무사사출

발표자 : 우리 협회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 이 있다. 20여개의 위원회와 방대한 인원구성 이 되어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난립된 위원회, 실효성과 정보부재, 전문성과 관련성에 대한 고 려 없이 중복된 위원 임명, 정책 대안제시 기능 미흡, 소극적인 활동, 문제의식 결여, 결정시항 과 집행의 비능률 비합리, 사무처 본연의 업무마 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과거부터의 타성이 며 현재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사명감과 자기학생에 의한 봉 사의지가 전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다.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세력안배, 학연배려

등의 관행적인 위원 구성이라 하겠다. 자발적 참 여에 의한 집행부와 회원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명예 등을 추구함으로 보여지며,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위원회 조직의 문제로는 참여의지의 결여로 인하여 활동의 지속성, 회의의 연계성, 임무의 분담에 의한 의견의 취합 과정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호름의 단절로 인하여 비효율 을 반복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물 의 의무화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연 간 1~2회 소집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대처를 해 야 한다.

집행부의 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온갖 이유로 인하여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며, 경우에따라서는 허무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일도 있다. 활동에 대한 위상확립과 강인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정리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 인선을 비롯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활동보고서의 작성 등 구체적인성과물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함께 토의하고 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토록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토론자: 위원회 활동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제위원회만을 보자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적자원도 훌륭하고, 위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리포터도 협회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제위원회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법제도개선가획단 활동을 통해서 협회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각위원회 위 원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금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존재하고,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 따른 위원회의 통폐합의 필요성도 느끼며,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새로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현재 우리 협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고, 이제는 뭔가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다. 위원회간의 정보공유가 보다 잘될 때, 열정 을 가진 많은 회원과 위원들의 응집된 힘이 자 연스럽게 도출되어 전달될 때, 전체 건축계의 느 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법제도개선기획단에서 논의한 수많은 개혁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기화를 협회에서 제공해야 하며,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건축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의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 위원회 상호간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소관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이 없다. 위원장간의 직접적인 대화로 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방적으로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위원회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다. 위원회 상호간의 교류문제와 의사소통에 대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3) 대한건축사협회 직능성 발휘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발표자 : 김석환 | 건축위원회 위원 : 터, 율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조원용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 · 건축시사무소 한양건축

발표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라는 전 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건축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고, 회원 각자가 갖고 있는 자부심과 잠재능력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 활로를 열어가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집행부와 회원간의 유대부 족을 돌을 수 있으며, 협회의 위상 약화와 대외 활동력 저하로 인하여 회원간의 반목은 커져가 고만 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개선 방안으로 서 협회의 작능성제고와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회의 조직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직능 성 제고를 위한 협회 운영조직 개선으로 건축사 가 전문가로서 인간과 건축을 성찰하고, 건축적 이상과 시대환경이 요청하는 새로운 현심적 방 안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동안, 사회에 비춰지는 바람직한 건축사의 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하는 위원회의 활동상 정립으로 전문가 단체에 걸맞은 자료 확보와 관리 등으로 대 회원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꾸어가고 싶을 것이다. 건축사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 활동이 우리 삶의 모습에 영향을 까친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건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되는 협회가 모두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서야 할 것이다.

토론자: 현재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협회와 회원간의 유대가 부족하다는 것과 협회 의 위상약화와 대외활동력 저하, 그리고 커기는 회원들 간의 반목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원회 중 심의 활동과 '명예건축사'제도/건축전문기자 양 성, 그리고 특검제 폐지와 병행하여 행위자 처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첫째, 사회적 현안 참 여/정부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전문능력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기여 등으로 협회 직능성제고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둘째, 회장 직선제도 입/위원회의 이사회 참여 등으로 협회 운영조직을 개선하고, 셋째, 자발적 무보수운동/회의방식 개선 등으로 봉사하는 위원회 활동상을 정립하고, 넷째, 자료실 확보 및 관리/연구소설립 등으로 전문가 단체에 걸맞는 연구 성과물 정기 발표 등을 통해 지적 인프라 구축 및 실질적 수익 사업의 저변 조성이 되도록 한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실천방안으로 왜곡된 언론정보 수정 등 사회참여를 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건축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건축전문기자를 활용한 대 언론 활동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하며, 타전문가 집 단과의 교류를 통한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0년간 배출된 건축사 수가 전체 건축 사의 2/3에 이론다. 대부분이 3,40대 젊은층일 텐데, 우리 협회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 전을 제시하였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협회는 꿈을 가진 젊은 건축사들을 협회 내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왕성한 활동성을 가진 이들이 모인 위원회연합(가칭)을 통하여서만이 과도기적 상황에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4) 청년건축사가 활약할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을 위하여

발표자 : 홍명식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삼주 건축사사무소

토론자: 백민석 |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 건축사사무소 비에이엔케이

발표자: 국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필연적으로 바 뀌어 나가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건축사들의 적 극적 참여를 통해 변화의 시대에 맞는 자기 자 신의 개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문화의 주체세 력으로 지긍심을 갖도록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방향의 제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서 서울에 편중된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역 회원들과 연계시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이 차별화되지 않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대적, 지역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계층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계층의 회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 시대의 흐름에 통참시켜야 할 것 이다.

위원회의 실행과제로서 결과물의 신속한 창출과 이들을 통한 ON LINE상의 협회 홍보 활동이며, 지역간의 교류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활동의 범위확대와 창업 및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창출을 위해 연구되어야 하며, 건축물은 공공적 문화의 산물로서 인식받기 위한 활동이되도록 해야 한다.

토론자: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위 원들을 포함하는 구성과 의식 있는 3,40대 건축 사 발굴에 대한 선행 작업이 요구되고, 과연 어 떻게 그들을 만나서 협회에 대한 설명과 협회가 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룔 반성해야 하며, 많은 3,40대 청년건축사들을 회 원으로 끌어들여 그들 중에서 의식 있고, 의자 있는 분들을 포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위원회 실행과제에 대해 ON LINE 상의 협회PR 활동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 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축사와 일반인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 적인 한계가 있다. 소수들에 의한 인프라 구축은 무언의 다수에 의해 협회 홈페이지를 소외시킬 수 있다.

협회 기업을 꺼리는 청년건축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우선 배고파서 여유가 없고, 협회에 본 받을만한 대상이었고, 선배건축사들의 불행한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그 원인일 것이다, 협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축사를 양성해야하고, 개업보다는 기존사무실내에서 등록을 독려할 필요가 있고, 사무소의 실장형 건축사들도협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할 것이다.

청년 건축사들의 협회가입을 도모하고 그들의 의견을 협회 곳곳에서 귀 기울이면서 시대의

호름에 맞는 조직의 운영이 되고, 선배 건축사분들의 고귀한 조언을 들으며, 이 사대가 필요로하는 건축사로서의 행복을 모두 함께 느낄 수있는 날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한다.

작장: 모든 것을 한번에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회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생각보다 상당한 관심의 열기로 차있고, 진행하는 동안 참석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도 많이 받고 있다. 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협회가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내실을 다질 수있고, 앞으로 우리 건축계의 중심적인 역할로 우뚝 일어서서, 건교부의 눈치 보지 않고, 협회가자발적인 정책대안을 내서 건교부가 받아들이는수순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협회가 스스로 일어서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 ㅁ 제2부 : 자유토론 [16:00 - 17:15]

진 행 :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건 축사사무소 공연

> 임두기 | 법제위원회 위원 : 다공종합 건축사사무소

진행자 [임두기 건축사]: 개인적으로 우리회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협회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협회가 해야 하는데, 협회는 무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협회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11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법제도개선기획단[위원9명, 기획단장: 이증정 건축사 ㅣ주호암 종합건축사사무소]'을 만들었다. 기획단은 두 달이라는 한정된 기간 속에서 공식적으로 16회 이상(비공식적으로는 25회이상), 1회에 보통 6~7시간씩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안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1995년에 발간된 '건축개혁안('새건협'의 A부터 건까지를 이미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분량도 2배이다.)'을 토대로 50여개 항목으로 재정리한 것이 '건축개혁2004' 이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협회가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자료축적도 많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나, 그동안 협회가 실천은 하지 않고, 자료만 누적만 시켜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작년 이세훈 화장 출범당시 각 위원회의 위원 물을 공개모집하여 위원화를 구성하였는데, 1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겪은 젊은 건축사들이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 았다. 젊은 건축사들의 불만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논쟁도 하고, 서로의 비슷한 심 정으로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 지거도하고 모임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난 젊은 건축사들의 모임은 그 활동을 협회조직 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할 것인가? 를 논의하였으나, 결 론은 '대한건축사협회 내에서 협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것의 출발이 '토론회'의 개최였으나, 이의 주최, 주관에 대해서는 총회가 끝난 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이제 이사회 구성되고, 각 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 통합토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협회의 예산을 받고, 대한건축시협회장 날인의 홍보물 만들고, 배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협회 자체 내에서도 협화가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도 이해하였다. 이렇게 토론회장소를 확보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협회의 조직과 정관을 바꿔야 하겠지만 '건 축개혁2004'의 50여개 항목을 살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1년에 1,2개씩 항목을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있는 기물을 만든다면, 아마 2~3년이면 대한건축사협회를 말 그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토론회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추진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자부한다.

이유림 건축사 [여성분과위원회 위원 : 건축 사사무소 발해] : 매우 좋은 의견들이다.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연 2회 내지 4회, 8회 등으로 지 속성을 갖자. '설계, 감리비를 제대로 받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지속적이지 못했다. 절차와 순 서를 정하여 이행하자. 여성건축위원회를 대표 하여 참석했다. 여성 건축사들의 입지를 배려해 달라. 건축사 업무는 소규모 개인사업도 가능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관련 자료 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협회 회비를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회비가 높이도 그 역할만 충분히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개별적 부담보다는 열배 백배로 단체 행위로서의 효율이 훨씬 더 글 것이다.

김영수 건축사 [전암회장 :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으로서는 다소 OVER되는 논조들이 있으나, 단점보다는 모두 좋다고 본다.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에 대비해야된다. 위원회 연합, 위원회 위원장이 이시가되어야 한다. 본연의 역할을 하라.

과거 회장 재직 시 연구소를 만든 적이 있다. 교육연구회 팀도 만들었었고, 정보센터도 있었 으나 전략, 전술이 부족했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협회의 책임이다.

토론 내용을 보면 비난적이지 않느냐? 와 전혀 막힘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자존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위상을 생각하라. 청년화, 지방화, 대중화는 당연하며, 설익은 발언으로 자만심을 갖지 말라. 연구소, 정보센터 등은 과거 '건미준'이라는 그룹의 활동으로 건축사 년 배출인원 1,000명으로 결정 시 김영삼 정부와의 약속이었다. 비판만 하지 말고, 협화 중심으로 참여하자.

노영환 건축사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 위 이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영수 고문의 당시 계획 은 집단이기주의로 실행 못했다. 직업적 프라이 드는 존경받는 것이며 최소한 배는 굶지 않는 것이나 그 가치를 못 찾는다. 장애물이 크다. 장 애물에 대항하느냐? 협회는 외향적이어야 하는

대 상대는 누구나? 대항에 유리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나 대부분 내부지향적이다.

위원회의 목표와 주제가 빈약하다. 위원회 구성을 공개로 하는 비공개로 하는 경륜을 우선시해야 한다.

손창수 건축사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위원 : 건축사사무소 청람] : 좋은 건축의 전제조건은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한다. 보수요율대로 받자 고 하는 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 윤리적 선 명성이면 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협회의 현상설 계 건을 보면 유야무야 흐른다. 정확히 정리해야 하다

도서신고 제도, 연금제도 등이 없어졌는데, 괜찮은 제도였던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는지 해명이 요구된다. 강력한 지도부를 원한다. 회관 건립위원회 문제 등 강력하게 이끌라.

조원용 건축사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 주.건 축사사무소 한양건축] : 수주역량이 부족한 젊은 건축사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방어막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예를 들어 공작물 관련하여, 주차장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건축사가 배제되고 있다. 응찰자격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입철에 300여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전기설비업체와 협정하여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여 업체로 줄어든다. 용역 수행 절차상 갑과 울이 바뀌는 현상을 낮고 있다.

WTO 문제에 대하여는 방어적 측면보다는 오 히려 공격적으로 태용해야 할이 합당하다.

이규환 건축사 [ 협회발전위원회 위원 : 주.성 문메타 건축사사무소] : 금번 토론회가 1회성 행 사로 끝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별 도로 활동을 한다면 시각에 따라 '새건축사협 회'나 다름없다. 기존의 협회 안에서 하자.

모든 문제들을 지속적인 토론으로써 풀어 나가자. 갈등적인 문제들은 자주 만나서 풀기로 하

고 서로 이해하자.

박총명 건축사 [ 법제위원회 위원장 :부산 성 환건축사사무소]: 나이 먹은 아나로그 세대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기분이 매우 좋고, 왜 진작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 이런 행사를 아니 했느냐 되묻고 싶다. 각 위원 회 활동에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 요하다. 즉 소신있게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사관 직업과 협회의 역사가) 엄청난 세월임 에도 건축사란 국민적 인식이 아직 없다.

부산에서는 건축사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아 동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그리기대회 행사를 했 다. 예상으로 약 2,000작 정도가 출품되어 모두 다 전시한 경우가 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 행사로서 대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듯 건축사도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세훈 건축사 [현 본협 회장 : 주, 종합건축 사사무소 제하] : 이번 토론회는 저희 본회에서 했어야 될 일인데, '준비위원회'가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부산, 경주, 강원 등 각지에서 다 온 것 같다. 본회에서 주최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다. 주제를 아주 좁혀서 심도 있게, 분기별도 좋고 혹은 격월, 매월, 매주도 좋 고, 여러분들의 열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이런 정열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어 떤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아 직은 나도 오늘 처음이라. 아시다시피 조직이 있 기 때문에, 또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다. 하여튼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여러분의 아주 좋은 생각이 우리 건축계에, 협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 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동안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한 토론준비 위원회 위원들과 좌장, 그리고 토론자 /발표자들 에게 다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남의집살이 관계로 토론회 장소 및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사정도 이렇게 있다. 조금 참고 견디면서, 협회에 애정을 가지기 바란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맙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 종합 정리 [ 17:15 - 17:30 ]

조층기 건축사 [ 죄장 : 건축사사무소 간향 ] :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러한 참석과 충고와 지적들은 우리 준비위원들 뿐만 아니라 협회를 밝게하는 디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 볼 때 우리 준 비위원 스스로가 반성하고 더 깊고 더 넓은 생 각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 지적한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과 평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 다. 오늘의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우리 대한 건축사협회의 정책 대안으로 건의하

그리고 토론준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의 협회는 회장이 협회를 위하여 발 벗고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러고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우리협회의 협회의 조직 및 기구의 문제점과 협회의 이사회를 포함 하는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대의원의 역 할론이 포함되는 올바른 협회상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대안제시를 경주하겠다. 또한 우리 협 회의 '건축연구소' 및 '건축사 등록원'의 설치와 '건축 강좌'의 개최, 그리고 '건축개혁2004'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계속 다룰 예정이다. 다음의 토론회는 '협회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 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하다

#### 🗆 폐회선연 [ 17:30 ]

강석후 |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건축사사 무소 공연

## 토론회 총평

- 1) 결론 및 건의사항
- 공청회가 되든, 좌담회가 되든 토론모임 회 의의 계속적, 정례화가 필요하다.

- 주제의 다양화가 전제되며, 경우에 따라 각 위원회 별로 주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이다
- 강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 위원회의 모임 으로서 위크샵 등의 행사로서 소속감을 고 취시킬 필요가 있다.
- 위원장들의 정례모임 등 수시로 위원회 간 의 활동 상황의 상호교류 등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정 절차를 불구하 고, 일단 위원에 암명되면 강제성이 부여되 더라도 형식적 참여가 아닌 희생과 봉사로 써 적극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타 : 토론회에 대한 '토론준비위원회' 자 체평가
- 주최, 주관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함으 로 인하여, 협회 행사로서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 주제 발표자의 숫자가 많으면 다소 산만해 질 수도 있으므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발표 자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주제에 대한 논점의 압축이 필요하며, 논지 의 흐름을 달리할 수 있는 논의의 사항들 은 다른 기회와 경로를 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늦은 감은 있지만 위원회 소속의 젊은 건축 사들 중심의 지발적인 추진에 의한 행사로 서 향후 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협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협회전임 회장 현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 한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위원 회 활동을 비롯한 협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 에 지극히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금번과 같은 행사를 장차 대외적 활동으로 발전시켜 협회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와 대 국민 홍보역할로서 발전 시킴도 바람직할 것이다.圖